

2012 제1권 제3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특별기고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기상 정보
부 록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 11-2012-03

2012 제1권 제3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은 농업관계자 및 일반인이 해외곡물시장을 이해하고 정부가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계곡물시장 동향과 관련 정보, 주요 지표를 정리·분석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년에 4회 분기별로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rei.re.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담 당

성명환 연구위원 mhsung@krei.re.kr

한석호 부연구위원 shohan@krei.re.kr

권나경 연구원 naijong@krei.re.kr

TEL 02-3299-4126

FAX 02-965-4395

contents

- 02 특별기고**
곡물가격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 / 02
- 05 해외곡물시장 동향**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 07
세계 곡물가격 동향 / 33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 41
- 51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태국의 쌀 산업 동향 / 53
중국의 쌀 수급 동향과 전망 / 68
베트남의 쌀 산업 동향 / 82
- 105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해외곡물시장 뉴스 / 107
품목별 주요 곡물 정책 / 124
- 129 세계 기상 정보**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 131
- 139 부록**
세계 곡물 통계 / 141
국가별 옥수수 통계 / 145





교수 한 두 봉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곡물가격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

2000대 후반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불안정성이 확대되었다. 1970년대 초반과 같은 식량 위기가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1970년대 식량 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제 곡물시장 안정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대 식량 위기와 식량 무기화가 시작된 것은 냉전시대 미국의 대 소련 밀 수출금지를 시행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식량 안보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가격 지지에 따른 과다한 곡물 비축, 수입 제한과 수출 금지 등 지나친 시장개입을 한 결과, 세계 곡물가격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미국과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곡물 비축량과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세계 곡물가격은 수출보조금의 경쟁적 확대에 따라 하락하였다.

1970년대 국제 공조와 협력없는 이기적인 자국 중심의 농업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농산물 무역 자유화와 무분별한 국내 보조 및 수출 보조를 규제하고 공정무역을 실현시키기 위해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어 1994년에 타결되었다. 이 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되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6년간 이행되었지만, 2001년에 시작된 도하발전 아젠다(DDA) 협상이 지난 10년 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2000년대 후반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글로벌 애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WTO의 DDA협상 중단으로 국제 협력과 공조가 깨졌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농산물시장 개방과 공정무역의 진전은 2001년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다. 선진국들은 아직까지 높은 국경 보호조치와 수출보조를 하고 있으며, 직접지불제라는 모습으로 다양한 국내보조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특히 사료곡물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브라질, EU에서 옥수수와 콩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의무사용량 증대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의 육류 소비의 증대와 더불어 국제 곡물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하였다. 중·장기적이고, 세계적인 곡물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곡물수출국들이 자국 농민들에 대한 소득 증대의 목적으로 바이오에너지의 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인 공조가 없다보니 수출국들이 바이오에너지의 수요를 확대하여 곡물가격을 상승시키는 이기적 행위를 전혀 규제할 수 없으니 국제 곡물가격의 전망은 매우 불안정하다.

곡물가격의 급등과 불안정은 세계적인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곡물 가격 급등의 이익은 모두 수출국들의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개도국과 수입국이 부담하고 있다. 국제 협력과 공조의 부재와 개도국과 곡물수입국의 희생으로 선진 곡물수출국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자국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7~2008년 식량 위기가 닥쳤을 때 아프리카 등 30여 개 개도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으며, 쌀과 밀의 약탈행위 등이 발생하였다. 러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는 곡물수출금지 조치를 취했다. 개도국들의 식량 위기와 달리 미국, 브라질을 비롯한 곡물수출국들은 애그플레이션으로 사상 유래 없는 농업 호황을 누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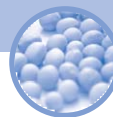
곡물수출국들의 이기주의적 바이오에너지 의무활용 확대, 국내 보조와 수출보조금의 확대, 수출금지 등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 공조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자국 이기주의에 빠진 선진 수출국들의 농업정책은 국제 곡물시장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안에 WTO의 DDA협상을 재개하고, G20 국가, 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공정무역을 위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곡물가격의 상승과 불안정성은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최근 애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이며,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장기과제이므로 국제적인 협력 강화와 정책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part 01

해외곡물시장 동향

2012 World Grain Market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 07

세계 곡물가격 동향 / 33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 41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전 세계의 기상 악화로 주요 곡물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 쌀의 경우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증가로 기말재고는 줄어들 전망이다. 밀의 경우 러시아를 비롯한 카자흐스탄과 흑해 연안 국가들 및 호주의 생산량 급감으로, 소비량 및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말재고는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옥수수의 경우 최대 생산국인 미국의 극심한 가뭄으로 세계 생산량은 줄어들 전망이며, 소비량 및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말재고는 감소할 전망이다. 대두의 경우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가 미국과 중국의 생산량 감소분을 상쇄시켜 세계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량 및 교역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재고량 증가로 기말재고는 전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말 미국 동부지역은 슈퍼 스톰으로 불리는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날씨로 인해 이틀 연속 뉴욕증권시장이 문을 닫은 것은 188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수확 막바지에 이른 미국 동부지역에 옥수수 및 대두의 수확이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미 6월부터 8월까지 미국 중서부지역에 들이닥친 극심한 가뭄으로 옥수수를 비롯한 대두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이 세계 곡물 시장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상황에서, 이제는 수확기마저도 날씨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 역시 이상 기온으로 곡물 생산에 큰 지장을 받았다.

미국과 함께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남미 또한 가뭄으로 몸살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남부 발칸반도와 흑해지역 국가들도 가뭄으로 인하여 곡물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호주와 인도는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으로 인하여 곡물 작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가뭄과 병충해로 인하여 주요 곡물 주산지인 동북 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생산량 감소 전망은 곡물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9월로 접어들면서 미국 중서부지역에 비가 내려

* 작성: 한국사료협회 김민수 과장(mskim@kofeed.org)

작황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고,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공급 측면에서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아 주요 곡물가격이 최고점에서 한 풀 꺾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 쌀 수급 동향 및 전망

■ 생산량

세계 쌀 생산량은 4억 6,510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3.5% 증가하였지만, 2011/12년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요국의 연간 쌀 생산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먼저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경우 올해 1억 4,30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4.4%, 1.6% 증가할 전망이다. 그 다음으로 인도의 경우 올해 9,900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3.1%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5.1% 감소할 전망이다. 그밖에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의 경우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인도네시아 3,690만 톤, 베트남 2,688만 톤, 태국 2,105만 톤, 필리핀 1,100만 톤, 파키스탄 67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1.1%, 0.5%, 2.9%, 2.8%, 3.1%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634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16.5% 감소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8.0%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미얀마, 브라질, 일본의 경우 올해 각각 1,075만 톤, 782만 톤, 75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0.6%, 0.9%, 2.0% 하락할 전망이다.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쌀 생산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5월 전망치에 비해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및 브라질의 생산량이 각각 3.4%, 1.5%, 2.3%, 9.8%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국, 이집트, 일본의 경우는 5월 전망치에 비해 생산량이 각각 1.4%, 1.9%, 1.4%, 8.7%, 23.7%, 1.9%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주요국의 생산량 변동폭이 거의 없으며, 다만 인도, 미국, 이집트, 일본의 생산량이 9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1.0%, 1.3%, 4.4%, 1.9% 증가할 전망이다.

표 1. 연도별 주요국의 쌀 생산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449.30	464.87	465.10	3.5	0.0
미국	7.59	5.87	6.34	-16.5	8.0
인도	95.98	104.32	99.00	3.1	-5.1
파키스탄	5.00	6.50	6.70	34.0	3.1
태국	20.26	20.46	21.05	3.9	2.9
베트남	26.37	26.74	26.88	1.9	0.5
브라질	9.30	7.89	7.82	-15.9	-0.9
인도네시아	35.50	36.50	36.90	3.9	1.1
필리핀	10.54	10.70	11.00	4.4	2.8
미얀마	10.53	10.82	10.75	2.1	-0.6
중국	137.00	140.70	143.00	4.4	1.6
이집트	3.10	4.25	4.70	51.6	10.6
일본	7.72	7.65	7.50	-2.8	-2.0
한국	4.30	4.22	4.30	0.0	1.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 소비량

세계 쌀 소비량은 4억 6,858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5.1%, 2.3% 증가할 전망이며, 전반적으로 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1억 4,35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6.3%, 2.9% 증가할 전망이며, 인도의 경우도 9,525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5.6%, 2.6% 증가할 전망이다. 그밖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또한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들 국가의 소비량은 인도네시아 4,000만 톤, 베트남 2,010만 톤, 태국 1,060만 톤, 필리핀 1,295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각각 1.1%, 1.8%, 1.9%, 0.8%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는 404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6.5% 감소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해서는 16.4%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2/13년 월별 주요국 쌀 소비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5월 전망치에 비해 인도, 미얀마, 브라질, 이집트 소비량이 각각 0.8%, 2.4%, 0.6%, 2.5% 감소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미얀마 및 이집트의 경우 최근 들어 소비량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국가들은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중국, 일본, 미국의 소비량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어 5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1.8%, 1.0%,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주요국의 쌀 소비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445.81	458.08	468.58	5.1	2.3
미국	4.32	3.47	4.04	-6.5	16.4
인도	90.21	92.82	95.25	5.6	2.6
파키스탄	2.25	2.50	2.65	17.8	6.0
태국	10.30	10.40	10.60	2.9	1.9
베트남	19.40	19.75	20.10	3.6	1.8
브라질	8.20	8.05	8.05	-1.8	0.0
인도네시아	39.00	39.55	40.00	2.6	1.1
필리핀	12.90	12.85	12.95	0.4	0.8
미얀마	10.10	10.14	10.38	2.8	2.4
중국	135.00	139.50	143.50	6.3	2.9
이집트	3.30	3.62	3.90	18.2	7.7
일본	8.20	8.05	8.05	-1.8	0.0
한국	5.18	4.98	4.80	-7.3	-3.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 교역량

세계 쌀 수출량은 3,642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4.4%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3.0%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쌀 수출국인 태국의 경우 수출량이 800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24.9% 감소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23.1%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인도의 경우 725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161.7%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27.5% 감소할 전망이다. 그밖에 파키스탄의 경우 4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6.7%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319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쌀 수출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은 5월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반해, 인도 및 미국은 5월 전망치에 비해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5월 전망치에 비해 20.8%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최근 들어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9월 전망치에 비해 3.6%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도 9월까지의 5월 전망치에 비해 12.3%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10월 현재 9월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 연도별 주요국의 쌀 수출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34.88	37.56	36.42	4.4	-3.0
미국	3.53	3.22	3.19	-9.6	-0.9
인도	2.77	10.00	7.25	161.7	-27.5
파키스탄	3.39	3.75	4.00	18.0	6.7
태국	10.65	6.50	8.00	-24.9	23.1
베트남	7.00	7.00	7.00	0.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세계 쌀 수입량은 3,299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0.7%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4.7% 감소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의 수입량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도네시아의 수입량은 145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53.2%, 3.3% 감소할 전망이며, 나이지리아의 경우 23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4.2%, 23.3%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필리핀, 서남아시아, EU-27, 브라질의 수입량은 각각 150만 톤, 448만 톤, 140만 톤, 75만 톤이며 2010/11년 대비 각각 15.4%, 5.9%, 0.7%, 19.0% 증가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EU-27과 서남아시아의 경우는 2011/12년 대비 각각 7.7%, 5.4%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쌀 수입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필리핀의 경우 5월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및 서남아시아의 경우 5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23.0%, 12.6%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서남아시아의 경우 최근 들어 수입량이 늘어나 9월 전망치에 비해 3.5%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EU-27의 경우 5월 전망치에 비해 9.7% 감소할 전망이다.

표 4. 연도별 주요국의 쌀 수입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32.75	34.63	32.99	0.7	-4.7
브라질	0.63	0.75	0.75	19.0	0.0
EU-27	1.39	1.30	1.40	0.7	7.7
인도네시아	3.10	1.50	1.45	-53.2	-3.3
나이지리아	2.40	3.00	2.30	-4.2	-23.3
필리핀	1.30	1.50	1.50	15.4	0.0
서남아시아	4.23	4.25	4.48	5.9	5.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 기말재고량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1억 197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3.4% 증가할 전망임에 반해, 2011/12년 대비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기말재고량을 살펴보면,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의 경우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기말재고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들 국가의 기말재고량은 파키스탄 91만 톤, 태국 1,213만 톤, 베트남 250만 톤이며 2010/11년 대비 각각 82.0%, 115.8%, 28.9%, 2011/12년 대비 각각 12.3%, 29.3%, 7.3% 증가할 전망이다.

2012/13년 월별 주요 수출국의 쌀 기말재고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5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15.7%, 9.0%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베트남과 미국의 경우 5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28.2%, 1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기말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태국의 기말재고량은 5월 전망치와 변동이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5. 연도별 주요국의 쌀 기말재고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98.66	105.45	101.97	3.4	-3.3
미국	1.51	1.30	1.03	-31.8	-20.8
인도	23.50	25.00	21.50	-8.5	-14.0
파키스탄	0.50	0.81	0.91	82.0	12.3
태국	5.62	9.38	12.13	115.8	29.3
베트남	1.94	2.33	2.50	28.9	7.3
브라질	0.80	0.49	0.41	-48.8	-16.3
인도네시아	6.18	4.63	2.98	-51.8	-35.0
필리핀	2.46	1.81	1.36	-44.7	-24.9
미얀마	0.51	0.43	0.20	-60.8	-53.5
중국	42.57	44.95	45.45	6.8	1.1
이집트	0.12	0.70	0.80	566.7	14.3
일본	2.69	2.79	2.74	1.9	-1.8
한국	1.03	0.88	0.78	-24.3	-11.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 기말재고율

세계 쌀 기말재고율은 20.2%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0.3%p, 1.1%p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수출국의 쌀 기말재고율을 살펴보면,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의 기말재고율은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기말재고율은 각각 13.7%, 65.2%, 9.2%이며 2010/11년 대비 4.8%p, 38.4%p, 1.9%p, 2011/12년 대비 0.7%p, 9.7%p, 0.5%p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인도 및 미국의 경우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기말재고율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 국가의 기말재고율은 각각 21.0%, 14.2%이며 2010/11년 대비 5.0%p, 4.3%p, 2011/12년 대비 5.2%p, 3.3%p 감소할 전망이다.

2012/13년 월별 주요 수출국의 쌀 기말재고율 변동폭을 살펴보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5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4.0%p, 1.5%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과 베트남의 경우 5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1.5%p, 2.0%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연도별 주요국의 쌀 기말재고율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p)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20.5	21.3	20.2	-0.3	-1.1
미국	19.2	19.4	14.2	-5.0	-5.2
인도	25.3	24.3	21.0	-4.3	-3.3
파키스탄	8.9	13.0	13.7	4.8	0.7
태국	26.8	55.5	65.2	38.4	9.7
베트남	7.3	8.7	9.2	1.9	0.5
브라질	8.3	5.5	4.7	-3.6	-0.8
인도네시아	15.8	11.7	7.5	-8.3	-4.2
필리핀	19.1	14.1	10.5	-8.6	-3.6
미얀마	4.7	3.9	1.8	-2.9	-2.1
중국	31.4	32.1	31.6	0.2	-0.5
이집트	3.4	16.6	16.8	13.4	0.2
일본	32.0	33.8	33.2	1.2	-0.6
한국	19.9	17.7	16.3	-3.6	-1.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2. 밀 수급 동향 및 전망

■ 생산량

세계 밀 생산량은 6억 5,305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0.2%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6.1%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국가별 2012/13년 밀 생산량을 살펴보면, 북미지역과 아시아지역의 생산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6,176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2.8%, 13.5% 증가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2,67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5.2%, 5.7%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및 인도의 경우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의 경우 1억 1,80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2.4%, 0.1% 증가할 전망이며, 인도의 경우도 9,39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6.2%, 8.1% 증가할 전망이다.

북미지역과 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러시아를 비롯한 흑해지역 국가의 생산량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러시아의

표 7. 연도별 주요국의 밀 생산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651.97	695.69	653.05	0.2	-6.1
미국	60.06	54.41	61.76	2.8	13.5
아르헨티나	17.20	15.50	11.50	-33.1	-25.8
호주	27.41	29.52	23.00	-16.1	-22.1
캐나다	23.17	25.26	26.70	15.2	5.7
EU-27	135.86	137.37	131.58	-3.2	-4.2
브라질	5.90	5.80	5.00	-15.3	-13.8
중국	115.18	117.92	118.00	2.4	0.1
인도	80.80	86.87	93.90	16.2	8.1
러시아	41.51	56.23	38.00	-8.5	-32.4
카자흐스탄	9.64	22.73	10.50	8.9	-53.8
우크라이나	16.84	22.12	15.50	-8.0	-29.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경우 3,80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8.5%, 32.4% 감소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1,55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8.0%, 29.9% 감소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1,050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8.9% 증가할 전망임에 반해, 2011/12년 대비 53.8% 감소할 전망이다. 호주의 경우도 엘니뇨 현상에 따른 생산지역의 가뭄으로 인하여 올해 생산량은 2,30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6.1%, 22.1% 감소할 전망이다. 남미지역도 올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아르헨티나의 경우 1,15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33.1%, 25.8% 감소할 전망이며, 브라질의 경우도 50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5.3%, 13.8% 감소할 전망이다.

2012/13년 월별 주요 생산국의 밀 생산량 전망치 변동폭을 살펴보면, 미국과 브라질,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생산량 전망치가 5월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호주에서의 생산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에 비해 러시아 32.1%, 카자흐스탄 30.0%, 호주 1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를 비롯한 카자흐스탄의 경우 매월 전망치가 수정되면서 생산량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9월 전망치까지는 5월 전망치를 유지하여 2,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10월 전망치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2,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캐나다, EU-27, 중국의 경우도 5월 전망치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과 인도의 경우 생산량이 더 늘어나고, 미국의 경우 5월 전망치에 비해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5월에 비해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소비량

세계 밀 소비량은 6억 7,822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3.6%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료용 소비량 역시 1억 3,449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15.4%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6.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사료용 소비량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소비량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국가는 대체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들이다. 2011/12년에 비해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러시아를 비롯한 흑해 연안 국가들과 호주, 캐나다 및 유럽 국가들이다. 러시아의 경우 2011/12년 대비 7.9% 감소한 3,5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2011/12년 대비 7.9% 감소

한 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 2011/12년 대비 17.7% 감소한 1,2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도 2011/12년 대비 2.8% 감소한 65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적으로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소비량 역시 상관관계를 가지나 캐나다의 경우 생산량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2011/12년 대비 13.9% 감소한 835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미국과 인도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2011/12년 대비 13.2% 증가한 3,641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인도의 경우 또한 2011/12년 대비 5.5% 증가한 8,59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표 8. 연도별 주요국의 밀 소비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654.73 (116.52)	695.46 (144.39)	678.22 (134.49)	3.6 (15.4)	-2.5 (-6.9)
미국	30.71 (3.59)	32.16 (4.46)	36.41 (8.57)	18.6 (138.7)	13.2 (92.2)
아르헨티나	5.95 (0.10)	5.95 (0.10)	6.00 (0.10)	0.8 (0.0)	0.8 (0.0)
호주	6.13 (3.00)	6.73 (3.50)	6.54 (3.30)	6.7 (10.0)	-2.8 (-5.7)
캐나다	7.69 (2.84)	9.70 (4.60)	8.35 (3.20)	8.6 (12.7)	-13.9 (-30.4)
EU-27	122.00 (52.50)	126.50 (57.00)	125.00 (55.50)	2.5 (5.7)	-1.2 (-2.6)
브라질	10.80 (0.20)	11.20 (0.50)	11.00 (0.20)	1.9 (0.0)	-1.8 (-60.0)
중국	110.50 (13.00)	120.50 (22.00)	122.00 (22.00)	10.4 (69.2)	1.2 (0.0)
인도	81.76 (2.90)	81.45 (3.10)	85.90 (3.80)	5.1 (31.0)	5.5 (22.6)
러시아	38.60 (16.00)	38.00 (15.50)	35.00 (13.00)	-9.3 (-18.75)	-7.9 (-16.1)
카자흐스탄	6.20 (1.90)	7.60 (2.60)	7.00 (2.20)	12.9 (15.8)	-7.9 (-15.4)
우크라이나	11.60 (2.80)	14.95 (6.10)	12.30 (3.80)	6.0 (35.7)	-17.7 (-37.7)

주: 괄호 안은 사료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2012/13년 월별 주요 생산국의 밀 소비량 전망치 변동폭을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 EU-27, 우크라이나의 경우 5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7.2%(사료용 36.9%), 6.4%(사료용 18.5%), 0.6%(사료용 1.8%), 5.1%(사료용 35.7%) 증가할 전망이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최근 들어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미국의 경우 9월 전망치보다 7.6%(사료용 43.1%), 캐나다의 경우 6.4%(사료용 18.5%)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호주를 비롯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소비량은 5월 전망치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호주의 경우 5월 전망치에 비해 10.4%(사료용 17.5%), 러시아 8.9%(사료용 18.8%), 카자흐스탄 17.6%(사료용 37.1%) 감소할 전망이다.

■ 교역량

세계 밀 수출량은 1억 3,087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2%, 16.4% 감소할 전망이다. 2011/12년 대비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호주,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이다. 아르헨티나는 56.7% 감소한 5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호주는 28.0% 감소한 1,800만 톤, 러시아는 58.4% 감소한 900만 톤, 카자흐스탄은 38.5% 감소한 700만 톤, 우크라이나는 26.5% 감소한 4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정부는 11월 15일부터 곡물 수출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수출제한조치가 불거져 온 러시아 또한 이에 대한 동조 가능성이 있어 향후 밀 공급량이 매우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11/12년 대비 미국과 캐나다, 인도의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9.6% 증가한 3,130만 톤, 캐나다는 9.5% 증가한 1,900만 톤, 인도는 547.1% 증가한 5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표 9. 연도별 주요국의 밀 수출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132.48	156.52	130.87	-1.2	-16.4
미국	35.08	28.56	31.30	-10.8	9.6
아르헨티나	9.49	12.70	5.50	-42.0	-56.7
호주	18.66	25.00	18.00	-3.5	-28.0
캐나다	16.58	17.35	19.00	14.6	9.5
EU-27	22.91	16.44	16.50	-28.0	0.4
인도	0.07	0.85	5.50	7,757.1	547.1
러시아	3.98	21.63	9.00	126.1	-58.4
카자흐스탄	4.86	11.39	7.00	44.0	-38.5
우크라이나	4.30	5.44	4.00	-7.0	-26.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밀 수출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5월 전망치에 비해 아르헨티나 15.4%, 호주 12.2%, 러시아 50.0%, 카자흐스탄 17.6%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호주의 경우 최근 들어 감소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어 9월 전망치에 비해 14.3%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과 캐나다, EU-27의 수출량 또한 최근 들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11/12년 대비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세계 밀 수입량은 1억 3,499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2.5%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8.7% 감소할 전망이다. 2011/12년 대비 수입국들의 수입량 감소가 두드러져, 브라질은 4.1% 감소한 700만 톤, 중국은 48.8% 감소한 150만 톤, 동남아시아는 9.9% 감소한 1,550만 톤, 북아프리카는 12.0% 감소한 2,17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서남아시아의 경우만 2011/12년 대비 3.0% 증가한 1,668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표 10. 연도별 주요국의 밀 수입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131.65	147.79	134.99	2.5	-8.7
브라질	6.70	7.30	7.00	4.5	-4.1
중국	0.93	2.93	1.50	61.3	-48.8
서남아시아	13.57	16.19	16.68	22.9	3.0
동남아시아	15.80	17.21	15.50	-1.9	-9.9
북아프리카	24.18	24.66	21.70	-10.3	-12.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2012/13년 월별 주요 수입국의 밀 수입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5월 전망치에 비해 중국 40.0%, 동남아시아 1.3%, 북아프리카 5.7%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수입량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북아프리카의 수입량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 기말재고량

세계 밀 기말재고량은 1억 7,30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2.6%, 12.7% 감소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와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 즉, 러시아를 비롯한 흑해 연안 국가들과 호주, EU-27, 브라질의 기말재고량이 급감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경우 544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60.4%, 47.9% 감소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 및 우크라이나는 2011/12년 대비 각각 52.6%, 13.6% 감소한 314만 톤, 446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호주의 경우 484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42.0%, 22.7% 감소할 전망이다.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밀 기말재고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5월 전망치에 비해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기말재고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표 11. 연도별 주요국의 밀 기말재고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197.93	198.17	173.00	-12.6	-12.7
미국	23.47	20.21	17.79	-24.2	-12.0
아르헨티나	4.11	0.96	0.97	-76.4	1.0
호주	8.34	6.26	4.84	-42.0	-22.7
캐나다	7.18	5.88	5.63	-21.6	-4.3
EU-27	11.84	13.64	9.21	-22.2	-32.5
브라질	1.86	1.76	1.26	-32.3	-28.4
중국	59.09	58.47	54.97	-7.0	-6.0
인도	15.36	19.95	22.45	46.2	12.5
러시아	13.74	10.44	5.44	-60.4	-47.9
카자흐스탄	2.88	6.63	3.14	9.0	-52.6
우크라이나	3.34	5.16	4.46	33.5	-13.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들어서는 호주를 비롯한 러시아, 미국, 캐나다, EU-27의 기말재고량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최근 들어 기말재고량이 대폭 증가하여 5월 전망치를 쫓아 상당량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말재고율

세계 밀 기말재고율은 21.4%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3.7%p, 1.9%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11년 대비 기말재고율은 인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기말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1/12년 대비 기말재고율 역시 아르헨티나, 호주, 인도 및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기말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기말재고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밀 기말재고율 변동폭을 살펴보면, 5월 전망치에 비해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기말재고율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며, 최근 들어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의 기말재고율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최근 들어 기말재고율이 대폭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표 12. 연도별 주요국의 밀 기말재고율 동향 및 전망

단위: %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p)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25.1	23.3	21.4	-3.7	-1.9
미국	35.7	33.3	26.3	-9.4	-7.0
아르헨티나	26.6	5.1	8.4	-18.2	3.3
호주	33.6	19.7	19.7	-13.9	0.0
캐나다	29.6	21.7	20.6	-9.0	-1.1
EU-27	8.2	9.5	6.5	-1.7	-3.0
브라질	13.9	13.3	10.1	-3.8	-3.2
중국	53.0	48.1	44.7	-8.3	-3.4
인도	18.8	24.2	24.6	5.8	0.4
러시아	32.3	17.5	12.4	-19.9	-5.1
카자흐스탄	26.0	34.9	22.4	-3.6	-12.5
우크라이나	21.0	25.3	27.4	6.4	2.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3.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 생산량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8억 3,902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1.1%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4.4% 감소할 전망이다. 2011/12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미국, 브라질, EU-27, 우크라이나이다. 미국은 13.4% 감소한 2억 7,194만 톤, 브라질은 3.8% 감소한 7,000만 톤, EU-27은 14.8% 감소한 5,561만 톤, 우크라이나는 8.1% 감소한 2,1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생육기간 동안 가뭄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브라질의 경우 역시 건조 기후로 파종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EU 국가들의 작황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33.3% 증가한 2,800만 톤, 남아프리카는 17.4% 증가한 1,350만 톤, 멕시코는 18.8% 증가한 2,150만 톤, 캐나다는 8.5% 증가한 1,160만 톤, 중국은 3.7% 증가한 2억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10월 26일 현재 파종이 40%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기후의 영향으로 파종면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진척 사항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이 클 가능성도 있다.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 변동폭을 살펴보면, 5월 전망치에 비해 미국, EU-27, 캐나다, 우크라이나의 생산량이 각각 27.6%, 11.9%, 7.9%, 12.5% 감소할 전망이다. 이들 국가의 생산량은 대체적으로 7~8월부터 생산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9월 이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EU-27과 캐나다의 생산량 전망치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연도별 주요국의 옥수수 생산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830.29	877.75	839.02	1.1	-4.4
미국	316.17	313.92	271.94	-14.0	-13.4
아르헨티나	25.20	21.00	28.00	11.1	33.3
브라질	57.40	72.73	70.00	22.0	-3.8
남아프리카	10.92	11.50	13.50	23.6	17.4
EU-27	55.93	65.27	55.61	-0.6	-14.8
멕시코	21.06	18.10	21.50	2.1	18.8
캐나다	11.71	10.69	11.60	-0.9	8.5
중국	177.25	192.78	200.00	12.8	3.7
우크라이나	11.92	22.84	21.00	76.2	-8.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 소비량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8억 5,329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0.6%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2.3% 감소할 전망이다.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용 소비량 또한 5억 449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0.9% 증가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0.4%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소비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미국의 소비량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옥수수 가격 급등으로 미국 중서부지역의 옥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에탄올 공장의 생산 마진 감소와 축산 사료비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하여 미국의 소비량은 2억 5,401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0.9%, 8.9% 감소할 전망이다. 그밖에 EU-27의 소비량 또한 6,15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6%, 8.6% 감소할 전망이다. 그밖에 국가들의 소비량은 2011/12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아르헨티나, 중국 및 우크라이나의 소비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는 88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14.3% 증가하고, 중국은 2억 1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6.9%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경우 850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30.8%, 2011/12년 대비 9.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옥수수 소비량 전망치 변동폭을 살펴보면, 5월 전망치에 비해 미국, EU-27,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소비량 전망치가 크게 줄어 10월 전망치는 5월에 비해 15.8%(사료용 23.9%) 감소할 전망이다. 그밖에 EU-27 8.9%(사료용 10.7%), 캐나다 9.5%(사료용 20.3%), 우크라이나 8.6%(사료용 6.7%) 감소할 전망이다.

표 14. 연도별 주요국의 옥수수 소비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848.41 (500.07)	873.35 (506.74)	853.29 (504.49)	0.6 (0.9)	-2.3 (-0.4)
미국	285.01 (121.75)	278.97 (115.87)	254.01 (105.42)	-10.9 (-13.4)	-8.9 (-9.0)
아르헨티나	7.30 (5.30)	7.70 (5.60)	8.80 (6.00)	20.5 (13.2)	14.3 (7.1)
브라질	49.50 (42.50)	54.00 (46.00)	56.00 (47.50)	13.1 (11.8)	3.7 (3.3)
남아프리카	10.65 (4.95)	10.70 (4.95)	11.10 (5.10)	4.2 (3.0)	3.7 (3.0)
EU-27	62.50 (47.50)	67.30 (52.00)	61.50 (46.00)	-1.6 (-3.2)	-8.6 (-11.5)
멕시코	29.20 (13.40)	29.50 (13.50)	29.70 (13.50)	1.7 (0.7)	0.7 (0.0)
캐나다	11.42 (6.46)	11.07 (5.77)	11.40 (5.90)	-0.2 (-8.7)	3.0 (2.3)
중국	180.00 (128.00)	188.00 (131.00)	201.00 (139.00)	11.7 (8.6)	6.9 (6.1)
우크라이나	6.50 (5.40)	7.80 (6.50)	8.50 (7.00)	30.8 (29.6)	9.0 (7.7)
이집트	12.50 (10.10)	11.70 (9.70)	12.20 (10.20)	-2.4 (1.0)	4.3 (5.2)
일본	15.70 (11.20)	15.00 (10.50)	15.00 (10.50)	-4.5 (-6.2)	0.0 (0.0)
한국	8.21 (6.07)	7.70 (5.60)	7.60 (5.50)	-7.4 (-9.4)	-1.3 (-1.8)

주: 괄호 안은 사료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 교역량

세계 옥수수 수출량은 8,992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7%, 16.8%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베이스스가격 및 선물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

출량 감소가 두드러지는바 수출량은 2,921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37.3%, 25.5%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1/12년 대비 브라질은 15.8% 감소한 1,600만 톤, 우크라이나는 16.7% 감소한 1,2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아르헨티나 및 남아프리카의 수출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2011/12년 대비 아르헨티나는 15.6% 증가한 1,850만 톤, 남아프리카는 66.7% 증가한 2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남미산 옥수수 가격이 미국산 옥수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남미산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공급량의 한정으로 점차 미국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옥수수 수출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5월 전망치에 비해 미국 및 우크라이나의 수출량 감소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5월 전망치에 비해 무려 39.5% 감소하였으며, 최근까지 수출량 감소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8월 이후 전망치가 5월 전망치에 비해 10.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브라질의 수출량 전망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10월 현재 5월 전망치보다 3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출량 증가폭도 매월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15. 연도별 주요국의 옥수수 수출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91.46	108.11	89.92	-1.7	-16.8
미국	46.59	39.19	29.21	-37.3	-25.5
아르헨티나	16.35	16.00	18.50	13.1	15.6
브라질	8.40	19.00	16.00	90.5	-15.8
우크라이나	5.01	15.00	12.50	149.5	-16.7
남아프리카	2.45	1.50	2.50	2.0	66.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세계 옥수수 수입량은 올해 9,099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5%, 7.5% 감소할 전망이다. 2011/12년 대비 이집트, EU-27, 멕시코, 중국의 수입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집트는 22.5% 감소한 550만 톤, EU-27은 20.6% 감소한 500만 톤, 멕시코는 24.1% 감소한 850만 톤, 중국은 63.6% 감소한 2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일본, 동남아시아, 한국의 경우 각각 1,500만 톤, 595만 톤, 750만 톤으로 2011/12년과 비슷한 수입량을 보이고 있다.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옥수수 수입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이집트를 제외한 대부분 수입국의 옥수수 수입량이 5월 전망치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전망치 대비 주요국의 하락률을 살펴보면, 중국 71.4%, EU-27 16.7%, 한국 11.8%, 동남아시아 9.2%, 멕시코 8.6%, 일본 6.3% 하락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경우 계속해서 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이집트의 경우 5월 전망치에 비해 5.8% 증가할 전망이며, 최근 들어 EU-27의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 9월 전망치에 비해 66.7%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6. 연도별 주요국의 옥수수 수입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92.35	98.34	90.99	-1.5	-7.5
이집트	5.80	7.10	5.50	-5.2	-22.5
EU-27	7.36	6.30	5.00	-32.1	-20.6
일본	15.65	15.00	15.00	-4.2	0.0
멕시코	8.25	11.20	8.50	3.0	-24.1
동남아시아	7.81	5.85	5.95	-23.8	1.7
한국	8.11	7.50	7.50	-7.5	0.0
중국	0.98	5.50	2.00	104.1	-63.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 기말재고량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1억 1,727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7.8%, 10.8% 감소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중국,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기말재고량은 2011/12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37.4% 감소한 1,573만 톤, 브라질의 경우 11.1% 감소한 961만 톤, 남아프리카 2.6% 감소한 267만 톤, EU-27 23.0% 감소한 461만 톤, 캐나다 22.2% 감소한 105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1/12년에 비해 49.3% 증가한 215만 톤, 멕시코 30.8% 증가한 119만 톤, 중국 1.3% 증가한 6,040만 톤, 우크라이나 4.1% 증가한 126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표 17. 연도별 주요국의 옥수수 기말재고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127.13	131.54	117.27	-7.8	-10.8
미국	28.64	25.11	15.73	-45.1	-37.4
아르헨티나	4.13	1.44	2.15	-47.9	49.3
브라질	10.28	10.81	9.61	-6.5	-11.1
남아프리카	3.42	2.74	2.67	-21.9	-2.6
EU-27	4.92	5.99	4.61	-6.3	-23.0
멕시코	1.41	0.91	1.19	-15.6	30.8
캐나다	1.28	1.35	1.05	-18.0	-22.2
중국	49.42	59.60	60.40	22.2	1.3
우크라이나	1.12	1.21	1.26	12.5	4.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옥수수 기말재고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옥수수 기말재고량이 5월 전망치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은 67.1%, 브라질 25.4%, 남아프리카 0.7%, EU-27 10.7%, 멕시코 38.3%, 캐나다 37.5%, 우크라이나 35.7%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들어서도 미국 및 브라질의 기말재고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9월 전망치에 비해 미국의 경우 15.6%, 브라질의 경우 36.4%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아르헨티나 및 중국의 경우 5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35.2%, 4.6% 증가할 전망이다.

■ 기말재고율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율은 12.4%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1.1%p, 1.0%p 감소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기말재고율이 2011/12년 대비 감소할 전망인 바, 캐나다는 3.2%p, 남아프리카는 2.9%p, 미국은 2.3%p, 중국은 1.7%p, EU-27은 1.1%p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아르헨티나, 멕시코, 우크라이나의 기말재고율은 각각 1.8%p, 0.9%p, 0.7%p 증가할 전망이다.

표 18. 연도별 주요국의 옥수수 기말재고율 동향 및 전망

단위: %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p)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13.5	13.4	12.4	-1.1	-1.0
미국	8.6	7.9	5.6	-3.0	-2.3
아르헨티나	17.5	6.1	7.9	-9.6	1.8
브라질	17.8	14.8	13.3	-4.5	-1.5
남아프리카	26.1	22.5	19.6	-6.5	-2.9
EU-27	7.7	8.5	7.4	-0.3	-1.1
멕시코	4.8	3.1	4.0	-0.8	0.9
캐나다	9.7	11.7	8.5	-1.2	-3.2
중국	27.4	31.7	30.0	2.6	-1.7
우크라이나	9.7	5.3	6.0	-3.7	0.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옥수수 기말재고율 변동폭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와 EU-27,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기말재고율이 5월 전망치에 비해 하락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은 8.1%p, 브라질은 5.6%p, 캐나다는 4.3%p, 멕시코는 2.5%p, 우크라이나는 2.4%p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과 미국의 기말재고율은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은 9월 기말재고율에 비해 0.9%p, 브라질은 8.0%p 감소할 전망이다.

4.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 생산량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6,428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0.2% 감소할 전망임에 반해, 2011/12년 대비 11.0%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파종면적 증가와 주산지의 양호한 날씨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경우 올해 8,1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2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올해 5,5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34.1%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파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향후 기상 이변으로 생산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여

지가 크다. 반면 최대 생산국인 미국의 경우 주산지인 중서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올해 7,784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7.5% 감소할 전망임에 따라 세계 대두 생산량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1,26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6.7% 감소할 전망이다.

표 19. 연도별 주요국의 대두 생산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264.68	238.11	264.28	-0.2	11.0
미국	90.61	84.19	77.84	-14.1	-7.5
아르헨티나	49.00	41.00	55.00	12.2	34.1
브라질	75.50	66.50	81.00	7.3	21.8
중국	15.10	13.50	12.60	-16.6	-6.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대두 생산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우 5월 전망치에 비해 생산량이 줄어든 전망이다 바, 미국 10.8%, 중국 3.8%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는 9월까지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으나, 날씨 개선에 따른 생육 상황 호전으로 인하여 10월 전망치에서는 생산량이 다소 만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소비량

세계 대두 소비량은 2억 5,876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2.9%, 1.8% 증가할 전망이다. 착유용 소비량도 2억 2,899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3.5%, 1.7%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1/12년 대비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이다. 아르헨티나는 8.1% 증가한 4,035만 톤, 브라질은 0.5% 증가한 3,989만 톤, 중국은 6.0% 증가한 7,532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2011/12년 대비 미국, EU-27, 일본의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은 7.8% 감소한 4,505만 톤, EU-27은 3.0% 감소한 1,195만 톤, 일본은 5.0% 감소한 285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표 20. 연도별 주요국의 대두 소비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251.40 (221.33)	254.19 (225.21)	258.76 (228.99)	2.9 (3.5)	1.8 (1.7)
미국	48.40 (44.85)	48.86 (46.35)	45.05 (41.91)	-6.9 (-6.6)	-7.8 (-9.6)
아르헨티나	39.21 (37.61)	37.33 (35.73)	40.35 (38.70)	2.9 (2.9)	8.1 (8.3)
브라질	39.33 (36.33)	39.70 (36.70)	39.89 (36.80)	1.4 (1.3)	0.5 (0.3)
중국	65.95 (55.00)	71.07 (60.07)	75.32 (64.20)	14.2 (16.7)	6.0 (6.9)
EU-27	13.46 (12.27)	12.32 (11.37)	11.95 (11.05)	-11.2 (-9.9)	-3.0 (-2.8)
일본	3.21 (2.15)	3.00 (1.95)	2.85 (1.80)	-11.2 (-16.3)	-5.0 (-7.7)

주: 괄호 안은 착유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대두 소비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소비량이 5월 전망치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소비량 감소가 두드러져 5월 전망치에 비해 7.0%(착유용 6.9%)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역시 5월 전망치에 비해 2.7%(착유용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U-27 및 일본의 경우도 5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1.1%(착유용 0.3%), 3.7%(착유용 5.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월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던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소비량 감소폭이 최근 들어 만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9월 전망치에 비해 미국은 2.5%(착유용 2.7%), 아르헨티나는 1.3%(착유용 1.3%)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변동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교역량

세계 대두 수출량은 9,620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3.8%, 6.4%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이 올해 1,2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57.9%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브라질은 3,74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3.0%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3,443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7.0% 감소할 전망이다.

표 21. 연도별 주요국의 대두 수출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92.67	90.45	96.20	3.8	6.4
미국	40.85	37.01	34.43	-15.7	-7.0
아르헨티나	9.21	7.60	12.00	30.3	57.9
브라질	29.95	36.32	37.40	24.9	3.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대두 수출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5월 전망치에 비해 미국의 경우 15.9% 감소함에 반해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수출량은 각각 18.8%, 9.4%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수출량이 최근 들어 상당량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월 전망치에 비해 19.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감소폭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경우 최근 들어 대두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9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11.1%, 4.3%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대두 수입량은 9,346만 톤으로 2010/11년 및 2011/12년 대비 각각 5.2%, 3.0%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의 경우 올해 북부평야지대의 극심한 가뭄과 남부지역의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인하여 대두 수입량은 6,100만 톤으로 2011/12년 대비 5.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EU-27, 일본, 멕시코의 수입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2011/12년 대비 EU-27은 0.9% 감소한 1,070만 톤, 일본은 6.5% 감소한 260만 톤, 멕시코는 1.5% 감소한 335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표 22. 연도별 주요국의 대두 수입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88.80	90.76	93.46	5.2	3.0
중국	52.34	58.00	61.00	16.5	5.2
EU-27	12.48	10.80	10.70	-14.3	-0.9
일본	2.92	2.78	2.60	-11.0	-6.5
멕시코	3.50	3.40	3.35	-4.3	-1.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2012/13년 월별 주요국 대두 수입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EU-27, 일본, 멕시코가 5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2.7%, 7.1%, 4.3%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멕시코의 경우는 최근 들어 수입량이 늘어나 9월 전망치 대비 4.7% 증가하여 수입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기말재고량

세계 대두 기말재고량은 5,756만 톤으로 2010/11년 대비 18.4% 감소할 전망임에 반해, 2011/12년 대비 5.1% 증가할 전망이다. 2011/12년 대비 미국을 비롯한 중국의 기말재고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은 23.4% 감소한 353만 톤, 중국은 13.4% 감소한 1,277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기말재고량은 2011/12년 대비 각각 14.0%, 29.4% 증가할 전망이다.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대두 기말재고량 변동폭을 살펴보면, 5월 전망치에 비해 미국과 중국의 기말재고량이 각각 10.4%, 2.8% 감소할 전망이다. 이들 국가의 기말재고량은 9월까지의 계속해서 줄어들었으나, 10월 전망치에서는 다소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 9월 전망치에 비해 미국 12.8%, 중국 8.8%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경우 월별 전망치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5월을 기점으로 8월까지 하락을 보였으나, 이후 전망치는 증가세로 이어져 5월 전망치에 비해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또한 5월을 기점으로 7월까지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8월 이후부터는 증가세로 이어져 10월 현재 5월 전망치에 비해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3. 연도별 주요국의 대두 기말재고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률(%)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70.56	54.79	57.56	-18.4	5.1
미국	5.85	4.61	3.53	-39.7	-23.4
아르헨티나	22.87	18.94	21.59	-5.6	14.0
브라질	22.89	13.48	17.44	-23.8	29.4
중국	14.56	14.74	12.77	-12.3	-13.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 기말재고율

세계 대두 기말재고율은 16.2%로 2010/11년 대비 4.3%p 감소함에 반해 2011/12년 대비 0.3%p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을 제외한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의 기말재고율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미국 1.0%p, 아르헨티나 1.0%p, 중국 3.8%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고 상황이 매우 타이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13년 월별 주요국의 대두 기말재고율 변동폭을 살펴보면, 5월 전망치에 비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의 기말재고율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사실상 이들 국가의 기말재고율은 9월까지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들어 기말재고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9월 전망치 대비 아르헨티나 3.5%p, 브라질 2.0%p, 중국 1.3%p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미국의 기말재고율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으며 5월 전망치를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표 24. 연도별 주요국의 대두 기말재고율 동향 및 전망

단위: %

국가	2010/11 (A)	2011/12 (B)	2012/13 (C)	증감(%p)	
				10/11대비 (C/A)	11/12대비 (C/B)
세계	20.5	15.9	16.2	-4.3	0.3
미국	6.6	5.4	4.4	-2.2	-1.0
아르헨티나	47.2	42.2	41.2	-6.0	-1.0
브라질	33.0	17.7	22.6	-10.4	4.9
중국	22.0	20.7	16.9	-5.1	-3.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11, October 11, 2012.

세계 곡물가격 동향

곡물 가격은 지난 여름 미국 가뭄에 따른 작황 피해 이슈가 대부분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빠른 수확진행 속도를 보이며 공급 압박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으며, 단기 고점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옥수수과 대두 가격은 수급 측면에서 추가 상승재료가 제공되지 못하면서 하락 후 횡보장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밀 가격은 흑해 인근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와 러시아의 밀 수출제한조치 시행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낙폭은 다소 제한받는 양상을 보였다.

2012년 10월 평균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은 각각 톤당 286달러, 609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흐름을 보였다. 이는 2011년 10월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각각 약 13.7%, 21.5% 상승한 수준이며 2010년 7월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서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2012년 7월 평균 밀 가격 역시 톤당 316달러를 나타내며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곡물 가격은 지난 7월 중순 고점 경신 이후 기상 여건 개선과 작황 피해가 더이상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반락 후 횡보장세를 이어나가는 양상이다. 8월 초 미국 중서부 곡창지대에 내린 강우가 대두와 옥수수 가격의 하락을 이끌었다. 특히, 8월에 이번 시즌의 작황 호조 여부가 결정되는 대두의 경우, 가뭄 해갈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단기 고점 인식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도 곡물 가격 하락에 일조하였다. 대두 가격은 10월 사이 3.37% 하락하였다. 옥수수 가격은 보험권에 머물렀고, 밀 가격은 4.21% 내렸으나 8월 이후 레인지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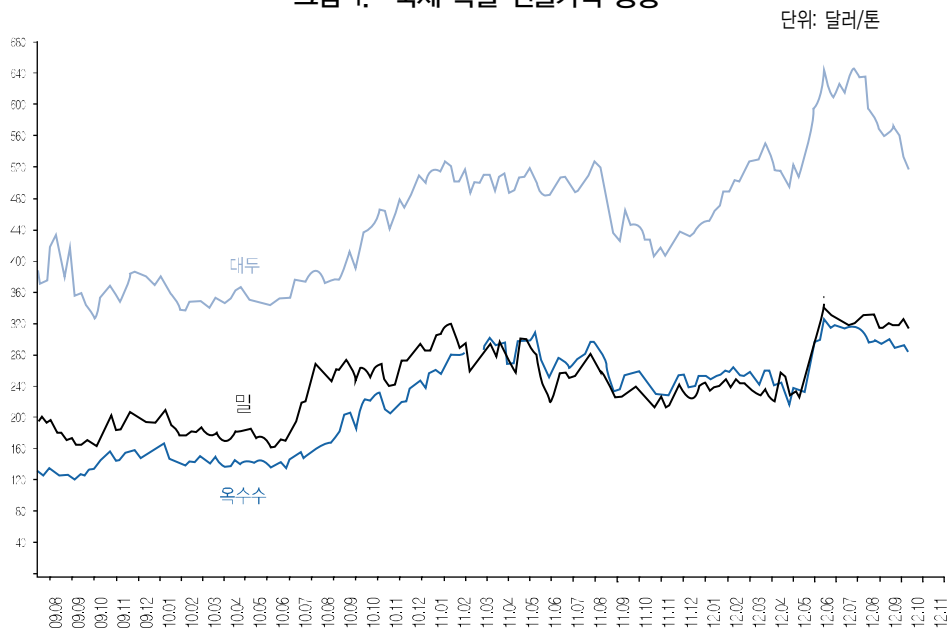
수급 측면에서 대두의 기말재고량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타이트한 수준으로 인식되면서 대두 가격의 추가 하락을 제한하였으며 허리케인 아이작 상륙으로 인해 수확 직전의 옥수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옥수수 가격 역시 낙폭을 만회하는 등 불안정한 등락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 대두, 옥수수의 수확 속도가 예년과 비교하여 빠른 진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작황 보고서를 통해서 대두와 옥수수의 품질이

* 작성: (주)외환선물 한성민 차장(sun@kebi.com)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의 순조로운 곡물 파종에 대한 전망에 힘이 실리며 대두 및 옥수수 가격의 상승 근거는 취약해졌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곡물 수요의 둔화 가능성은 높아졌다. 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매크로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 곡물 가격은 다른 품목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 경기 전망으로 인한 낙폭은 제한되었다. 대두에 대한 중국의 높은 수입 수요를 반영하며 미국산 대두의 주간 수출량은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산 옥수수 수출량의 경우 미국에서 남미와 인도 옥수수로 수입 수요가 이동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림 1. 국제 곡물 선물가격 동향



1. 밀 가격 동향

밀 가격은 여타 곡물 가격의 하락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호주의 기상 악화에 따른 생산 우려와 러시아의 수출제한조치 시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밀 가격은 지난 7월 고점을 기록한 이래 박스권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밀의 경우 여타 곡물에 비해서는 재고가 양호한 상황이나 러시

아, 우크라이나 밀 생산지역의 가뭄 상황에 따른 부정적인 생산 전망에 이어 호주 역시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전망이 나오면서 밀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추가 하락이 제한받고 있다. 반면 흑해 지역의 생산량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러시아 농무부는 9월 초, 언론을 통해서 밀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와 같은 발언이 밀 수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 이집트 등의 중동 국가들이 흑해 산 밀의 구매계약 체결을 지속하는 점도 러시아 밀 확보에 대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2012/13시즌의 생산량 전망치를 고려했을 때 이번 유통연도의 러시아산 밀 수출량이 800~900만 톤을 넘어설 경우에 기말재고량은 위험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7~8월 두 달 간의 러시아산 밀 수출량은 400만 톤을 넘어섰고, 이같은 속도를 고려해 볼 때 러시아의 수출제한조치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11월 15일부터 한시적인 밀 수출 중단을 실시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일 중 가격 상승폭은 0.46%에 그쳤다. 이미 우크라이나가 수출 물량을 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수출금지조치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번 시즌 밀 작황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흑해의 밀 생산 부진을 일부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 밀 가격은 러시아산 밀에 대한 수출 제한 실시 가능성을 가늠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2. 밀 비상업거래(투기거래) 현황

단위: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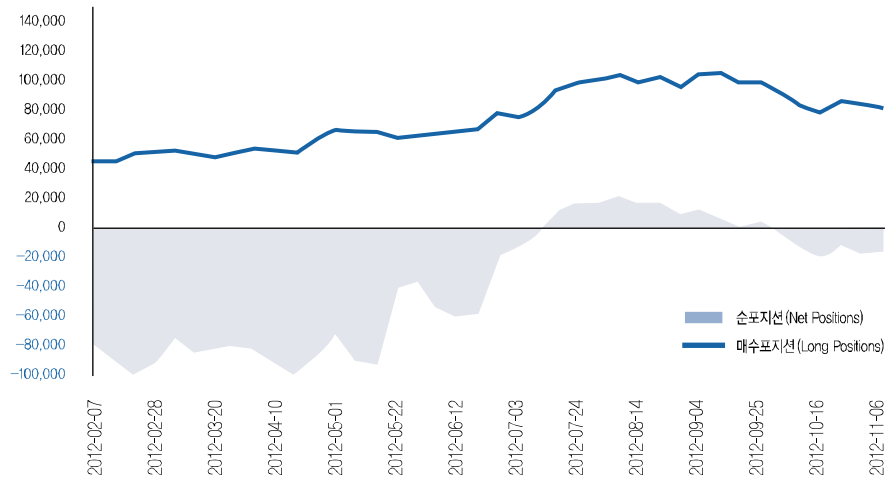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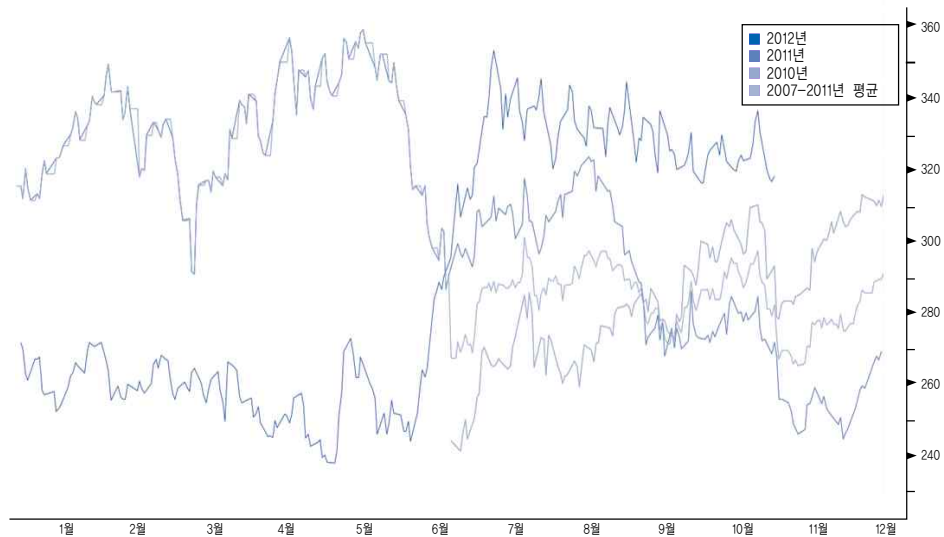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밀 선물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2. 옥수수 가격 동향

올 여름 가뭄으로 인한 미국산 옥수수의 생산량 감소 우려는 가격에 반영된 상황이며, 빠른 수확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감과 남미 국가들의 긍정적인 옥수수 생산 전망,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물량의 유입으로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허리케인 아이작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가능성이 대두되었으나 시장 예상보다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반면, 중국 곡창지대인 동북지역에는 10년 만에 최악의 병충해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농업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옥수수 병충해 피해 면적은 약 100만 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중국 내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 부족분을 수입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옥수수 가격의 상승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2012/13시즌 중국의 옥수수 수확량 전망치는 2억 만 톤 가량으로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수확량이 감소하더라도 옥수수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인도 및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도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에서는 몬순 기간에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 17% 급감하면서 옥수수와 쌀 경작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미의 옥수수 파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글로벌 수급 상황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남미 국가들이 옥수수보다는 대두 파종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옥수수 가격은 대두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까지 옥수수에 대한 수요는 공급 우려 완화 기조를 누를 만큼 높지는 않았으나 최근 옥수수의 가격 흐름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수요 회복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산 옥수수 수출 실적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반면, 에탄올의 정제 마진이 하락하면서 에탄올 생산에 대한 메리트가 감소하고 있고, 가솔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에탄올-가솔린 스프레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차후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생산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이다.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수요는 중기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브라질산 사탕수수로 생산된 에탄올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4. 옥수수 비상업거래(투기거래) 현황

단위: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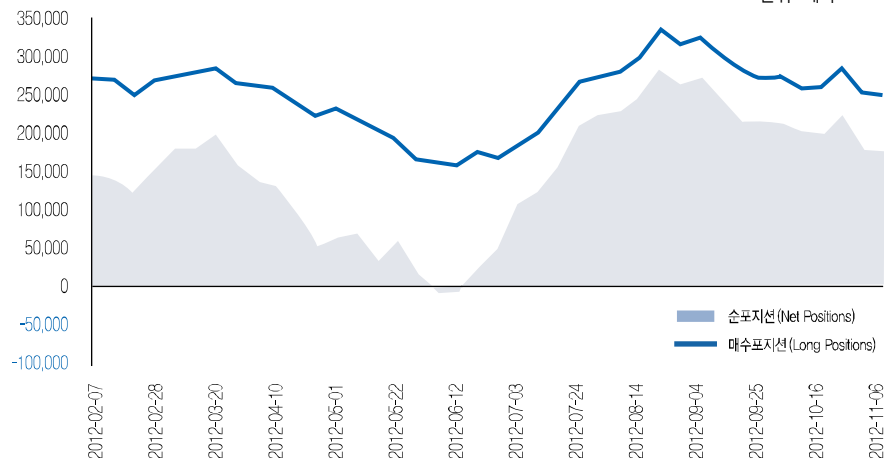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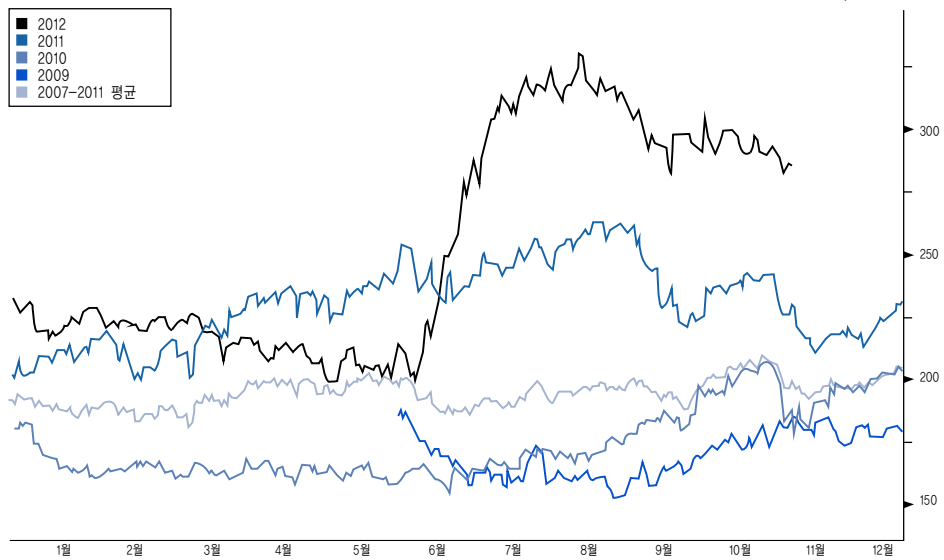


그림 5. 연도별 옥수수 선물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3. 대두 가격 동향

대두 선물가격은 옥수수 가격과 마찬가지로 가뭄으로 인한 2012/13년도 미국 대두 작황 부진으로 대두 가격은 역대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 단기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 물량 유입과 남미 국가들의 긍정적인 생산 전망 영향으로 곡물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하락 조정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미국 작황 문제로 글로벌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반구의 곡물 생산 국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 증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경우 2011/12년도 가뭄으로 인한 경작 부진 영향으로 생산량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2/13시즌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전 시즌에 비해 22%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현재 옥수수 가격에 비해 대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관점에서 옥수수보다는 대두 경작 증가에 무게가 실린다.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면적은 각각 86만 ha, 250만 ha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차후 기상 이변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브라질에게 세계 제1의 대두 생산 및 수출국의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일부 경작지에는 여름 사이 예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브라질의 토양 수분량은 파종과 발아에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지면서 대두 생산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등 날씨 변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대두의 재고 수준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타이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남미산 대두의 작황마저 좋지 않다면 대두 가격은 안정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요 측면에서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이 저조한 상황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번 시즌 남미산 대두가 수확되기 전까지는 미국산 대두의 수출량에 의존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미국산 재고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중국의 기말재고율이 재고 부족으로 10% 대까지 떨어진 수준이라 당분간 중국의 대두 수입 수요는 견고할 것이며, 이는 곧 대두 가격에 하방경직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6. 대두 비상업거래(투기거래) 현황

단위: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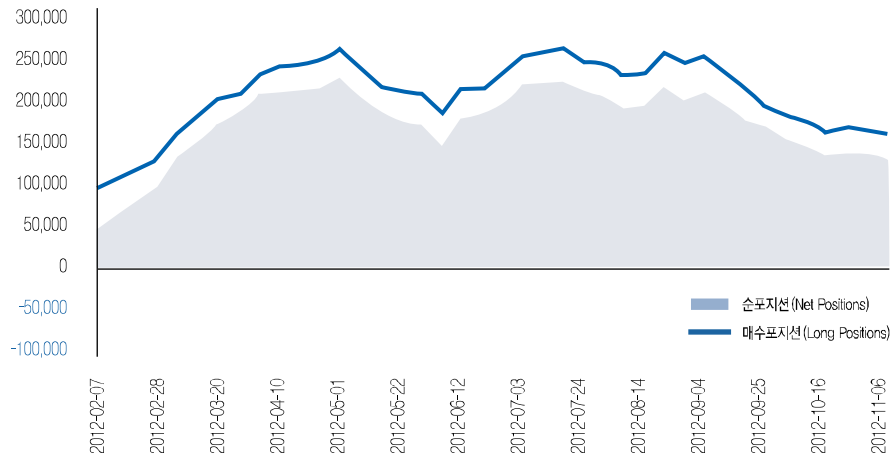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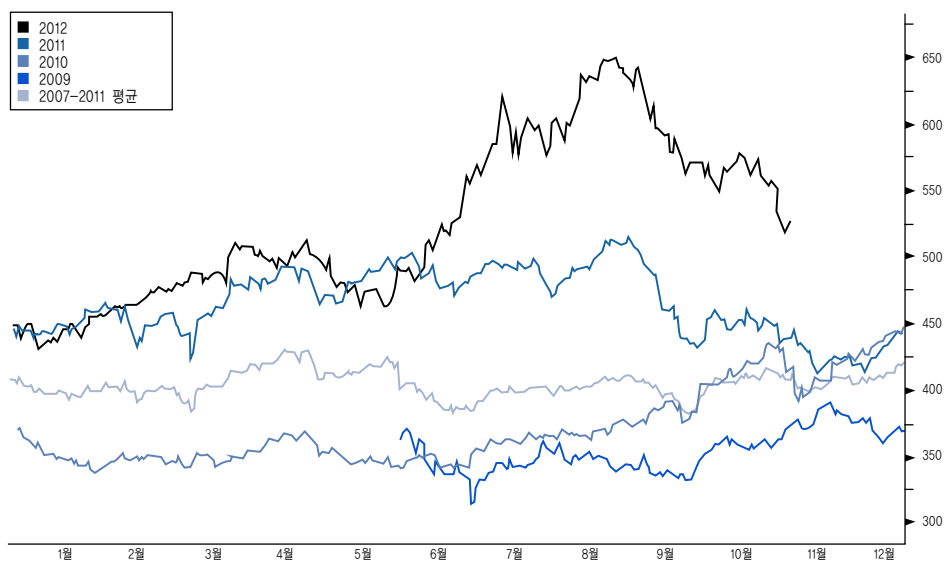


그림 7. 연도별 대두 선물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끌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진한 펀더멘털에 근거한 상품가격 조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선진국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금융 완화 이후 생성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점차 후퇴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그리스를 둘러싼 유로권 재정 위기 우려로 달러 가치가 회복된 것도 상품가격의 약세에 일조할 전망이다. 미국 대선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의회 권력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정절벽 협상 난항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거시 요인의 영향보다는 곡물 가격에 대한 펀더멘털의 영향력이 다소 확대되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 랠리를 이끌만한 재료 부재 속에 완만한 하락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상 여건은 작황 호조 여부의 주요한 결정요소로 남미 국가들의 날씨 및 생산 전망에 따른 민감도 확대가 예상되며, 펀더멘털 강세에 따른 밀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전망된다.

1. 원유시장 동향

최근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둔화 가능성으로 부진한 수요 전망에 반해 공급 물량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으로 하락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IMF의 성장 전망 하향 조정과 함께 주요 해외 기관들의 원유 수요 전망치도 동시에 하향 조정되어 발표되었다. IMF는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3%로 0.2%p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은 3.9%에서 3.6%로 낮췄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를 8,970만 배럴/일로 전망하면서 전월보다 10만 배럴/일 하향 조정하였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 역시 내년 원유 수요 증가분에 대한 전망치를 기존 85만 배럴/일에서 77만 배럴/일로 8만 배럴/일 하향 조정했다.

원유 수요 증가분의 하향 조정은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 원유 수요의 감소 전망에서 비롯되고 있다. 아시아와 중동지역의 원유 수요 증가가 선진국의 수요 감소를 상

* 작성: (주)외환선물 한성민 차장(sun@kebf.com)

쇄하면서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는 전년보다 80만 배럴/일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수요 전망치의 하향 조정에서 나타나듯이 선진국 성장 둔화의 영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증가폭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 유가 하락에도 이례적으로 증산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는 향후 국제 유가 안정세가 장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원유 최대 소비국인 미국은 셰일오일, 오일샌드 등 원유와 천연가스, 셰일가스 등을 시추하는 기술 개발의 영향으로 원유 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에너지부(DOE)는 미국의 내년 원유 생산량이 하루 평균 1,14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내년부터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10월 29일 기준으로 브렌트유는 한 달 동안 2.6% 하락하는데 그쳤다. 어닝 시즌(earning season)을 맞아 부진한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세 둔화 우려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수급 측면에서 유가가 반등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세가 멈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급과 수요의 상반된 흐름이 재고의 증가로 이어지는 수급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원유 재고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다면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유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2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WTI-Brent 가격 스프레드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스페인 구제금융, 미국 재정절벽 등 직면해 있는 거시적 이슈들로 인한 다소간의 혼란이 예상되고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유가가 추세적으로 강한 반등에 나서지는 못할 전망이다.

2. 외환시장 동향

■ 미국 대선 결과 오바마 재임

이번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으로 마무리되면서 재정절벽 협상으로 인한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되어 단기적인 충격을 주었으나 통화정책과 외교정책 측면에서는 기존 정책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한다. 미연방준비은행제도(FED)의 3차 양적완화(QE3) 지속과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북한-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 또한 현 수준에서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공약을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소득층 소비심리의 위축을 통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재정적자 감축을 미국 신용등급 유지의 관건으로 보고 있는 무디스에게는 신용등급 유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따른 국방비 삭감과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의 활성화도 주요 국내 정책 중 하나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동의를 얻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틀은 동맹국과의 협력, 중동·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 및 아시아 중시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대중동 정책은 이란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습은 최후의 방책이므로 이를 허용하기 보다는 좀 더 강력한 경제제재와 외교적인 협상의 병행을 통해 이란 핵 문제를 풀어나갈 전망이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재정지출에는 좀 더 우호적이나 세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나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후 전개될 재정절벽의 조율과정에 대한 경계감을 쉽게 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의회의 구성이 상원 민주당, 하원 공화당으로 기존과 동일한 구도인 만큼 재정절벽의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어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절벽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대안 마련은 대선 이후부터 부시 감세안 종료시점(12/31) 이전까지가 가장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자동재정감축안 시행이 2013년 1월 2일인 만큼 그 이전에 기존 감세안 연장 여부와 재정 지출 축소에 대한 부분적 조율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의회가 원만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최대 4%p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어 재정절벽 현실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와 의회는 재정절벽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정 긴축방안들이 동시에 단행될 경우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 만큼 동시에 단행되기 보다는 일부 조치들의 시한 연장 혹은 연기 등이 예상된다.

■ EU 정상회의 결과 / ECB 금리 결정

10월 EU 정상회의에서 은행연합의 첫 번째 단계인 은행감독기구의 대략적인 설립 일정을 마련하였다. 연말까지 은행감독기구 법률안에 합의하고, 내년 중 이행을 위한

작업에 단계적으로 착수하여, 늦어도 2014년까지는 유로존 내 6,000개 은행 모두를 포괄하는 감독기구가 실제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은행감독기구 설립 시기와 범위를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절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유로존 내 부실은행들을 직접 구제하기 위해서는 역내에 단일 은행감독기구가 설립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은행감독기구 설립에 있어 진전을 보이는 건 ESM이 조속한 시일 내에 기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U의 정치 통합 및 재정 통합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나, 개별국 예산주권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애초부터 로드맵 설정 데드라인인 12월 13-14일 EU 정상회의 이전에 각 당사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점검하기 위한 중간단계 회의로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12월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 번 쟁점이 될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금리결정회의를 통해 정책 금리를 예상과 부합하는 현행 0.75%로 동결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올해 및 내년 유럽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도 안정적이라는 견해를 강조하면서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을 보여줬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현재 2.75%인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대선 이후 주식시장이 급락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금융 시장 상황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3. 주요국 경기 동향

2012년 QE3의 발표 이후, 기대 효과로 상품가격은 경기 가속을 반영하는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실물경기에서 그러한 조짐은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QE2가 발표된 2010년 11월(4분기)에 세계 실질 경제성장률은 평균 +4%였다(다음 분기는 +3.7%). 상품시장에서 중요한 중국 경제는 당시 +9.5%의 속도로 성장했다. 만약 QE3가 성공을 해도 지금부터 연말까지 성장률은 당시보다도 훨씬 낮을 것이다. 세계 선행지표는 최근 1개월 동안 크게 악화되어 제조업의 감속 위험을 시사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조치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실물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투기자금의 유입은 가격 거품을 유발할 수도 있어 보인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을 개정하고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 2013년 전망치를 3.6%로 하향 수정했다. 2012년의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는 1.3%, 2013년은 1.5%로 하향했다. 신흥국 성장률 전망치도 2012년, 2013년 각각 5.3%, 5.6%로 수정되어 2011년의 6.2%에 비해 감속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경기의 회복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이는 글로벌 경기가 3분기에 바닥이라는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을 강하게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추세를 붕괴할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둔화에 제동을 걸고 반등시킬만한 확실한 조짐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G7에서도 유효한 수요와 연계된 추가적인 정책 지원도 당분간 정제될 전망이다.

■ 미국

미국 경제에서 가장 주목할 현안은 재정절벽 협상 여부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양당 간 합의 도출 과정이 예상대로 쉽지 않을 것임이 예고된 가운데 현재로서는 미국 대선 이후 연내에 민주-공화 양당 간 합의 도출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일몰조항 및 신규 법안들이 모두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2013년 미국 GDP를 약 4.0%p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2~3월까지 임시 연장 이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국가신용등급의 추가적인 하향 조정 가능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일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의 도출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수요 회복, 특히 설비 투자와 고용 부문의 모멘텀 개선이 예상된다.

미국은 단기적으로 급격한 재정적 충격을 방지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양당 간 세금 인상, 정부 지출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고 급격한 긴축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 침체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반면, 미국의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의회예산국의 추정에 따르면, 관련 법안들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2013년 GDP 대비 약 4.1% 규모의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는 2011년에 부채한도를 16.4조 달러로 증액한 데 이어 늦어도 2013년 초까지는 부채한도를 추가적으로 증액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공화당 구성원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한도 인상분만큼 정부는 적자 감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미국 고용경기는 민간 고용이 3분기 평균인 14.1만 명 증가에서 개선되며 18.4만 명 증가를 기록,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고용시장이 미국 대선 및 재정절벽에 따른 불확실성보다 유로존 위기 완화 및 미국 주택경기 개선에 따른 미국 경기회복 기대감을 더 크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은 연말 소비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체감지수는 여전히 재정절벽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 회복의 지속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 연준은 10월 22~2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융정책의 현상 유지를 결정했지만, 경기 판단에 대해서는 가계 부문을 상향 수정한 반면 기업 부문은 하향 수정했다. 미국 3분기 GDP도 전체 성장률은 전기대비 +2.0%(연율)로 2분기의 +1.3%에 비해 가속, 2% 중반대인 잠재 성장률에 근접해 나가는 모습이다. 반면, 개인 소비와 설비 투자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 개인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1.4%p, 주택 투자가 +0.3%p였던 반면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였다. 개인 소비와 주택 건설이 견조한 추이를 보인 것은 가계의 대차대조표 조정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 부문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9월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시직 증가가 뚜렷했다.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기업의 이익을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설비 투자와 고용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택시장 지표들이 일제히 예상을 상회하는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거용 고정투자의 GDP 대비 비중이 2012년 평균 약 2.7%인 점을 감안할 때, 2013년 주거용 고정투자 증가율을 2012년과 유사한 10~15%로 가정할 경우, 약 0.3~0.4%p 정도의 GDP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에서 주거용 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 2000~2006년 평균 약 5.5%에서 현재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주택시장 회복으로 가구 및 주택 내구재 소비도 함께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 기여도가 0.13%p를 기록하였으며 여기에 주거용 고정투자를 합할 경우, 주택시장 회복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약 0.5%p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당해 분기 경제성장률의 1/4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회복세 지속 여부는 2013년 미국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유럽

4분기 들어서도 유로권의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 재정 절벽 이상의 재정긴축(유럽판 재정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IMF는 경기를 배려한 재정 재건 속도를 제언했지만 유로권에서는 2013년에도 대폭적인 긴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스페인의 경우 9월 말 발표된 중기 예산계획에 따르면, 2013년 재정적자 목표는 명목 GDP대비 4.5%로 2012년의 6.3%(추정)에 비해 1.8%p 줄어든 것이다. 2014년에는 2.8%로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도 2012년의 재정수지 적자를 명목 GDP 대비 4.5%(정부 추정)에서 2013년에는 3.0%(EU 목표치)로 줄일 예정이다. 10월 EU 정상회의에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논의되고 12월 회의에서 성장전략(GNI의 1%에 해당하는 재원 마련)과 그 로드맵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전략으로 이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로존 위기는 ECB 정책 대응에 힘입어 소강상태를 보이며, 전환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을 넣고 있다. ECB는 무제한 국채매입정책인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공표를 통해 재정위기국 지원을 위한 시장 개입 의지를 확인시켰으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후속기구로 상설화된 유럽안정화기구(ESM)는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도입되어 유로존 방화벽을 강화시켰다. 은행연합 설립을 포함하는 유로존 개혁안 마련도 가속화되고 있다. 단, 이러한 조치들이 활용되기까지는 많은 난제가 있고, 스페인 구제금융 시기는 아직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그리스의 중장기 채무 전망도 밝지 않다. ESM의 가용 규모를 늘릴 경우 이미 전체 자본금 중 27%를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독일의 분담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9월 독일 헌재의 ESM 합헌 판결은 향후 ESM 관련 결정의 정치적 제약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향후 독일의 분담액 확대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 의회 승인의 법률적 장벽이 더 높아진 상태이다.

EFSF 국채 발행 시 나타났던 수요 부족 현상이 ESM 채권 발행 시에도 반복될 수 있으며, ESM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여타 재정취약국 국채 수요에 대한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를 일으켜 재정취약국 국채의 차입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CB의 유럽 재정위기 해결 의지는 유럽 위기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 실제로 ECB가 재정위기국들에 대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주리라는 시장 기대는 유로존 붕괴의 꼬리위험(tail risk)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 2012년 유럽에서 시장 변동성

을 줄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9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발표된 OMT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OMT는 기존에 ECB가 펼쳤던 SMP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SMP와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국채 매입안이다. SMP는 OMT의 공표와 함께 자동적으로 종료되었다.

2013년에는 4월에 이탈리아 총선과 9월에 독일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선거 관련 변수들이 위기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는 이탈리아의 경우는 2013년 총선에서 긴축, 개혁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후보자가 집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유럽 내에서 반 EU 성향을 가진 급진 정당들이 최근 약진하고 있는 것도 유럽 재정위기 향방의 변수가 될 수 있다.

■ 중국

2012년 10월 발표된 중국 주요 경제지표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단기적인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은 해소되었다.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을 제외하면 생산/투자/소비/무역 지표들은 일제히 9월보다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예상을 상회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유럽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을 하회하고 있고, 미국도 재정절벽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대외수요가 현 시점에서 추가로 개선될 여지는 제한적이다. 한편 내수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디다. 중국 경기의 반등이 보다 의미가 있으려면 수입 증가율이 보다 뚜렷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출에 비해 수입 증가율의 회복 속도가 더딘 편이다. 실제로 기업들의 급한 재고 조정 압박은 진정되고 있지만, 원유를 제외한 원자재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고 있다.

중국 경제는 2010년에 +10.4%의 성장률을 실현한 후 2011년에는 +9.3%로 감속하고 2012년 들어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 대책에 의해 조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분기에 +8.1%, 2분기에 +7.6%로 낮은 성장에 그쳤다. 2013년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7.4%로 2012년의 7.6%에서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고정투자 증가율이 추가적으로 둔화될 개연성과 기업실적 악화가 임금 및 소비성장세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 등을 전제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자산버블 붕괴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가며 7%대 성장유지를 우선시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화정책 대응 가능성은 더욱 낮다. 통화당국의 정책 기조는 오히려 ‘중립’쪽으로 선화했다. 중국인민은행의 “3분기 화폐정책 집행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통화환경은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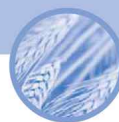
세계 교역량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중국 경기 침체는 세계경제 회복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하반기 성장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는 정권교체기에다 권력 투쟁 양상도 보이고 있어 회복이 늦어지고 있으나, 정권교체 후에는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임금의 두 자릿수 상승, 부동산 버블 우려 등 그동안 고성장을 지속하는데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 정부는 내수 중심의 안정 성장으로의 연착륙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전처럼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part

0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2012 World Grain Market



태국의 쌀 산업 동향 / 53

중국의 쌀 수급 동향과 전망 /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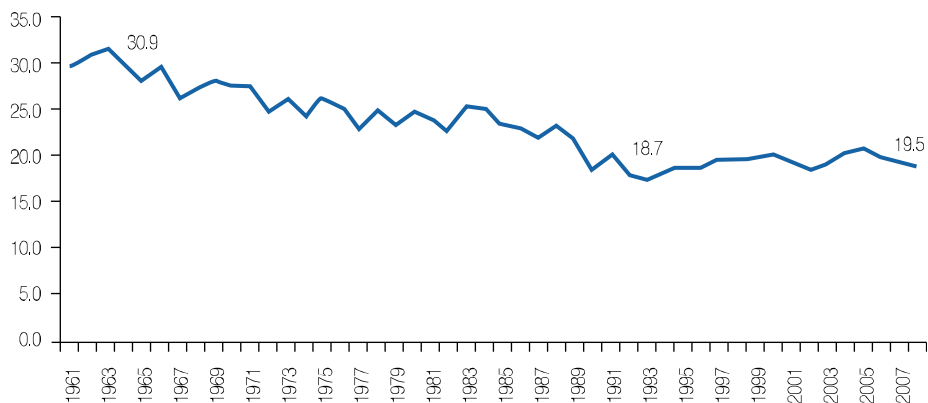
베트남의 쌀 산업 동향 / 82

태국의 쌀 산업 동향

태국의 쌀 산업은 과거 자급자족농업에서 상업농업으로 변모해오면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태국 쌀은 2기작으로 재배되며 2009년 쌀 생산량은 2000년(2,580만 톤) 대비 18% 증가한 3,150만 톤이다. 쌀 수출량은 2009년 약 860만 톤으로 태국 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이다. 향후 태국의 쌀 생산량과 소비량은 느린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태국 쌀이 연작재배가 가능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태국은 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쌀 수출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쌀 보조금정책으로서 농가소득지정정책, 쌀표준규제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태국의 쌀 산업은 과거 자급자족농업에서 상업농업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태국에서 전체 농업생산액 중 쌀(조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1961년 쌀 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 중 30.9%를 차지하였지만 2008년 19%로 감소했다.

그림 1. 태국 농업생산액에서 쌀(조곡)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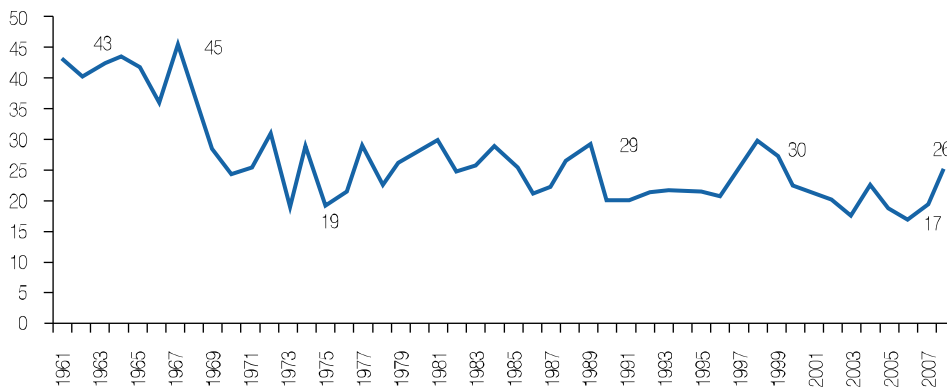


자료: FAO Statistics Division 2011.

* 본 내용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12년 1월 발표한 「The Rice Situation in Thailand」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또한 태국의 전체 수출품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의 쌀 수출 비중은 35% 이상이었으나 1971년에는 30% 미만으로 하락했고, 2008년에는 약 20%가 되었다.

그림 2. 태국 농산물 수출액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FAO Statistics Division 2011.

따라서 태국의 전체 산업 중 쌀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는 ①태국 쌀 산업의 전망은 어떠한가, ②태국 쌀 산업의 진흥을 위해 쌀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③이와 같은 쌀 산업 전망 및 정책 변화는 국내 및 세계 식량안보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이다.

1. 쌀 생산 동향

태국은 온대에 위치하고 있어 장립종(인디카) 쌀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며,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단립종(자포니카)을 재배한다. 태국에는 기본적으로 향미, 비(非)향미, 찰쌀 세 종류의 쌀이 있다.

태국의 쌀 단수는 세계의 주요 쌀 생산국 10개국 중 최저 수준이고 심지어는 세계 평균 단수보다도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약 30년 이상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이는 세계 주요 쌀 생산국 10개국의 쌀 품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일부 국가들은 다수확 신규 품종을, 다른 국가들은 저수확 현지 품종을 재배한다. 태국은 상대적으로 고품질 쌀인 자스민쌀을 재배하는데, 자스민쌀은 단수가 낮은

향미쌀 품종이다. 또한 태국은 향미쌀이 아닌 일반 하이브리드도 대규모 재배한다. 태국의 전국 평균 단수는 낮은 수준이지만 총 생산량은 국내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어서 수출가능물량이 매년 600만~900만 톤이 된다. 10년 동안 태국의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쌀 생산량은 2000년(2,580만 톤)에 비해 18%나 증가한 3,150만 톤이다. 태국 쌀 수확면적은 10년 동안 7% 증가했다.

표 1. 쌀(조곡) 수확면적, 생산량, 단수, 가격

	수확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단수 (톤/ha)	가격 (달러/톤)
2000	9,891	25,844	2.6	108
2001	10,125	28,034	2.8	109
2002	9,654	27,992	2.9	118
2003	10,164	29,474	2.9	134
2004	9,993	28,538	2.9	165
2005	10,225	30,292	3.0	172
2006	10,165	29,642	2.9	180
2007	10,669	32,099	3.0	327
2008	10,669	31,651	3.0	291
2009	10,684	31,508	2.9	317
2000-2009 평균	10,224	29,507	2.9	192

자료: 농업경제국(OAE), 2010

태국에서 쌀은 2기작으로 재배된다. 1기작이 생산의 주를 이루며, 대부분 지역에서 5월~10월 동안 재배되고 남부의 6개 주에서만 6월 중순~다음 해 2월에 재배된다. 2기작은 건기동안 관개용수를 이용해 재배되는 것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11월~다음 해 4월에 재배되고 남부에서만 3월~6월 중순에 재배된다. 1기작 쌀의 재배면적은 약 900만 ha이며 1기작 쌀 생산량은 2,220만 톤(조곡) 이상이다. 1기작 쌀의 평균 단수는 2,569kg/ha이다. 태국의 쌀 주산지는 북동지역으로 재배면적이 전국의 57%로 가장 넓고, 북부지역은 22%, 중부지역은 17%, 남부지역은 4%를 차지한다. 2기작 쌀은 대부분 관개시설이 정비된 중부 평원에서 재배된다.

표 2. 쌀 수확면적

단위: %, ha

지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기작										
북부지역	21.4	22.4	21.3	21.9	22.4	22.1	22.0	22.2	22.1	21.9
북동부지역	56.5	56.3	56.9	56.5	56.6	56.8	57.4	57.0	57.2	57.6
중부평원지역	17.5	17.5	17.7	17.9	17.2	17.4	16.8	17.3	17.4	17.3
남부지역	4.5	3.9	4.1	3.7	3.8	3.7	3.7	3.5	3.3	3.2
전체	8,755	8,789	8,136	8,675	8,596	8,645	8,560	8,623	8,702	8,760
2기작										
북부지역	37.3	34.3	34.0	29.4	32.4	32.9	33.5	34.4	35.0	35.3
북동부지역	51.7	53.2	57.7	58.8	56.4	56.9	57.9	54.6	52.6	49.9
중부평원지역	3.1	2.6	1.3	1.7	2.6	2.1	2.0	2.1	2.6	3.1
남부지역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1,215	1,391	1,404	1,390	1,489	1,397	1,580	1,605	2,046	1,982

자료: 농업경제국(OAE), 2010

표 3. 쌀 생산량

단위: %, ha

지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기작										
북부지역	4.96	5.76	4.87	6.57	6.46	6.72	6.46	6.61	6.60	6.50
북동부지역	8.54	9.47	9.09	10.19	10.01	10.44	10.29	10.38	10.30	10.38
중부평원	4.67	4.92	4.91	5.54	5.39	5.60	5.29	5.52	5.59	5.63
남부지역	0.85	0.75	0.76	0.83	0.79	0.78	0.80	0.81	0.75	0.75
전체	19.02	20.89	19.63	23.14	22.65	23.54	22.84	23.31	23.24	23.25
2기작										
북부지역	0.30	0.45	0.29	0.45	0.40	0.36	0.32	0.48	0.69	0.84
북동부지역	1.85	2.20	1.73	2.25	2.04	1.96	2.27	2.31	3.06	2.90
중부평원	2.89	3.30	3.55	3.66	3.78	3.49	4.07	3.91	4.88	4.48
남부지역	0.11	0.10	0.06	0.07	0.11	0.08	0.09	0.10	0.17	0.20
전체	5.16	6.06	5.62	6.43	6.33	5.89	6.75	6.80	8.79	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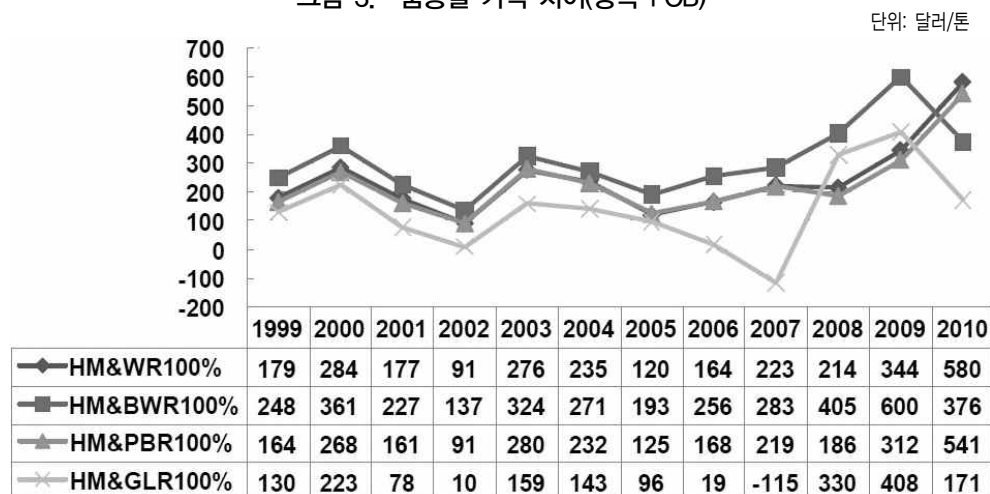
자료: 농업경제국(OAE), 2010

2. 쌀 수출 동향

태국의 쌀 수출시장은 판매대상이나 종류 면에서 고도로 세분화되어있다. 수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부가가치 가공쌀이다. 2010년 기준 태국에서 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 미국, 코트디부아르, 사우디아라비아이다. 2009년 농업경제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쌀 수출량은 860만 톤이고 이 중 자스민 쌀의 비중은 31%, 파보일미의 비중은 31%, 백미의 비중은 27%, 찰쌀의 비중은 6%이다.

태국의 백미는 품질별로 8등급으로 분류된다. 우선 도정율에 따라 백미가 분류되고 쉼이 여러 등급으로 분류된다. 2009년 전체 백미 수출량 230만 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도정율 5% 백미로 26%를 차지한다. 백미 쉼 A super등급은 수출 비중이 21%, 25% 백미는 수출비중이 21%, 백미 100%는 수출비중이 17%이다. <그림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미의 등급 및 품질별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림 3. 품종별 가격 차이(방콕 FOB)



주: HM(hom mali): 자스민쌀, WR: 백미 100%, KWR: 백미 쉼 100%, PBR: 파보일미 100%, GLR: 찰쌀 100%
 자료: 태국 쌀 수출업협회, 2011

표 4. 국가별 태국 쌀 수출 비중

국가	비중(%)		
	2008	2009	2010
1. 나이지리아	10.21	11.43	11.88
2. 미국	5.29	7.53	8.24
3. 코트디부아르	4.09	6.02	6.21
4. 남아프리카 공화국	5.44	8.18	5.72
5. 중국	2.63	4.13	4.09
6. 홍콩	3.58	4.54	4.03
7. 일본	1.44	2.65	2.9
8. 싱가포르	2.97	2.92	2.72
9. 인도네시아	0.86	1.49	2.68
10. 말레이시아	5.96	2.31	2.32
11. 카메룬	1.06	1.65	1.95
12. 호주	1.59	2.04	1.92
13. 가나	2.06	2.1	1.8
14. 프랑스	1.06	1.34	1.2
15. 시리아	0.44	0.12	1.17
16. 아랍에미리트(UAE)	1.53	1.24	1.12
17. 방글라데시	0.09	0	1.07
18. 콩고	0.22	0.5	0.82
19. 이란	1.31	0.31	0.67
20. 가봉	0.54	0.59	0.59
21. 기타	47.63	38.92	36.88
전체	100.00	100.00	100.00

자료: 태국 상업부, 2010

표 5. 주요 품종의 쌀 수출량 및 수출액

단위: 톤,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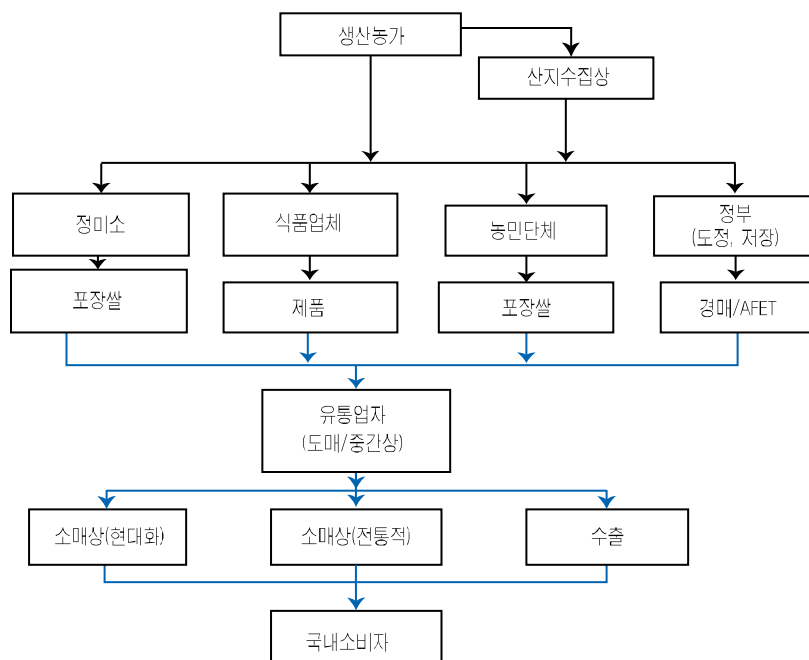
	2008		2009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전체 쌀 수출량	10,216,128	6,100,239	8,619,871	5,022,714
비중(%)				
백미	41.18	35.3	26.86	20.25
자스민쌀	24.63	29.66	30.52	39.82
빠툼다니 향미	2.52	2.76	2.49	3.08
참쌀	2.92	2.46	6.12	4.4
현미	2.03	1.92	2.3	2.15
파보일미	26.65	27.83	31.55	30.2
파보일미(쇄립)	0.028	0.02	0.143	0.078
기타	0.05	0.05	0	0.01

자료: 농업경제국(OAE), 2010

3. 쌀 유통체계

태국에서 국내산 및 수입산 쌀은 다양한 중개행위자의 개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유통 경로가 길다. 통상적인 유통 경로는 트럭을 소유한 산지 수집상들이 생산농가들의 벼를 수집하여 농가에서 정미소까지 운송하는 것이다. 일부 생산농가들은 구매자를 통하지 않고 정미소에 직접 벼를 판매하기도 하며, 태국 농업협동조합은행(BAAC)을 통한 정부의 쌀 구매에 응할 수도 있다. 2008년에는 전체 벼(조곡) 생산량의 45%가 산지수집상/중간상에게, 33%가 정미소에, 22%가 쌀 구매를 통해 정부에 판매되었다. 가공된 쌀과 쌀 생산품은 유통업체(도매상/중간상)에게 판매되고, 이들은 소매상(전통적 소매상 및 현대화된 소매상)이나 수출업자에게 판매된다. 매년 각 유통경로로 유통되는 쌀의 비율은 변화하는데, 특히 구매 비율의 변화가 크다. 2007~2008년 태국 쌀의 55%가 국내시장에 판매되었고, 나머지가 수출되었다.

그림 4. 태국의 쌀 유통 경로



자료: 태국 개발연구소재단(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Foundation), 2009

태국의 쌀 유통경로에서 직거래 증가로 중간상의 역할은 감소 추세이지만, 중간상은 쌀 품질검사 및 운송과 대금 지불(일반적으로 도매상은 1~3달 후 지불)에 개입함으로써 여전히 정미소와 도매상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간상의 서비스비용은 전체 거래대금의 약 0.75%이다. 도매상은 국내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도매상은 쌀을 0.5kg부터 10kg에 이르는 다양한 중량으로 소포장하고 자신의 브랜드를 부착하여 소매상에 유통한다. 한편 전통적인 소매상들은 도매상이나 정미소에 가서 101.5kg 중량의 쌀을 받아와서 15kg 중량으로 재포장한다. 이런 방식의 소매 판매는 태국에서 50년 이상 지속된 상거래 전통이다. 2010년 국내 쌀 시장에서 현대화된 소매상이 판매하는 포장쌀은 전체 공급량의 약 10%였다. 태국의 쌀 도매업자는 수출업을 겸할 수 있지만, 쌀 도매업은 수출업과 차이가 있다. 수출업자들은 쌀을 해외 쌀 브로커나 민간 수입업자, 수입국 정부, 태국 정부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한다. 태국쌀수출업협회에 등록된 수출회사는 198개로, 이들 역시 태국 쌀을 수출할 수 있다. 2006년도 기준 10위까지의 태국 쌀 수출업자들이 수출한 물량은 67%였으며, 5위까지의 쌀 수출업자들이 수출한 물량은 52%였다.

쌀 생산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쌀 생산농가들의 수익성은 상승추세이다. 태국 쌀 생산농가의 수익률은 SupanBuree 품종의 연평균가격을 대표 백미가격으로 설정하여 <표 7>에서 도출되었다. 2000~2009년 동안 1기작 쌀의 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2000년에는 -20.84달러/톤의 손실을 보았으나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는 63.81달러/톤의 수익으로 수익률이 급등했다. 같은 기간 동안 2기작 쌀의 수익률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2기작 쌀의 수익률은 2007년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1기작 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농업경제국(Office of Agricultural Economics)의 쌀 생산비용 자료에는 가족노동의 기회비용과 감가상각과 같이 현금화되지 않은 기타 비용도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쌀 생산농가의 손실로 표기된 자료는 실제 그 만큼의 금액의 손실이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쌀의 판매시기 및 쌀의 수분 함유 수준 역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쌀 생산농가의 수익률 상승세의 주요 원인은 정부가 쌀 수매, 소득 보전, 가격보험 프로그램(2009년 이전)을 통해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쌀 산업의 수익률이 급증한 것은 태국 정부가 쌀(조곡) 수매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했기 때문이며, 쌀 수매가격은 매년 상승해 왔다.

표 6. 백미의 평균 수익률(2000~2009)

단위: 달러/톤

연도	1기작 쌀(달러/톤)			2기작 쌀(달러/톤)		
	가격(1)	비용	수익	가격(2)	비용	수익
2000	101.56	122.41	(20.84)	82.72	84.50	(1.78)
2001	96.78	98.79	(2.01)	80.11	73.25	6.86
2002	106.35	107.58	(1.22)	89.30	79.63	9.66
2003	112.69	110.56	2.13	96.78	86.32	10.46
2004	135.73	120.22	15.51	117.69	89.71	27.99
2005	164.93	139.30	25.64	152.10	109.16	42.94
2006	177.41	155.88	21.52	155.70	127.01	28.68
2007	186.69	173.40	13.29	159.41	146.99	12.42
2008	329.75	265.94	63.81	284.30	200.99	83.31
2009	284.07	246.38	37.69	237.95	193.66	44.29

주: (1) 1기작 가격은 SupanBuree품종(조곡), 14~5% 수분 함유

(2) 2기작 가격은 SupanBuree품종(조곡), 24~25% 수분 함유

자료: 농업경제국(Office of Agricultural Economics), 2010

4. 쌀 가격 동향

태국의 농판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은 유사한 가격 동향을 보여 왔다. 농판가격과 도매가격의 차이가 1998~2001년 사이 좁혀지기는 했으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는 소폭 더 커졌다. 이러한 가격 동향은 2001~2007년에도 지속되었다. 2007~2008년 동안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유통단계별 가격 차이가 커졌다. 쌀 수급 위기가 있었던 2008년 농판가격과 도매가격 사이의 가격 차이는 톤당 78달러에서 141달러, 그리고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가격 차이는 톤당 68달러에서 169달러까지 벌어졌다. 애그플레이션 이후 농판가격과 도매가격의 차이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톤당 79달러와 54달러로 감소했다. 그러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는 오히려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톤당 245달러와 357달러로 더 커졌다. 한편 2001~2005년 농판가격과 도매가격의 차이는 톤당 57달러였고,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는 톤당 68달러였다. 이 기간 동안 태국 바트화는 약 4%로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환율은 이와 같은 차이를 유발한 요인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가격 동향은 정부의 유통정책 변화 및 가격 개입으로 인한 것이다.

1998~2001년 가격 동향은 일시적으로 수확기 동안 농가의 조곡 판매를 중단시켰던 쌀 수매제도와 연관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쌀 수매제도는 기존의 수요 및 공급에 상응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쌀 수매제도는 쌀 가격을 지지하기 보다는 공급시기를 늦추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2001년부터 쌀 수매가격은 쌀 지지가격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설정되었다. 게다가 쌀 수매가격은 생산농가를 지원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

표 7. 도정을 5% 백미의 농판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및 도·소매 수익(정곡 기준)

단위: 달러/톤

연도	농판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도매수익	소매수익
2000	171	251	333	47	33
2001	147	209	288	42	38
2002	165	219	285	32	31
2003	179	240	309	34	29
2004	205	258	353	26	37
2005	250	301	358	21	19
2006	266	332	380	25	14
2007	287	365	433	27	19
2008	485	626	795	29	27
2009	426	504	749	18	49
2010	394	448	805	14	80
2001~2005 평균	198	255	323	31	28
2006~2010 평균	372	455	633	23	38

주: 조곡의 정곡 변환비율은 0.66임.

자료: 농판가격(농업경제국), 도·소매가격(태국 상업부)

도정을 5% 백미의 도매 수익률은 1997년의 45%에서 2001년의 14%로 감소추세이다. 반면 소매 수익률은 변동하는 구간도 있지만, 1997년의 13%에서 2001년의 37%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매 수익률은 2006년에는 14%로 감소했다가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80%까지 증가했다. 도매 수익률의 감소는 경쟁 심화 및 기업 합병으로 인한 것이었다. 한편 쌀 포장단계의 변화 및 소매유통의 현대화는 소매단계의 유통비용을 증가시켰다.

태국의 국내 쌀 가격은 세계 쌀 가격 동향에 큰 영향을 받았다. 백미 FOB 100%, 15%, 10%, 5%의 가격 동향은 모두 동일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2001~2007년 상승하다가 2008년에 급등했으나 2009~2010년에는 급격히 하락했다. 백미 100%와 백미 15%의 가격 차이는 가격 상승 기간보다는 가격 하락 기간(1999~2001, 2009~2010)

동안 더 컸다. 이는 백미의 여러 등급, 특히 백미 100%와 백미 5%가 상호 밀접한 대체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스민쌀의 FOB가격은 1990~2001년 동안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상승추세가 2010년까지 지속되었고 2008년에는 급등했다. 이는 백미시장에서 특히 애그플레이션이 있던 2008년 이후 자스민쌀의 지위가 다른 쌀과 다름을 나타낸다. 자스민쌀과 백미 100%, 그리고 자스민쌀과 파보일미 100%의 가격 차이는 거의 유사하다. 자스민쌀과 채립의 가격 차이는 톤당 316달러로 가장 크며, 자스민쌀과 참쌀의 가격 차이는 톤당 147달러로 가장 작다. 가격이 유사하고 가격 변동 추세가 같다는 것은 소비용도가 같고 대체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가격차이가 크다는 것은 시장이 분리되었고 두 종류의 쌀이 소비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쌀 등급별 수출가격(방콕 FOB)

단위: 달러/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스민쌀 2등급	561	368	316	480	478	410	475	556	920	908	1105
백미 100%	227	188	201	204	243	294	314	336	698	584	483
백미 5%	212	175	193	198	239	288	307	327	683	554	465
백미 10%	207	171	190	194	236	286	305	324	680	551	439
백미 15%	193	163	184	192	232	274	291	317	647	511	419
파보일미 100%	243	204	201	200	246	289	310	340	727	617	523
참쌀 100%	288	286	283	320	335	318	459	673	582	520	892

자료: 태국 쌀 수출업협회, 2011

5. 쌀 수급 전망

태국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쌀 생산량은 단수의 증가로 인해 이전에 비해서는 낮은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출가능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고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의 전체 쌀 공급량은 2011년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2,619만 톤이 되었다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3,08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정책 및 다른 변수가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때(강수량, 비료가격, 심각한 병충해가 없을 것 등)의 전망치이다.

식용 쌀 소비량은 2010년의 706만 톤에서 2015년의 729만 톤으로 느린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태국의 인구 성장률이 낮은 수준(0.7%)이고 1인당 소득이 증가세이기 때문이다. 연평균 쌀 생산량이 2,200만~2,400만 톤이고 국내 식용 쌀 소비량이 최대 900만 톤이며, 기타 소비량은 최대 300만 톤이므로 2015년까지 태국은 쌀이 초과 공급될 것이다. 따라서 태국은 식량안보의 문제는 예상되지 않는다. 태국 쌀 산업의 당면과제는 잉여 물량을 수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최근 태국 쌀 생산량의 증가는 연작재배로 인한 것이다. 중부지역에서 관개시설이 잘 된 곳에서는 2년 동안 쌀을 다섯 번 연작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요소는 정부의 쌀산업 지지정책이다. 태국의 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태국의 쌀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 같지는 않으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태국 쌀 수급 현황 및 2011~2015년 전망치

단위: 천 톤

	공급				수요							
	조곡 생산량	정곡 생산량	이월 재고량	천체	수출량	식용	종자용	사료용	가공용	기타	기말 재고량	천체
2000	24,737	16,326	1,553	17,879	7,318	6,506	760	1,117	198	31	397	16,326
2001	25,375	16,747	397	17,144	7,328	6,562	760	1,145	203	32	717	16,747
2002	27,826	18,365	717	19,082	7,527	6,632	775	1,256	223	35	1,917	18,365
2003	32,312	21,326	1,917	23,243	8,087	6,696	805	1,458	258	41	3,981	21,326
2004	30,733	20,284	3,981	24,264	7,612	6,625	798	1,387	246	39	3,577	20,284
2005	29,772	19,650	3,577	23,227	8,093	6,706	795	1,344	238	38	2,436	19,650
2006	28,098	18,545	2,436	20,981	9,196	6,817	789	1,268	225	35	215	18,545
2007	32,822	21,662	215	21,877	8,996	6,926	822	1,481	263	41	3,133	21,662
2008	36,637	24,180	3,133	27,313	8,926	6,922	831	1,654	293	46	5,509	24,180
2009	37,826	24,965	5,509	30,474	9,479	6,921	836	1,707	303	48	5,671	24,965
2010	34,113	22,515	5,671	28,185	9,797	7,064	827	1,540	273	43	2,970	22,515
2011	35,190	23,225	2,970	26,196	9,928	7,102	828	1,588	281	44	3,453	23,225
2012	36,261	23,932	3,453	27,385	10,062	7,143	829	1,637	290	46	3,925	23,932
2013	37,329	24,637	3,925	28,562	10,201	7,188	830	1,685	299	47	4,388	24,637
2014	38,394	25,340	4,388	29,728	10,343	7,236	831	1,733	307	48	4,842	25,340
2015	39,459	26,043	4,842	30,885	10,490	7,287	832	1,781	316	50	5,288	26,043

자료: ADB, 「The Rice Situation in Thailand」, 2012

6. 쌀 정책

■ 수출정책

태국 정부는 민간 쌀 수출업자들과는 별개로 태국 상무부(MOC) 산하의 무역부를 통해 정부 간 쌀 무역을 하고 있다. 정부 간 쌀 무역은 입찰을 통해 민간 쌀 수출업자들에게 하도계약을 준다. 정부 간 쌀 무역은 태국 쌀 수출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태국 쌀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쌀 수출량에 전혀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국내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과도한 수출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쌀 수출량을 제한했었다. 따라서 수출허가제(쌀 무역법), 할당량제도, 수출세, 쌀 프리미엄제도, 상비쌀제도 등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이러한 제도는 쌀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쌀 가격이 세계 쌀 가격보다 낮게 유지된다.

■ 표준인증제도

쌀 및 식량의 표준에 대한 인증정책은 2003년부터 시행되었다. 표준 인증에는 제품에 대한 인증과 제조과정에 대한 인증 2가지 종류가 있다. 제품 인증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것이다.

■ 보조금정책

태국 쌀 수매제도는 국내 및 세계 쌀 가격을 상승시켰으며, 재정 적자, 정부의 과도한 재고 보유 문제, 정책의 수혜가 정미업계에 집중된다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쌀 산업에 대한 다른 보조 프로그램으로는 농가소득지지정책과 쌀표준규제정책이 있다. 2009년 말에 시작된 농가소득지지정책은 가격보험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며 1985년부터 쌀 생산농가들의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던 조곡에 대한 쌀 수매제도(pledging program)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쌀 수매가격은 원래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나 생산농가들이 영농 비용 및 농가 부채를 신속히 정산하도록 돕기 위해 가격 수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쌀 수매제도는 국내 조곡 가격에 영향을 미쳐 시장 왜곡을 유발했다. 이 제도는 생산농가, 정미업계, 그리고 정부 입찰에서 낮은 가격에 쌀

을 구할 수 있는 쌀 수출업자들에게만 수혜를 집중시켰다. 한편 수매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태국 쌀 수출업자들은 세계 쌀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정부는 쌀 수매제도에서 가격보험프로그램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며, 이 역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동반했다. 가격보험프로그램은 국내 쌀 가격 및 세계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가격보험프로그램에서 정부는 생산농가에게 농산물별 지지가격을 정해준다. 2009/10 양곡연도에 자스민 쌀 지지가격은 510달러/톤(15,300바트/톤), 일반 조곡은 333.33달러/톤(10,000바트/톤)이었다.

쌀 수매제도의 장점은 생산농가가 작목을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고 생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한편 가격보험프로그램의 장점은 정책 대상에 대한 보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격보험프로그램의 수혜 농가는 320만 명으로 쌀 수매제도의 수혜농가인 약 100만 명에 비해 많다. 가격보험프로그램은 또한 ① 절차가 덜 복잡하여 쌀의 보관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고, ② 유통구조가 왜곡되지 않으며, ③ 생산농가가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고, ④ 수출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농산물가격만 보조하므로 가격지지체계가 WTO 규정에 합치한다. 쌀 수출량과 가격은 정부의 개입가격이 좌우할 것이나 가격보험프로그램은 더 많은 쌀을 더 저렴한 가격에 수출할 수 있게 한다.

■ 2008년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 정책

태국 국내 쌀시장은 2008년 애그플레이션 당시 극도로 가격변동성이 컸다. 100% 백미의 도매가격과 수출가격(방콕 FOB)은 각각 100%와 90% 상승했으며, 소매가격은 105%나 상승했다. 이처럼 쌀 가격이 높았던 기간 동안 태국 정부는 쌀 비축량을 활용하여 시장에 개입했고 이는 소매가격을 억제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태국에서 통상적으로 쌀은 8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재배된다. 따라서 단경기인 2월~4월에 쌀 가격이 상승하며 이 시기에 쌀을 판매할 수 있는 생산농가는 일부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도매가격은 변동하나 소매가격은 변동이 없다. 그러나 가격변동성이 커지면 소매가격과 도매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오르고 내린다. 태국에서 쌀을 자가 소비하는 농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농가들은 소매가격으로 쌀을 구매한다. 따라서 애그플레이션 당시 쌀 가격 상승은 특히 농촌의 영세한 농가에게 큰 피해를 미쳤다. 2008년 다른 공급체인도 어려움을 겪었다. 선도계약조건에 맞춰 쌀을 인도할 수 없었던 정미소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2008년 당시 상업은행이 정미소

를 매입하기도 했다. 애그플레이션 이후 태국 정부는 쌀가격 파동의 재발 방지, 애그플레이션 재발시 가격파급효과를 완충할 방법, 식량위기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적 협력방안 등 여러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태국은 이러한 과제 해결의 일환으로 2010년 4월 선물거래를 도입했다. 태국 농업 선물거래소(AFET)에서는 백미 5%(WRF5)를 수출가격(FOB) 기준으로 거래한다. WRF5는 거래단위가 50톤 이상이며 인도조건은 FOB이다. 태국에서 쌀 선물시장이 아시아 다른 국가의 쌀 선물시장만큼 성공적이 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 현재 태국의 쌀 선물거래소 가격은 정부의 가격 개입으로 인해 본격적인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태국 쌀 선물거래소가 아시아지역의 손꼽히는 선물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쌀 수급 동향과 전망

중국은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중국의 쌀 생산량은 1997년 2억 70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1억 9,576만 톤을 생산하였다. 중국의 쌀 소비는 식용 소비가 전체 소비량의 약 80%를 차지하며 전체 소비량은 1.8~1.9억 톤, 식용 소비량은 1.5~1.6억 톤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여 동물성 식품과 부식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쌀 수출량은 1998년 375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약 52만 톤의 쌀을 수출하였다. 2012/13년도 중국의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0.5% 증가한 2억 130만 톤, 소비량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1억 9,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 쌀(조곡) 생산 동향

중국은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으로서, 쌀은 중국인의 주식이자 식량작물 중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곡물이다. 중국의 쌀 생산량은 1991년 1억 8,381만 톤에서 1997년 2억 70만 톤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쌀 생산량은 7년 연속 감소하여 2003년 1억 6,066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1982년 이후 22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의 쌀 생산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재배면적 감소에 있다. 1991년 이후 쌀 재배면적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03년 역대 최저치인 2,651만 ha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997년 대비 16.5% 감소한 수준이다. 2004년 중국은 농업세 폐지 이후 최저수매가, 식량 직접 보조, 농자재 종합 보조, 우량종 보조, 농기계 구입 보조 등을 포함한 농업지원정책 및 부농정책을 실시하여 2004년부터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회복세를 보이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중국은 1억 7,909만 톤의 쌀을 생산하여 2001년의 생산

*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나경 연구원(naijong@krei.re.kr)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0년 1억 9,576만 톤까지 증산하였지만 이는 1997년의 생산량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4년 쌀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약 187만 ha 증가한 2,838만 ha로 2002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010년 2,987만 ha까지 증가하였다.

표 1. 중국의 쌀 생산량, 재배면적, 단위 추이

	재배면적(만 ha)	생산량(만 톤)	단수(톤/ha)
1978	3,442.1	13,693.0	3.98
1980	3,387.8	13,990.5	4.13
1985	3,207.0	16,856.9	5.26
1990	3,306.4	18,933.1	5.73
1991	3,259.0	18,381.3	5.64
1992	3,209.0	18,622.2	5.80
1993	3,035.5	17,751.4	5.85
1994	3,017.1	17,593.3	5.83
1995	3,074.4	18,522.6	6.02
1996	3,140.6	19,510.3	6.21
1997	3,176.5	20,073.5	6.32
1998	3,121.4	19,871.3	6.37
1999	3,128.3	19,848.7	6.34
2000	2,996.2	18,790.8	6.27
2001	2,881.2	17,758.0	6.16
2002	2,820.2	17,453.9	6.19
2003	2,650.8	16,065.6	6.06
2004	2,837.9	17,908.8	6.31
2005	2,884.7	18,058.8	6.26
2006	2,893.8	18,171.8	6.28
2007	2,891.9	18,603.4	6.43
2008	2,924.1	19,189.6	6.56
2009	2,962.7	19,510.3	6.59
2010	2,987.3	19,576.1	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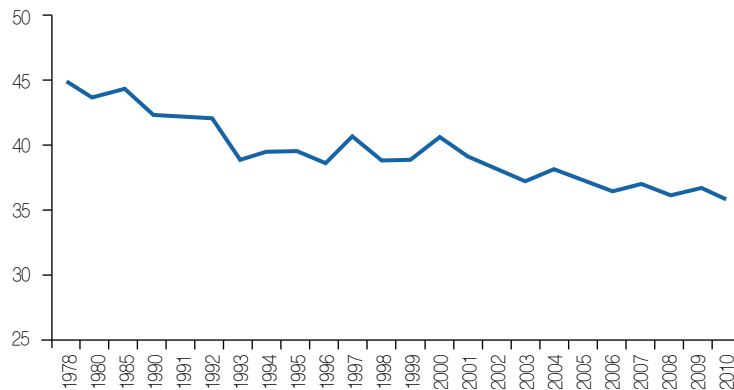
자료: 중국통계연감(2011).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쌀 단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1998년 6.37톤/ha를 기록하였다. 1998년 이후 잠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7년 6.43톤/ha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쌀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단수는 1991년 5.64톤/ha에서 2003년 6.06톤/ha으로 6.9% 증가하였다. 2009년 쌀

단수는 6.59톤/ha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 쌀 단수는 전년대비 0.5% 감소한 6.55톤/ha이다.

최근 몇 년간 쌀이 중국의 식량작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992년 이전 쌀이 식량작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1993년 이후 그 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6.8%, 35.8%를 차지하여 2010년 역대 최저 비중을 기록하였다.

그림 1. 식량작물 생산량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중국통계연감(2011).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주요 쌀 생산지역은 흑룡강성, 강서성, 안휘성, 호북성, 호남성, 광둥성, 광서성, 사천성이며, 이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호남성과 흑룡강성이다. 2010년 호남성과 흑룡강성의 쌀 생산량은 각각 2,506만 톤, 1,844만 톤이며 전체 생산량(1억 9,576만 톤)의 약 12.8%, 9.4%를 차지한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2010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쌀의 생산량은 각각 3,137만 톤, 1억 2,915만 톤, 3,528만 톤으로 중생종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며, 전체 쌀 생산량 중 각각 16.0%, 66.0%, 18.0%를 차지한다. 주요 조생종 쌀 생산지역은 절강성, 안휘성, 복건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광둥성, 광서성이며, 이 중 조생종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호남성과 강서성이다. 2010년 호남성과 강서성의 조생종 쌀 생산량은 각각 765만 톤, 706만 톤으로 전체 조생종 쌀 생산량(3,134만 톤)의 24.4%, 22.5%를 차지한다. 주요 중생종 쌀 생산지역은 흑룡강성, 강소성, 안휘성, 호북성, 사천성이며, 이 중 중생종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흑룡강성과 강소성이다. 2010년 흑룡강성과 강소성의 중생종 쌀 생산량은 각각 1,844만 톤, 1,807만 톤으로 전체 중생종 쌀 생산량(1억 2,915만 톤)의 14.3%, 14.0%를 차지한다. 주요 만생종 쌀 생산지역은 절강

성, 안휘성, 복건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광둥성, 광서성이며, 이 중 만생종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서성과 호남성이다. 2010년 강서성과 호남성의 만생종 쌀 생산량은 각각 894만 톤, 890만 톤으로 전체 만생종 쌀 생산량(3,528만 톤)의 25.3%, 25.2%를 차지한다.

표 2. 2010년 지역별·품종별 쌀 생산량

지역	조생종 쌀	중생종 쌀	만생종 쌀	총 생산량(만 톤)	비중(%)
흑룡강성	-	1,843.9	-	1,843.9	9.4
강소성	-	1,807.1	-	1,807.9	9.2
절강성	63.4	-	98.6	648.2	3.3
안휘성	140.3	1,105.2	137.9	1,383.4	7.1
복건성	120.3	-	108.8	507.9	2.6
강서성	705.5	-	893.8	1,858.3	9.5
호북성	199.6	1,102.8	255.4	1,557.8	8.0
호남성	764.5	-	890.0	2,506.0	12.8
광둥성	511.1	-	549.5	1,060.6	5.4
광서성	531.5	-	509.4	1,121.3	5.7
사천성	-	1,511.0	-	1,512.1	7.7
기타	97.4	5,544.8	84.2	3,768.7	25.2
전체	3,133.6	12,914.8	3,527.7	19,576.1	100.0

주: 품종별 쌀 생산량은 주요 생산지역만 생산량을 표시하고 그 외 지역은 기타에 포함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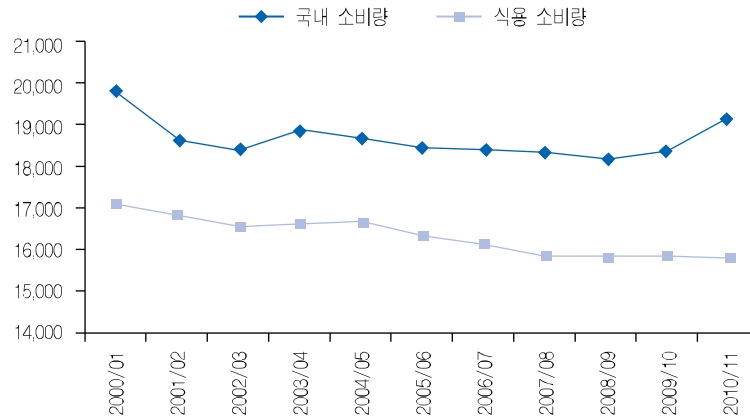
자료: 중국통계연감(2011), 國家糧食油用信穀息物中心, 「食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 第154期(2012년11월14일)

2. 쌀 소비 동향

중국은 국내 쌀 소비량이 세계 총소비량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쌀 소비국으로서 인구의 약 65% 이상이 쌀을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의 쌀 소비는 식용 소비가 주를 이루며 전체 소비량의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의 쌀(조곡) 총 소비량과 식용 소비량의 연간 변동폭은 크지 않은 편으로 전체 소비량은 기본적으로 1.8억~1.9억 톤 수준, 식용 소비량은 1.5~1.6억 톤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 수급전망기관인 BRIC에 따르면, 2010/11년도 중국의 쌀(조곡) 소비량은 1억 9,200만 톤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식용, 사료용, 산업용, 종자용 소비량은 각각 1억 5,809만 톤(82.3%), 980만 톤(5.1%), 877만 톤(4.6%), 134만 톤(0.7%)을 차지한다.

그림 2. 중국의 쌀 소비량(조곡 기준)

단위: 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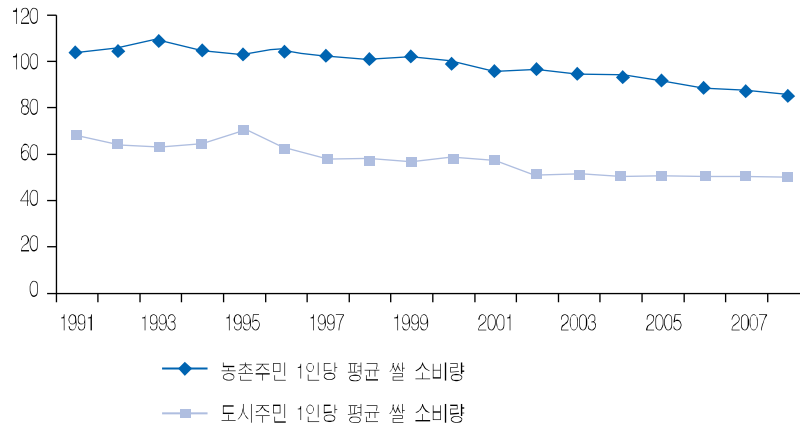
자료: BRIC 농산물DB <http://www.chinabrice.com/>

지난 20년 간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평균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결과, 식품 소비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겨났다. 특히 농촌 주민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은 도시 주민은 공급이 풍부하고 종류가 다양한 식품소비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동물성 식품과 부식품의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도시 주민의 1인당 평균 식용 쌀 소비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 주민의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1991년 67.4kg에서 2008년 50.1kg까지 감소하였으며, 농촌 주민의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1991년 104.4kg에서 2008년 85.1kg까지 감소하였다. 중국은 현재 노동력이 농촌에서 도시로 빠르게 이전하는 등 도시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도시 인구는 빠른 증가추세를 유지하며 도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쌀 소비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도시의 쌀 소비량은 1991년 2,101만 톤에서 2008년 3,041만 톤까지 증가한 반면, 농촌의 쌀 소비량은 1991년 8,831만 톤에서 2008년 6,139만 톤까지 감소하였다¹⁾.

1) 도시와 농촌의 쌀(정곡) 소비량 데이터는 「我國城鄉大米消費彈性分析(2011, 馮敏·陸遷·林建中)」에서 사용한 쌀 소비량 수치를 활용함.

그림 3. 1991~2008년 중국의 농촌과 도시의 1인당 평균 쌀 소비량

단위: kg/명



자료: 「我國城鄉大米消費彈性分析(2011, 馮敏·陸遷·林建中)」의 그림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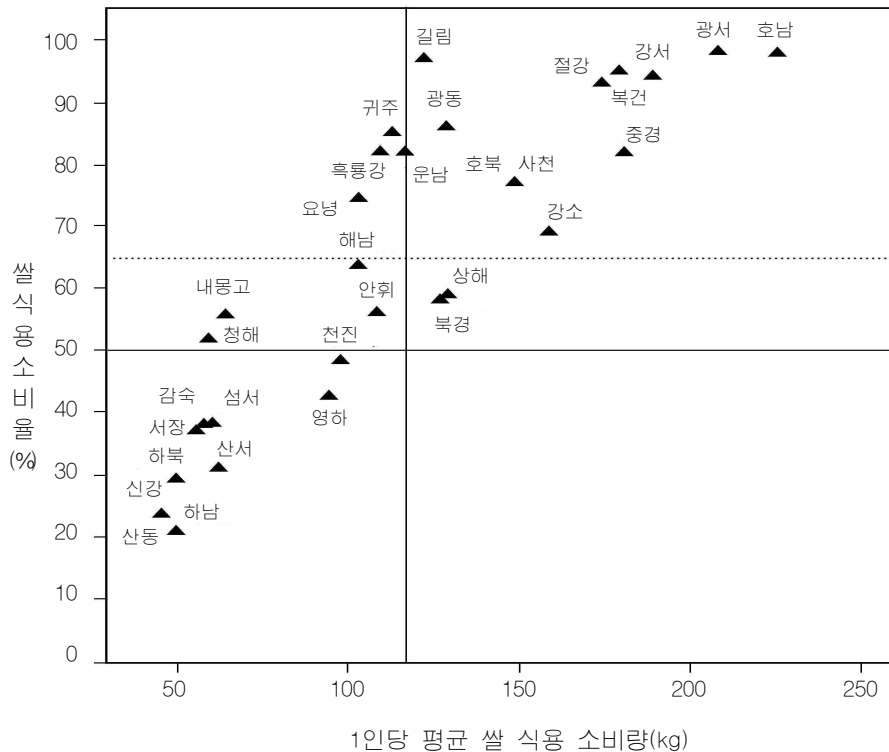
중국 남방지역과 북방지역 주민의 식품소비구조에도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전통적으로 남방지역은 쌀 위주, 북방지역은 면(밀가루 음식) 위주의 식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전통적인 식생활에도 점차 변화가 나타났고 각 성(省)의 쌀 소비에도 차이가 생겨났다.

2009년 쌀(조곡) 식용 소비율²⁾을 가지고 지역적 소비 차이를 살펴보면, 쌀 식용 소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하남성, 신강위구르자치구, 산둥성, 하북성 등 10개 성으로 주로 중국 북방지역과 중서부지역에 분포한다. 쌀 식용 소비량은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으며 특히 하남성, 산둥성, 하북성 등은 중국의 주요 밀 주산지로서 면, 만두 등을 주식으로 한다. 쌀 식용 소비율이 50~60%(전국 평균 수준)인 지역은 주로 내몽고, 청해성, 해남성, 안휘성, 북경시, 상해시이며 이 중 내몽고자치구와 청해성의 쌀 식용 소비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소비율은 50%를 넘어선다. 이는 쌀과 밀의 총소비량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기타 곡물의 소비가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남성, 안휘성, 북경시, 상해시 4개 지역의 쌀 식용 소비량은 전국 평균 소비량에 가까운 수준이다. 쌀 식용소비율이 65% 이상인 지역은 강소성, 요녕성, 사천성, 호북성 등 15개 성이며 이 중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호남성이다. 이들 지역 중 북방지역에 위치한 곳은 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으로 쌀 식용 소비량은 전국 평균 수준이나

2) 쌀(조곡) 식용 소비율 = 각 지역의 1인당 평균 쌀(조곡) 식용 소비량 / (각 지역의 1인당 평균 쌀(조곡) 식용 소비량 + 각 지역의 1인당 평균 밀 식용 소비량)

소비율은 전국 평균 수준을 넘어선다. 특히 길림성의 쌀 식용소비율은 97%에 달한다³⁾.

그림 4. 2009년 중국 각 성(省)의 1인당 평균 쌀(조곡) 식용 소비량 및 소비율 분포도



자료: 「我國稻穀消費中長期趨勢分析(2011, 吳樂·鄧文濤)」의 그림 인용

3. 쌀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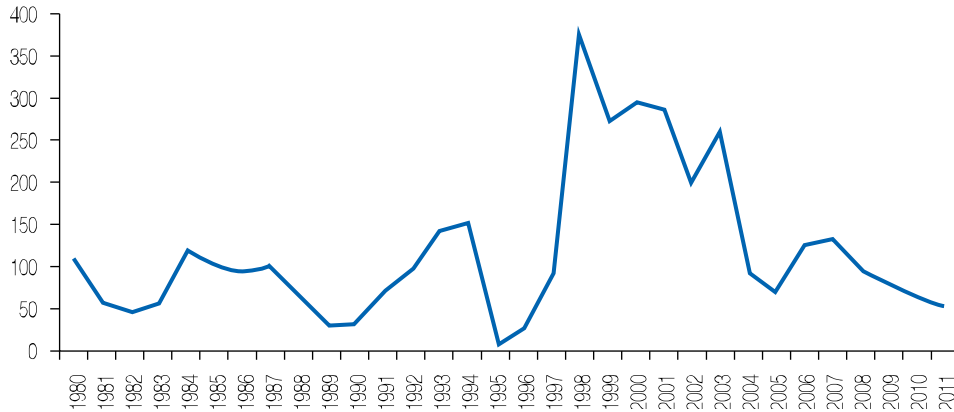
1980년대 중국의 쌀 수출량은 연평균 약 78만 톤 수준이었으며 1990년대에는 다소 증가하여 연평균 약 120만 톤을 수출하였다. 1995년은 중국의 쌀 수출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해로서 수출량은 5만 톤에 불과하였으며, 1998년은 중국의 쌀 수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해로서 수출량은 375만 톤에 달하였다. 하지만 1998년 이후 중

3) 吳樂·鄧文濤, 2011, “我國稻穀消費中長期趨勢分析,” 『農業技術經濟』(2011年 第5期), p.89

국의 쌀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과 2005년 각각 91만 톤, 69만 톤을 수출하였으며 2006년과 2007년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중국은 약 52만 톤의 쌀을 수출하였다.

그림 5. 중국의 쌀 수출량 추이(1980~2010년)

단위: 만 톤



자료: 중국농촌통계연감(2011)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쌀 수출량은 20만 9,588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9.9% 감소하였고 수출액은 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하였으며 평균 단가는 톤당 930.4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6.2% 상승하였다. 2012년 7월 쌀 수출량은 1만 1,612톤으로 전월대비 50.6% 감소하였고 수출액은 0.1억 달러로 전월대비 56.5% 감소하였으며 평균 단가는 톤당 680.9달러로 전월대비 12.1% 하락하였다. 2012년 7월 쌀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4.0% 감소하였으나 수출액과 평균 단가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 5.4% 증가한 수준이다.

2012년 1~7월 중국의 쌀 수출량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가 20만 2,944톤(전년 동기대비 -9.7%)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 4,392톤(전년 동기대비 -86.1%), 유럽 2,230톤(전년 동기대비 -56.8%), 남아메리카 22톤(전년 동기대비 +4,396.4%)을 수출하였다.

표 3. 2012년 1~7월 중국의 국가별 쌀 수출 현황

국가	2012년 1~7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수출량(톤)	수출액(만 달러)	수출량	수출액
한국	100,643	7,890	-24.7	-24.4
일본	39,485	4,111	143.0	189.0
파키스탄	7,214	2,493	87.5	133.8
북한	24,887	1,353	-16.8	-15.2
홍콩	16,519	1,345	-7.0	-2.4
인도네시아	2,617	740	91.0	130.6
베트남	1,397	396	63.5	645.5
몽골	6,608	361	42.4	41.3
차드(Chad)	3,000	212	-	-
러시아연방	2,038	137	-60.3	-50.0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2년 7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

표 4. 2012년 1~7월 중국의 지역별 쌀 수출 현황

지역	2012년 1~7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수출량(톤)	수출액(만 달러)	수출량	수출액
북경	100,629.5	8,954.1	-42.3	-28.0
흑룡강	40,145.0	2,849.5	82.1	101.4
길림	39,564.1	2,944.5	1.8	9.5
요녕	9,092.4	514.8	-11.4	-4.6
신강	6,367.0	411.8	-18.4	-10.7
호북	3,464.3	1,148.6	174.6	224.3
안휘	2,391.0	747.8	16.4	58.8
사천	2,109.8	630.6	37.8	46.1
내몽고	2,106.0	78.1	26.6	-6.2
천진	1,808.1	489.3	940.9	1,116.2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2년 7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

2012년 1~7월 중국의 쌀 수출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이 10만 643톤(전년 동기대비 -24.7%)으로 가장 많으며 일본 3만 9,485톤(전년 동기대비 +143.0%), 북한 2만 4,887톤(전년 동기대비 -16.8%), 홍콩 1만 6,519톤(전년 동기대비 -7.0%), 파키스탄 7,214톤(전년 동기대비 +87.5%)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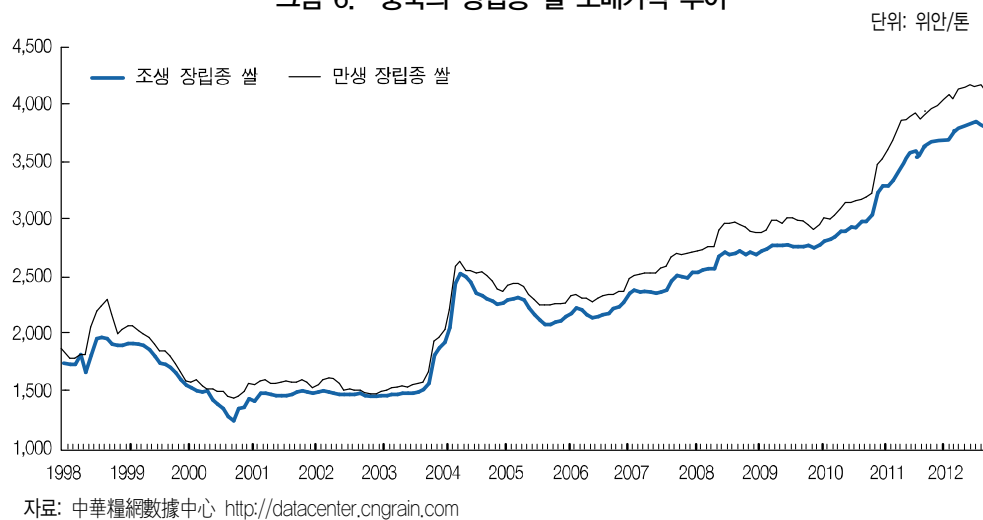
2012년 1~7월 중국의 쌀 수출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경이 10만 630톤(전년 동기대비 -42.3%)으로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하고, 이어 흑룡강성 40,145톤(전년 동기대비 +82.1%), 길림성 39,564톤(전년 동기대비 +1.8%), 요녕성 9,092톤(전년 동기대비 -11.4%), 신강위구르자치구 6,367톤(전년 동기대비 -18.4%)을 수출하였다.

4. 쌀 가격⁴⁾ 동향

■ 장립종 쌀 도매가격

중국의 장립종 쌀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2000년 9월 조생 장립종 쌀과 만생 장립종 쌀 도매가격은 각각 톤당 1,191위안, 1,404위안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안정세를 보이다가 2004년 4월 각각 톤당 2,510위안, 2,585위안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다소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5년 말부터 현재까지 장립종 쌀 도매가격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조생 장립종과 만생 장립종 쌀의 평균 도매가격은 각각 톤당 3,793위안, 4,103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8.6%, 8.3% 상승하였다. 조생 장립종 쌀 도매가격은 2012년 5월 톤당 3,846위안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10월 도매가격은 전월대비 0.2%, 전년 동기대비 4.9% 상승한 톤당 3,804위안이다. 만생 장립종 쌀 도매가격은 2012년 7월 톤당 4,143위안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10월 도매가격은 전월대비 0.6%, 전년 동기대비 5.8% 상승한 톤당 4,140위안이다.

그림 6. 중국의 장립종 쌀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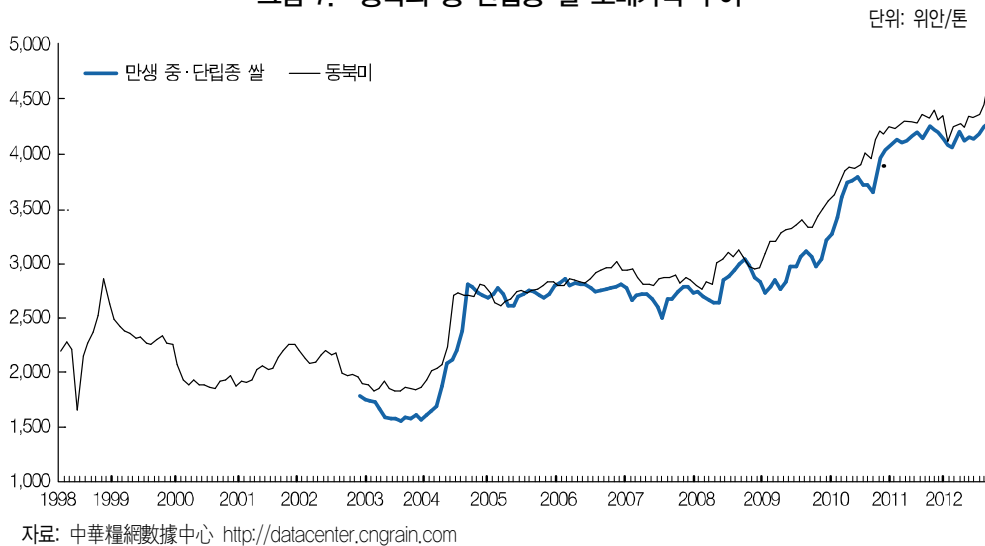


4) 쌀 도매가격은 중국의 곡물비축공사인 중국저비량관리총공사(中國儲備糧管理總公司)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정주화량기술주식회사(鄭州華糧科技股份有限公司)에서 제공하는 도매가격을 참고함.

■ 중·단립종 쌀 도매가격

중국의 중·단립종 쌀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중국 남부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만생 중·단립종 쌀의 도매가격은 2003년 2월 톤당 1,559위안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04년 3월 톤당 2,817위안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소폭의 등락과 함께 안정세를 유지하다 2009년 말부터 현재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만생 중·단립종 쌀의 평균 도매가격은 톤당 4,204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6.2% 하락하였다. 10월 도매가격은 톤당 4,343위안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월대비 1.2%, 전년 동기대비 1.0% 상승한 수준이다. 동북 3성에서 주로 생산되는 중·단립종 쌀인 동북미의 도매가격은 1998년 4월 1,661위안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04년 3월부터 안정세를 보이다가 2009년 초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동북미의 평균 도매가격은 톤당 4,374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0.2% 하락하였다. 10월 도매가격은 톤당 4,646위안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월대비 1.0%, 전년 동기대비 4.5% 상승한 수준이다.

그림 7. 중국의 중·단립종 쌀 도매가격 추이



5. 쌀 수급 전망

표 5. 중국의 쌀(조곡)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만 톤

	2009/10	2010/11	2011/12 (추정)	2012/13 (전망)	전년대비 증감률(%)
생산량	19500	19447	20,035	20,130	0.5
- 재배면적(만 ha)	2,963	2,996	3,027	3,029	0.1
- 단수(톤/ha)	6.58	6.49	6.62	6.64	0.4
수입량	38	65	200	120	-40.0
이월재고량	4,691	5,804	6,066	6,753	11.3
총공급량	24,229	25,316	26,301	27,003	2.7
소비량	18,325	19,200	19,500	19,500	0.0
수출량	100	50	48	60	25.0
기말재고량	5,804	6,066	6,753	7,443	10.2
기말재고율(%)	31.7	31.6	34.6	38.2	+3.6%p
총수요량	24,229	25,316	26,301	27,003	2.7

주: 양곡년도는 당해연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이며, 중국의 쌀 수급표는 중국의 농업컨설팅회사인 BRIC Global Agricultural Consultant LTD, Beijing에서 11월 초 발표한 수치임.

자료: BRIC농산물DB <http://www.chinabric.com/>

■ 2012/13년 중국 쌀 생산량 전년대비 0.5% 증가 전망

10월 동북지역에 많은 비가 많이 내려 중·단립종 쌀의 출하시기가 약 10일 정도 지연되었으나 쌀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량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2/13년 중국의 쌀(조곡) 재배면적과 단수가 전년대비 각각 0.1%, 0.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량은 2억 130만 톤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조생종 쌀 생산량은 3,200만 톤, 중·만생종 쌀은 1억 6,75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13년 중국 쌀 소비량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 전망

10월 중·만생 장립종 쌀과 동북미(중·단립종)의 대규모 수확작업이 진행되면서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의 저렴한 쌀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쌀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13년 중국의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동등한 수준인 1억 9,5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조생종 쌀 소비량은 3,288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12/13년 중국 쌀 수출량 전년대비 25.0% 증가 전망

공식적인 해관통계의 쌀 수입량이 대폭 증가한 것과 더불어 현재까지 올해 운남성에 수입된 쌀이 약 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12년 중국의 쌀 수입량은 전년대비 207.7% 증가한 200만 톤, 수출량은 전년대비 4.0% 감소한 48만 톤으로 예상된다. 2011/12년 쌀 수입량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국내 쌀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제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수입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2012/13년 중국의 쌀 수입량은 생산량과 이월재고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40.0% 감소한 120만 톤, 반면 수출량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6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13년 중국 쌀 기말재고량 전년대비 10.2% 증가 전망

2011/12년 국내 쌀 공급량이 충분하고 수입량도 크게 증가하여 2011/12년 쌀 기말재고량은 6,753만 톤까지 증가하여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3.0%p 상승한 34.6%로 예상된다. 조생 장립종 쌀의 경우 수급이 타이트하여 기말재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1/12년도 조생 장립종 쌀의 기말재고량과 기말재고율은 각각 521만 톤, 16.2%로 예상되며 2012/13년도에는 기말재고량과 기말재고율이 전년대비 각각 17.0%, 3.2%p 하락한 432만 톤, 13.1%로 전망된다.

【참고 문헌】

- 國家糧油用信息中心. 「食用穀物市場供需狀況月報」(第154期)
- BRIC環球農業中心 研究部編. 「大宗農產品月報(中國稻穀及大米)」(第17期)
- 吳樂·鄒文濤. 2011. “我國稻穀消費中長期趨勢分析.” 『農業技術經濟』(2011年 第5期)
- 馮敏·陸遷·林建中. 2011. “我國城鄉大米消費彈性分析.” 『商務研究』(2011/07 第411期)
- 楊子剛·郭慶海. 2011. “稻穀市場供求分析.” 『宏觀熱點』(2011年 第10卷 第03期)
- 中國商務部. 「中國農產品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2012年 7月)
- 國家統計局農村社會經濟調查司編. 「中國農村統計年鑒」(2011)
- 中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
- 中華糧網數據中心 <http://datacenter.cngrain.com>

베트남의 쌀 산업 동향

베트남의 지형은 남북으로 가늘고 길며, 국토의 75%가 산지, 구릉,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후도 북부 아열대 지방에서 남부의 열대 몬순까지 다양하다. 베트남 쌀의 2대 생산지는 북부 홍하 델타와 남부 메콩 델타 지역이다. 메콩 델타지역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에 있어 베트남 전체의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외 수출도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쌀의 국내 유통 구조는 북부의 홍하 델타에서 생산되는 쌀의 대부분은 자가 소비용이 대부분이며, 상업용으로 유통되는 양은 매우 적다. 한편, 메콩 델타는 베트남 최대의 쌀 생산 지역이며, 상업적인 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쌀의 국내 유통 구조는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다단계이며, 생산 또는 정미·가공업체 사이에서 후방산업에서 전방산업으로 걸쳐 협상력이 큰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1. 베트남 개황

■ 지리적 개황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위치하여 남북이 1,650km에 달하는 길쭉한 국토를 가지고 있다. 북쪽으로 중국과 서쪽으로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한다. 또한 남쪽은 시나 바다를 끼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마주하고 있다. 베트남의 국토면적은 331,051km², 인구는 2009년 현재 86,025천명이며, 이는 10년 전에 비하여 12.3%가 증가한 것이다. 대부분이 산악지대이며, 평지는 남북의 홍하·메콩 델타와 그것을 연결하는 남중국해를 따라 협소한 평야뿐이다. 민족별로 보면 인구의 80% 이상이 베트남족이며 이들은 주로 평지에 거주하며 소수 민족들은 주로 산지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림 1〉은 베트남의 행정 구역과 자연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지방 행정 조직은 63개 성 및 성과 동격의 중앙직할시(하노이·하이퐁시·다낭시·호치민시·껀터시)가 있으며

*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택 선임연구위원(yongkim@krei.re.kr)

* 본 내용은 農林水産省「平成21年度世界食料海外農業情報調査分析(アジア)」2010年3月中「ベトナム農業の現状と農業・貿易政策」 및 岡江恭史「平成20年度カントリーレポート:ベトナム」를 참고하여 작성됨.

여러 성을 정리하여 “홍하 델타 (Dong bang song Hong)”, “북부 산악 지역 (Trung du va mien nui phia Bac)” “연안 지역 (BacTrung Bo va duyen hai mien Trung)”, “중부 고원 (Tay Nguyen)”, “동남부 (Dong Nam Bo)”, “메콩델타 (Dong bang song Cuu Long)”라는 지역 구분도 사용된다. <표 1>은 베트남 각 지역의 면적과 인구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베트남의 지역구분



자료: 寺本・阪田(2009) 베트남 지도에 필자가 가필.

표 1. 베트남 각 지역의 면적과 인구(2009년)

구분	전국	홍하델타	북부 산악지역	연안지역	중부고원	동남부	메콩델타
전체면적(km ²)	331,051	21,063	95,337	95,886	54,641	23,605	40,519
농지	95,988	7,947	14,264	17,659	16,675	13,936	25,507
임야	147,578	4,612	52,201	51,540	30,818	5,093	3,314
주택지	6,339	1,329	1,066	1,742	455	631	1,116
인구(천 명)	86,025	19,625	11,095	18,870	5,125	14,096	17,213
인구밀도(명/km ²)	260	932	116	197	94	597	425

자료: TCTK(TONG CUC THONG KE, 통계총국)(2010).

■ 경제구조 및 무역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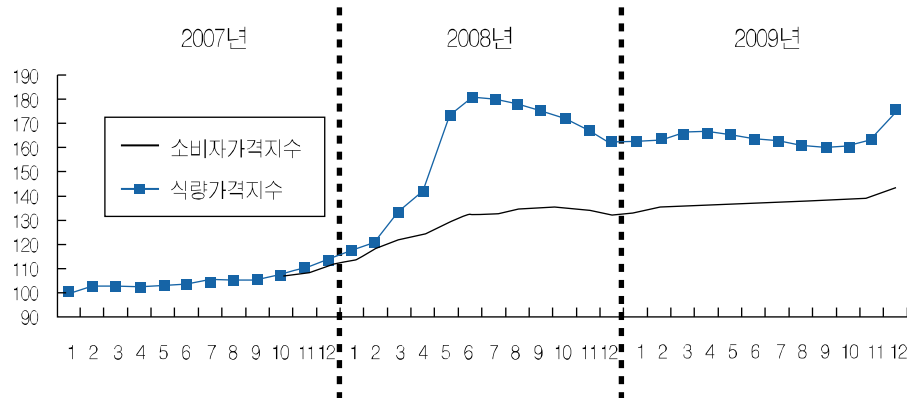
베트남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연간 7~8%의 높은 GDP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수출 시장이 축소된 2008년 이후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전년대비 5% 이상의 성장을 계속하여 1인당 GDP도 1,000달러를 돌파하였다. 세계 금융위기가 베트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베트남 은행이 해외로부터 직접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해외자산 운용이 아직 널리 실시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최근 베트남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빠른 인플레이션의 진행이다. 2007년 1월 WTO에 가입한 이후에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이 증가하였다 특히 수입 증가가 현저하며, WTO 가입 첫해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전년에 비해 약 3배 급증했다. 이와 같이 투자과열과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 및 원자재와 곡물의 국제가격상승으로 2007년 말부터 인플레이션이 급속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2〉는 2007~09 년의 베트남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식량 가격 지수의 상승을 2007년 1월을 100으로 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2007년 10월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및 식량가격지수도 상승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식품가격이 세계적인 가격상승에 영향을 받아 2008년 4 ~ 6월에 급등하고 있다. 2008년 6월 이후 식품가격도 하락세에 있지만 하락폭이 적어 2009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식량가격지수가 2007년 1월에 비하여 각각 40%와 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금융위기가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했지만, 거액의 무역적자 외에도 2008년 후반부터 베트남의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2009년 11월말에 베트남 통화 등이 대미 달러 기준가격으로 5.4% 절하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림 3〉은 2009년 12월을 100으로 하여 2009년 12월 ~ 2011년의 베트남 국내 소비자물가지수와 식량가격지수의 상승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2010년에 들어서는 물가 전체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지만, 2010년 말부터 식량가격의 급등하여 소비자물가지수도 상승하였다. 또한 늘어나는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하여 베트남 국가은행(중앙은행)이 2011년 2월 11일 달러에 대한 환율을 9.3% 인하한 것이 물가상승을 더욱 가속시켰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적으로 국가 은행은 2월부터 2개월간 4번 금리를 인상했지만 물가상승세가 멈추지 않았다. 또한 2011년 후반,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 쌀 수출 확대와 태국의 잉락 정권 탄생과 홍수 피해로 인한 태국 쌀 가격이 상승하여 식량가격이 급등하고 소비자물가지수도 더 상승하게 되었다. 베트남 통계국이 발표한 2011년 실질 GDP 성장률은 5.89%로 전년의 6.78%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가

속화됨에 따라 거시경제의 안정을 우선하고 정부가 긴축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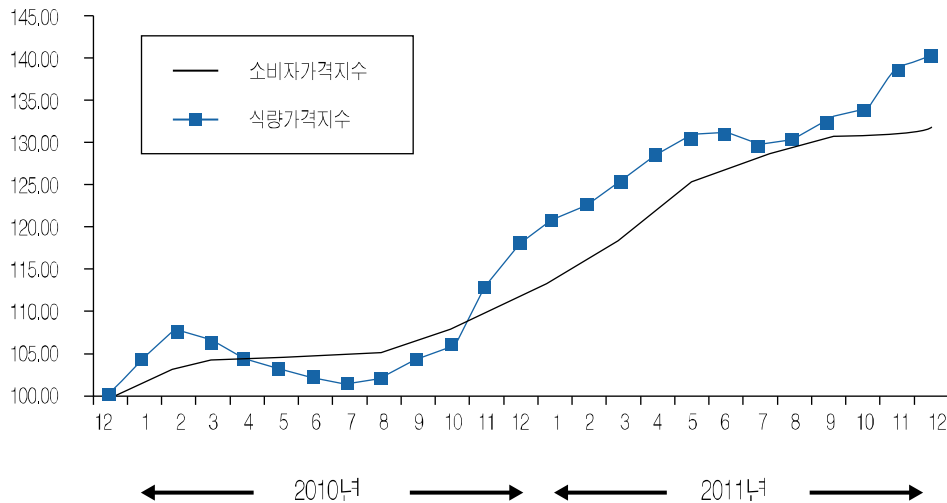
그림 2. 2007~2009년의 베트남 국내물가 상승



주: 2007년 1월을 기준(100)으로 함.

자료: TCTK(TONG CUC THONG KE, 통계총국)(online).

그림 3. 2009년 12월~2011년의 베트남 국내물가 상승



주: 2009년 12월을 기준(100)으로 함.

자료: TCTK(TONG CUC THONG KE, 통계총국)(online).

〈표 2〉는 베트남의 주요 무역 상대국과 수출 총액·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최근 아세안(ASEAN)은 수출 15% 정도, 수입의 25% 정도를 항상 차지하고 있다. 또한 APEC의 틀에서 볼 때, 수출의 70% 이상, 수입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도이 모이 이전 소련과 동유럽이 주요 무역 상대국이었던 베트남은 이제 완전히 아시아 태평양이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되어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도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 증가가 현저하다. 2001년에는 10% 정도이었던 중국의 점유율이 2007년 이후부터는 20% 정도를 차지하는 압도적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으로 원자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베트남으로 가공품을 수출하는 구조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게다가 아세안과 중국 간에 체결된 “ASEAN·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으로 향후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대중 경제심이 강한 베트남에게 이와 같은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빠져드는 상황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에 비하여 미국과 베트남 간 무역은 베트남 측이 압도적으로 우위이다. 베트남 최대의 미국 수출 품목은 피혁과 섬유이다.

표 2. 베트남의 주요 무역상대국과 수출·입 비중

표 2-1. 주요 수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의 비중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1위	일본	16.7	미국	14.7	미국	19.5	미국	19.0	미국	18.3	미국	19.7	미국	20.8	미국	19.0
2위	중국	9.4	일본	14.6	일본	14.4	일본	13.4	일본	13.4	일본	13.2	일본	12.5	일본	13.5
3위	미국	7.1	중국	9.1	중국	9.3	중국	10.9	중국	9.9	호주	9.4	호주	7.8	중국	7.7
4위	싱가포르	6.9	호주	8.0	호주	7.1	호주	7.1	호주	8.4	중국	8.1	중국	7.5	호주	6.9
5위	호주	6.9	싱가포르	5.8	싱가포르	5.1	싱가포르	5.6	싱가포르	5.9	싱가포르	4.5	싱가포르	4.6	싱가포르	4.3
ASEAN		17.0		14.6		14.7		15.3		17.7		16.7		16.7		16.5
APEC		67.1		71.6		73.6		73.6		74.5		73.7		72.2		70.5

표 2-2. 주요 수입국의 수입총액에서의 비중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국가	비율
1위	싱가포르	15.3	싱가포르	12.8	중국	12.4	중국	14.4	중국	16.0	중국	16.5	중국	20.3	중국	19.8
2위	일본	13.5	대만	12.8	일본	11.8	대만	11.6	싱가포르	12.2	싱가포르	14.0	싱가포르	12.1	싱가포르	11.6
3위	대만	12.4	일본	12.7	대만	11.5	싱가포르	11.3	대만	11.7	대만	10.7	대만	11.1	대만	10.4
4위	한국	11.6	한국	11.5	싱가포르	11.4	일본	11.1	일본	11.1	일본	10.5	일본	9.9	일본	10.2
5위	중국	9.9	중국	10.9	한국	10.4	한국	10.5	한국	9.8	한국	8.7	한국	8.5	한국	9.0
ASEAN		25.7		24.2		23.6		24.3		25.4		27.9		25.3		24.2
APEC		81.3		82.5		81.4		82.5		83.5		83.5		83.9		83.3

주: 비율 단위는 %, 중국은 홍콩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TCTK(TONG CUC THONG KE, 통계총국)(2007, 2009, 2010).

2. 쌀 생산

■ 생산지역

베트남 쌀의 2대 생산지역은 북부 홍하 델타와 남부 메콩 델타이다. 두 지역 모두 토양이 비옥하고 관개 시설이 정비되어 있으나 두 지역을 비교하면, 메콩 델타가 면적과 생산량 모두에서 홍하 델타 보다 3배 이상 압도적으로 크다. 베트남 전체를 놓고 보아도, 메콩 델타의 면적과 생산량은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쌀 수출도 대부분 메콩 델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에 쌀 재배면적 중에서 2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베트남 전체의 6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은 베트남 전체의 70.1%(2009년)를 차지하고 있다<표 3 참조>.

한편, 홍하 델타에서 생산되는 쌀은 상업용 쌀이 적고, 영세 농가에 의한 자가소비용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홍하 델타의 일정 지역을 수출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품종 통일과 품질 향상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참여 농가가 적어 수출이 증가하지 않았다.

홍하 델타와 메콩 델타는 기후가 달라 쌀 생산도 영향을 주고 있다. 아열대 범위에 속하는 홍하 델타에서는 연간 2기작이 중심인 반면, 열대의 메콩 델타지역은 3기작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병충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경작시기를 지도하고 있다. 베트남의 쌀 3기작은 ①겨울 봄작(冬春作, Lua dong xuan), ②여름 가을작(夏秋作, Lua he thu), ③무어 작(Lua mua (10월작). 冬作라고도 함)이다. 2008/09년 2대 삼각주 지역에서의 대략적인 작기와 면적과 단수를 아래 도표에 정리하였다. 홍하 델타는 2기(무어 작)의 수확기 10월 전후가 우기에서 건기로 이동하는 시기와 맞물려 우기가 길어 건조가 불충분하며 이에 수분 함량이 많은 쌀이 생산된다. 따라서 연중 햇볕이 강한 메콩 델타의 쌀에 비해 홍하 델타의 쌀 품질이 낮은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표 3. 쌀 주요 생산지역과 작기(2008/09)

	북부·황하델타			남부·메콩델타			전국	
	재배기간	작부기간 (1,000ha)	단위수확량 (T/ha)	재배기간	작부기간 (1,000ha)	단위수확량 (T/ha)	작부기간 (1,000ha)	단위수확량 (T/ha)
봄	12-5월	571.3	6.3	11-4월	1,548.8	6.4	3,060.9	6.1
여름	재배하지 않음			4-8월	1,661.1	4.8	2,108.8	4.8
무어작	7-11월	584.1	5.4	8-11월	413.7	3.9	2,021.1	4.5
합계	-	1,155.5	5.9	-	3,623.6	5.3	7,190.8	5.3

자료: Agrofinfo "Vietnam's Rice Industry in 2009 and Outlook for 2010", 岡江恭史 「Country Report : Vietnam」.

■ 품종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종은 대부분이 인디카 쌀의 재래종이다. 자포니카쌀도 메콩 델타의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주로 유럽 등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호치민 등 대도시에서는 고급 수입 쌀 등과 함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경제 성장에 따라 국민 소득이 상승하고 고액 소득자 사이에서 브랜드 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의 쌀 생산에서 차지하는 자포니카 쌀의 비율은 아주 적어 통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 홍하 델타를 중심으로 도입된 것이 하이브리드 쌀이다. 하이브리드 쌀의 수율은 기존의 고수익 품종에 비해 15~20% 정도 높기 때문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90년대 베트남의 하이브리드 쌀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 개발, 종자 생산, 기술 이전 분야에 지원을 했다. FAO에 따르면, 2001/02 년도의 하이브리드 쌀 면적은 48만 ha로 국토의 6% 전후를 차지한다. 웹 보도에 따르면, 2007년 시점에서 북부와 중북부 지역의 쌀 생산에서 차지하는 하이브리드의 비율은

50~55%에 이르고 있다.

하이브리드(hybrid) 쌀은 일반 쌀에 비해 다량의 비료를 필요로 하고 종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 등에서 생산 비용이 높지만 수익성은 반드시 좋지 않다. 홍하 델타의 고급 쌀과 다수확품종의 쌀 생산비를 비교한 것이 아래 <표 7>이다.

베트남은 국가 식량안보를 위하여 늦어도 2015년까지 유전자재조합 작물을 대량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0년을 향한 바이오 기술개발과 농업과 농촌 부문 도입에 관한 핵심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많은 유전자재조합 작물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 및 연구소 실험실 수준에서 여러 유전자재조합 작물을 재배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온실 및 포장에서 시험 재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순위를 매긴 유전자재조합 작물은 쌀, 옥수수, 면화, 콩, 카사바, 감자 등 모두 베트남에서 많이 소비되는 주요 작물이다.

■ 생산 동향

베트남의 2대 쌀 생산지역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단수의 추이를 보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하노이 근교에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논이 상업용지나 공업 용지로 전용되었고 쌀 농가의 노동력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쌀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2007~08년 국제 쌀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국내 쌀 가격도 상승하면서 정부는 농지 이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논 농지의 비농업용으로의 전용을 억제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4월에는 논 농지의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제 391호 수상 결정)되었고, 2008년 8월에는 “농업·농민·농촌에 대한 중앙집행위원회 제 26호 의결”이 공포되어 2010~20년의 농업정책의 목표로, 국가식량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논 면적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설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홍하 델타지역의 2009년 쌀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홍하 델타의 쌀 생산 단수는 전국 평균보다 20% 정도, 메콩 델타보다 10% 정도 높고, 면적의 감소를 단수 증가가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단수가 높은 이유의 하나는 개량품종 쌀 생산비율이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메콩 델타는 2006~07년에 걸쳐 면적 감소가 증가로 돌아섰다. 생산량도 2008년에 2,000만 톤(벼 기준)에 달했다. 쌀 농가는 자유화 정책에서 현대 경영의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향상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서서히 수출경쟁력이 높아

저, 쌀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메콩 델타에서 생산되는 쌀의 1/3에서 1/2 정도가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출 증가가 쌀 생산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래 <표 4, 5, 6>은 베트남의 쌀 생산현황을 지역별, 작기별, 성별(省別)로 살펴본 것이다.

표 4. 쌀(벼) 생산의 지역별 내역

단위: 1,000ha, 1,000톤, 100kg/ha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재배면적						
홍하델타	1,261.0	1,186.1	1,171.2	1,158.1	1,153.2	1,155.4
메콩델타	3,945.8	3,826.3	3,773.9	3,683.1	3,858.9	3,872.9
기타	2,459.5	2,316.8	2,379.7	2,366.2	2,388.1	2,411.8
합계	7,666.3	7,329.2	7,324.8	7,207.4	7,400.2	7,440.1
생산량						
홍하델타	6,762.6	6,398.4	6,725.2	6,500.7	6,790.2	6,796.3
메콩델타	16,702.7	19,298.5	18,229.2	18,678.9	20,669.5	20,483.4
기타	9,064.2	10,136.0	10,895.1	10,763.1	11,270.1	11,615.8
합계	32,529.5	35,832.9	35,849.5	35,942.7	38,729.8	38,895.5
단위수확량						
홍하델타	53.6	53.9	57.4	56.1	58.9	58.8
메콩델타	42.3	50.4	48.3	50.7	53.6	52.9
기타	36.9	43.8	45.8	45.5	47.2	48.2
합계	42.4	48.9	48.9	49.9	52.3	52.3

자료: 베트남 통계국(GSO).

표 5. 쌀(벼) 생산의 지역별 내역(점유율)

단위: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재배면적						
홍하델타	16.4	16.2	16.0	16.1	15.6	15.5
메콩델타	51.5	52.2	51.5	51.1	52.1	52.1
기타	32.1	31.6	32.5	32.8	32.3	3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산량						
홍하델타	20.8	17.9	18.8	18.1	17.5	17.5
메콩델타	51.3	53.9	50.8	52.0	53.4	52.7
기타	27.9	28.3	30.4	29.9	29.1	29.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베트남 통계국(GSO).

표 6. 쌀(벼) 분기별(작기) 면적 및 생산량

연도	재배면적(1000ha)				생산량(1000톤)			
	합계	봄 쌀	가을 쌀	겨울 쌀	합계	봄 쌀	가을 쌀	겨울 쌀
1990	6,043	2,074	1,216	2,754	19,225	7,866	4,091	7,269
1991	6,303	2,161	1,382	2,760	19,622	6,788	4,716	8,118
1992	6,475	2,279	1,449	2,748	21,590	9,156	4,907	7,527
1993	6,559	2,324	1,549	2,687	22,837	9,036	5,633	8,168
1994	6,599	2,381	1,586	2,631	23,528	10,509	5,679	7,340
1995	6,766	2,421	1,742	2,602	24,964	10,737	6,501	7,726
1996	7,004	2,541	1,984	2,479	26,397	12,210	6,879	7,309
1997	7,100	2,683	1,885	2,532	27,524	13,310	6,638	7,576
1998	7,363	2,783	2,141	2,439	29,146	13,560	7,523	8,063
1999	7,654	2,889	2,341	2,424	31,394	14,103	8,758	8,533
2000	7,666	3,013	2,293	2,360	32,530	15,571	8,625	8,333
2001	7,493	3,057	2,211	2,225	32,108	15,474	8,328	8,306
2002	7,504	3,033	2,294	2,178	34,447	16,720	9,189	8,539
2003	7,452	3,023	2,320	2,109	34,569	16,823	9,401	8,345
2004	7,445	2,979	2,366	2,101	36,149	17,078	10,431	8,640
2005	7,329	2,942	2,349	2,038	35,833	17,332	10,436	8,065
2006	7,325	2,996	2,317	2,012	35,850	17,588	9,694	8,567
2007	7,207	2,988	2,204	2,016	35,943	17,024	10,141	8,778
2008	7,400	3,013	2,369	2,018	38,730	18,327	11,396	9,007
2009	7,440	3,061	2,358	2,021	38,896	18,696	11,184	9,015

주: 겨울·봄 경작, 여름·가을 경작, 무이작에 해당함.
 자료: 베트남 통계국(GSO).

■ 쌀 생산의 경영비

농업농촌개발부 (MARD)의 조사를 바탕으로, 2008/09년 겨울봄 작 쌀, 메콩 델타와 홍하 델타의 쌀 생산비를 비교했다. 메콩 델타(빌롱성)의 조사대상 농가의 1ha 당 중급미(medium quality)의 총 생산비는 1,371만 동이었다. 이는 홍하 델타의 고급쌀 생산비(1,878 만동)의 73%이었다. 따라서 이익은 1.4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비용 내역은 아래 <표 7>에 표시된 것처럼 노동비가 578만 동(총 비용의 42.2%), 비료비용이 435만 동(31.8%)으로 크게 이들 두 항목이 총생산비의 74.0%를 차지하였다. 기타 비용으로 큰 항목으로는 농약비용과 종자비용이었다. 다음 홍하델타(나무딩성)의 농업경

영비를 보면, 1ha 당 고급 쌀(aromatic Bac rice 7)의 총 생산비는 1,878만 동이었다. 인건비가 1,011만 동(53.8 %), 비료비용이 631만 동(33.6%)이었다. 이 두 항목이 87.4%로 총 생산비의 90% 정도를 차지하였다. 메콩 델타에 비해 인건비가 2배미만으로 항상 큰 것이 특징이다. 홍하 델타는 영세농의 자가소비를 위한 비중이 크고, 기계화가 늦어지는 것 등이 높은 인건비의 배경이라고 추정된다. 반대로, 메콩 델타의 기타 비용과 대출 금리의 비중이 큰 것은 기계화에 관련된 비용이 큰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7. 쌀 1ha 당 생산비(2008/09년 겨울春作)

단위: 1,000톤/ha

항목	메콩델타(빈롱성)		홍하델타(나무딘성)			
	중급미(주1)	비율(%)	고급미(주2)	비율(%)	하이브리드 쌀	비율(%)
종자	876.0	6.4	396.5	2.1	980.0	5.0
비료	4,354.4	31.8	6,312.4	33.6	5,819.4	29.9
농약	1,152.0	8.4	1,165.0	6.2	1,359.9	7.0
노동비	5,782.0	42.2	10,105.0	53.8	10,437.3	53.7
기타가격	1,045.0	7.6	400.0	2.1	474.0	2.4
대출금리 등	500.0	3.6	400.0	2.1	382.0	2.0
생산 총 가격	13,709.4	100.0	18,778.9	100.0	19,452.6	100.0
매출	28,275.0	-	28,952.0	-	29,338.0	-
이익	14,565.6	-	10,173.1	-	9,885.4	-

주1: 중급미(medium quality).

주2: 고급미(aromatic Bac rice 7).

자료: Agrofinfo "Vietnam's Rice Industry in 2009 and Outlook for 2010"(원자료: Department of Cultivation, MARD).

3. 쌀의 수급과 유통 및 관련 정책

■ 쌀의 수급

쌀은 베트남 국민의 소비 칼로리의 약 2/3를 차지하는 주식이다. USDA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쌀 생산은 최근 2,300~2,500만 톤/년(정미 기준)이다. 2010년 생산은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한 2,498만 톤(동)이었다. 국내 소비는 요즘 침체하여 2010년에 1,915만 톤이었다. 같은 해 쌀 자급률(국내생산/국내소비)은 130%에 달해 생산이 국내 소비를 크게 상회한 수준이다. 베트남에서 쌀 소비가 저하되는 원인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개인 소득이 상승하여 식문화가 고도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 생선, 야채, 과일 등의 소비가 늘면서 쌀 소비가 감소되고 있다. 2010년에 쌀 생산의 약 3/4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1/4이 수출되었다.

표 8. 베트남의 쌀 수급

단위: 1,000톤, 정미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초재고	1,025	1,292	1,317	1,392	2,018	1,961	1,456
생산	22,716	22,772	22,922	24,375	24,393	24,979	24,983
수입	320	350	450	300	500	400	500
공급량(합계)	24,061	24,414	24,689	26,067	26,911	27,340	26,939
국내소비	17,595	18,392	18,775	19,400	19,000	19,150	19,500
수출	5,174	4,705	4,522	4,649	5,950	6,734	5,800
소비(합계)	22,769	23,097	23,297	24,049	24,950	25,884	25,300
기말재고	1,292	1,317	1,392	2,018	1,961	1,456	1,639
자급률	129.1%	123.8%	122.1%	125.6%	128.4%	130.4%	128.1%

주: 자급률=국내생산/국내소비.

자료: USDA "Grain: World Markets and Trade(February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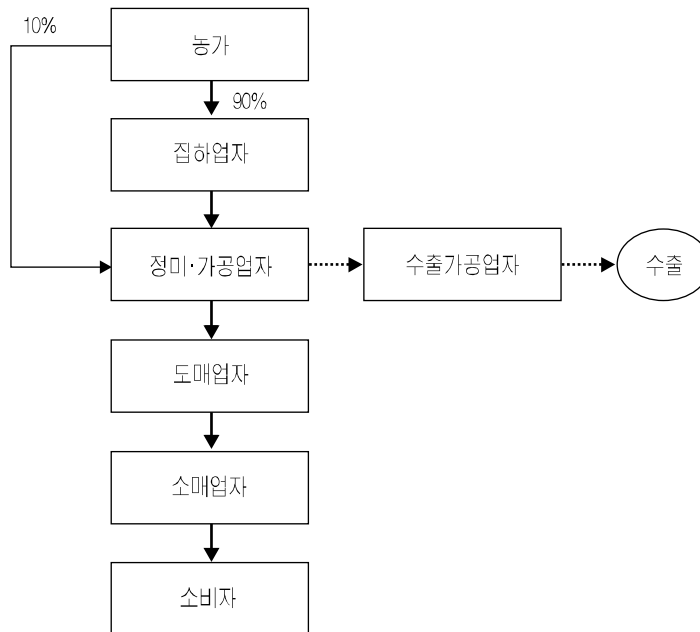
■ 쌀의 유통 구조

쌀의 유통 구조는 북부 홍하 델타와 남부 메콩 델타에서 크게 다르다. 홍하 델타에서 생산되는 쌀의 대부분은 주로 가족노동에 의한 자가 소비용이 대부분이며, 상업용으로 유통되는 양은 매우 적다. 한편, 메콩 델타는 국내 전체의 약 절반을 생산하는 베트남 최대의 쌀 생산지이며, 기계화가 진행 임금 근로자를 고용 한 상업적인 쌀 생산을 하고 있다. 아래 <그림 4>는 메콩 델타의 쌀 유통구조를 도식화 한 것이다. 유통 구조는 다단계에서 정미·가공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 업체로 구성되어있다. 수출 가공업자를 제외하고 쌀 유통에 관여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대부분이 민간이다. 유통 단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쌀 농가가 수확 한 쌀(벼)은 수집상이 매입하고 정미·마무리 가공 업체에 판다. 수집상(집하업체)은 산지 매입업체이며 마을의 영세 상인들이 대부분이다. 이후 도매업자, 소매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된다. 정미·가공업체는 정미업자와 가공업체에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정미업체는 현미를 만들고 가공업체에서는 백미

를 만든다. 정미업체는 자금력이 결여된 중소기업체가 많아 전국 각지에서 모은 쌀이 품종별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미되기도 하여 많은 다양한 품종이 섞여, 베트남 쌀의 품질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체는 충분한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 많다. 정미·가공업체에서 백미로 마무리되고 부서진 쌀알의 분별이나 시판용 봉지 포장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국내 시장과 수출로 구분된다. 국내용은 생산지와 품종에 의하여 분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등급별로 나눌 수는 없다. 한편 수출은 수출 가공업체에 의해 수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어진다.

이상의 국내 유통은 정부와 국영기업의 개입보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급 관계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2011년 1월에 최저 구매가격제도가 시행되어 시장가격이 최저 구매가격을 밑돌거나, 방출 가격보다 밑도는 경우, 베트남 식량협회(VFA)를 통하여 정부 개입이 이루어진다. 또한 베트남 식량협회의 회원사는 일정량의 쌀 비축을 유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림 4. 베트남(메콩델타)의 쌀 유통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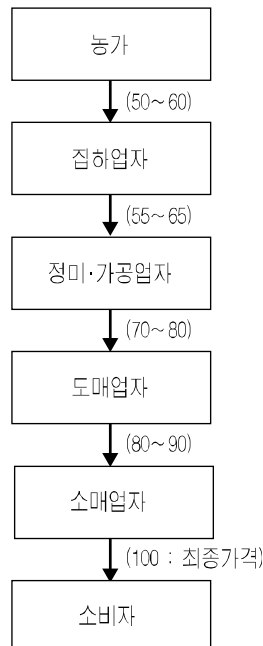


자료: 현지 청취조사(2010년 11월 실시)를 기준으로 일본 종합연구소 작성.

■ 쌀 가격결정 메커니즘

베트남 쌀의 국내 유통구조는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다단계이며, 생산에서 정미·가공업체 사이에서 전방산업부터 후방산업에까지 협상력 큰 기업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 형성은 후방에서 전방으로 소급하여 결정되며 중소 정미업자, 집하업체, 농가 등에 낮은 마진을 강요한다. 이 유통구조에서 가장 큰 협상력을 가지는 것은 대기업 정미 가공업체이다. 무엇보다 모두 민간 기업이며 쌀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최종 소매가격을 100으로 했을 경우, 유통단계별 비중은 대략 <그림 5>과 같다.

그림 5. 쌀 유통채널 단계별 비중(최종 소매가격=100)



자료: 현지 청취조사(2010년 11월 실시)를 기준으로 일본 종합연구소 작성.

■ 쌀의 유통 및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베트남은 1988년에 국가 통제가 철폐되어 기본적으로 농가의 쌀 판매는 자유화되어 있다. 정부가 가격통제제도를 통해 시장에 개입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쌀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 수급에서 결정된다. 또한 한때 수출 진흥책으로 고품질 쌀을 우선적으로 수출하고 국내 시장은 비교적 품질이 낮은 쌀이 유통되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도 철폐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농가소득 확보와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2010년 11월에 법령을 공포하고 쌀 적격 수출업체의 요구 사항을 결정하고, 쌀 시장에서의 최저구매가격제도(최저가격의 결정)와 방출가격제도(최고가격의 결정)를 수립하여 쌀 시장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1) 최저 구매가격 제도

법령 No. 109/2010/ND-CP(2010년 11월 4일)는 쌀의 최저구매가격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시행령은 쌀 수출에 관한 것으로 정부는 국내 쌀 가격이 낮을 때 수출을 위한 매입을 지시하고 재고 또는 수출로 배분하여 가격지지를 시도하고 있다. 동 시행령은 201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는데 동 시행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재무부(MOF)와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농가의 적절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성·정부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와 협력 하에, 당해년도의 계절별 쌀 매입가격(Oriented price)을 결정한다.
- ② 국내 쌀 시장가격이 쌀 매입가격보다 높을 경우, 정부는 매입을 지시하지 않는다. 시장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을 때,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재무부(MOF), 상공부(MOIT), 베트남 인민 은행, 베트남 식품 협회 등과 협의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며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최소구매가격제도를 실시한다.
- ③ 베트남 식량협회(VFA)는 정부 위탁을 받아 각 성·정부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회원 기업에 대해 쌀 매입가격으로 시장에서 쌀을 조달할 것을 지시한다.

(2) 방출가격제도

법령 No. 109/2010/ND-CP는 쌀 가격이 높을 때, 국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

출 비축미를 방출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각 성·정부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상공부(MOIT) 및 농업농촌개발부(MARD)와 협의하여 국내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역의 쌀 수출업체에 대해 쌀 매입·유통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지시한다.
- ② 국내 쌀 시장가격이 크게 변하고 정부가 정한 방출가격을 초과할 경우, 상공부(MOIT)는 각 성·정부직할시의 인민위원회 및 베트남 식량협회와 협력하여 방출 가격제도를 실시한다.
- ③ 베트남 식량협회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각 성·정부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원 기업에 비축 쌀 방출을 지시한다.

(3) 정부의 비축제도

베트남 정부는 국내시장의 쌀 안정공급 등을 목적으로, 베트남 식량협회 등을 통하여 쌀 비축을 실시했지만, 지금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베트남은 2007년 WTO에 가입했으나, 그 전에 WTO가입 작업반에 제출한 ‘녹색 정책’에 따르면,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으로, 1999년부터 2001년에 걸쳐 연평균 50만 톤의 쌀을 비축하고 있다. 또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12월 시점에서 100만 톤 이상의 정부 비축 쌀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국제 쌀 가격의 상승에 따른 국내 쌀 가격의 급등 등을 배경으로 비축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09년 3월에 120만 톤의 비축을 위하여 총 투자 7조동을 투입하고 2011년에 400만 톤까지 끌어 올릴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는 공식적으로 쌀 수출에 일부 비축 기능을 보유하고자 한다. 법령 No. 109/2010/ND-CP에서 수출기업은 국내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비축이 의무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출은 항상 수출 시점에서 과거 6개월간 총 수출량의 10%를 비축해야한다. 수출업체가 비축한 쌀은 넓은 의미에서 정부 비축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 비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USDA의 예측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1년 쌀 수출량은 정미 기반에서 580만 톤이었다. 따라서 이 수량의 6개월분의 10%가 비축된다면, 수출의 비축량은 30만 톤 미만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같은 해 국내 소비량 1,950만 톤의 1.5% 수준이나, 2011년 정부 비축계획인 400만 톤의 10%에 불과하다.

(4) 쌀 흉작시 정부의 대응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베트남의 쌀 생산은 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비율로 성장한 반면 국내 쌀 소비는 부진하다. USDA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베트남의 쌀 자급률(국내 생산/국내 소비)을 보면, 2007년이 최소 122.1%, 2010년이 최고 130.4%이었다. 국내 소비를 크게 넘어서 대량의 잉여 쌀이 수출되고 있다. 또한 쌀 수출이 늘어나면서 외화 획득과 농가소득 향상이 쌀 수출의 목적으로 중요시 되었다. 현재 수출 여력으로 판단하면 당분간 흉작 등으로 국내 생산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만약 국내 시장이 경색되면 정부의 대응책은 쌀 비축 방출과 수출 규제 등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비축미 방출은 2011년까지 400만 톤까지 쌀 비축량을 늘릴 계획이다. 연간 소비량 약 1,900만 톤의 1/4 미만의 금액이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최근의 쌀 수출량은 국내 소비량의 30% 내외로 약 600만 톤이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측면에서 비축미 방출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베트남의 쌀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일어났을 때, 정부는 베트남 식량협회를 통한 총량 규제 등 수출 규제를 실시하였다. 2008년에 정부가 실시한 쌀 수출 규제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베트남 정부의 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처

기간	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처
2008년 1월	2008년 신규 쌀 수호계약 개시
2008년 3월 25일	신규 쌀 수출 계약 정지
2008년 7월 1일	겨울·봄 경작 쌀 수확이 좋아 신규 쌀 수출 계약 재개, 7월에 50만 톤이 수출됨, 수출세 개시
2008년 7월 21일	수출 억제를 위해 수출세 인하
2008년 8월 15일	일부 수출세 인하
2008년 8~11월	국제 쌀 가격이 저하. 베트남 쌀 수출 급감
2008년 12월 19일	수출세 폐지, 수출 진흥으로 정책 전환

자료: Agroiinfo 「Vietnam Rice Sector in 2008, Outlook for 2009」.

4. 쌀 수출입구조와 무역 정책

■ 수출 쌀의 유통 구조

베트남의 쌀 수출은 공급 능력 및 품질 면에서 대부분 메콩 델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6>는 메콩 델타의 수출 쌀의 유통 구조를 단순화한 것이다. 농가가 수확한 쌀을 집하업체(산지 매수업체)가 매입하고 정미업자에 판매된다. 정미업체가 현미로 정미한 후 마무리 가공업체에서 백미로 마무리되고 부서진 쌀알의 분리 및 수출용 등급 구분이 이루어진다. 정미업체가 마무리 가공을 할 수도 있다. 수출은 가공업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도매업체나 수출업체가 할 수도 있다.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쌀 적격 수출업체의 자격을 가진 베트남 식량협회의 회원사에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업 수출로, 북부 식품공사(Vinafood 1), 남부 식품공사(Vinafood 2) 등의 국영기업과 각 성의 식량 수출기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영기업들이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의 2008년 주요 쌀 수출기업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0. 베트남의 쌀 주요 수출 기업(2008)

단위: 벼, 1000달러, 1000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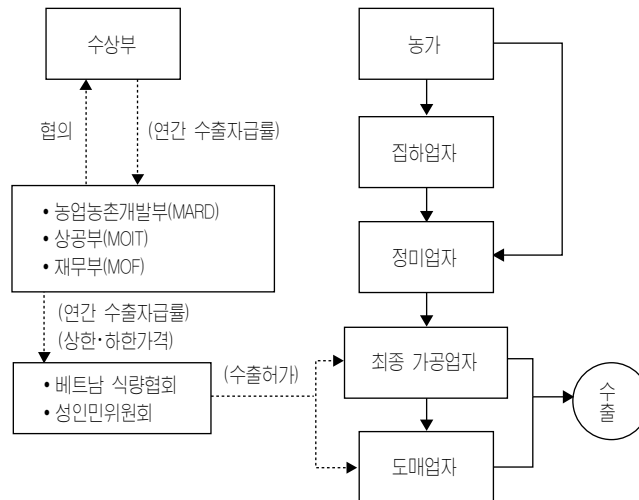
순위	기업명	수출액	수출수량
1	Southern Food Corporation(Vinafood 2)	1,189,112	1,730.0
2	Northern Food Corporation(Vinafood 1)	432,485	518.3
3	Kien Giang Trade Tourism Company	146,282	293.3
4	Gentraco Company	96,428	203.6
5	Kien Giang Forestry and Agriculture Company	58,718	113.2
6	An Giang Import-Export Company	52,598	89.6
7	Tien Giang Food Company	52,138	88.5
8	Vinh Long Food Company	51,785	100.0
9	Long An Food Company	44,159	89.1
10	Kien Giang Agriculture Business Company	42,509	92.3

자료: Agroiinfo 「Vietnam Rice Sector in 2008, Outlook for 2009」.

쌀의 수출에 관해서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수출 총량에 대한 규제가 있다. 농업농촌개발부(MARD)와 상공부(MOIT)는 연간 쌀 수출 목표량을 결

정하여 연초에 발표한다. 베트남 식량협회는 이런 수출 목표량을 협회 회원사에 배포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수출 목표가 달성되면 당해년도의 쌀 수출이 종료된다.

그림 6. 수출 쌀의 유통 구조(메콩 델타)



자료: 현지 청취조사(2010년 11월 실시)를 기준으로 일본 종합연구소 작성.

2011년 1월부터 법령 No. 109/2010/ND-CP에 의하여 쌀 수출제도가 도입되었다. 쌀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베트남 기업 또는 외자 기업을 불문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출 농가의 소득 향상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저장 능력을 포함하여 충분한 구입능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농가에서 쌀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고 수출을 담당 한다. 동 시행령에서 규정된 쌀의 적격수출업체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쌀 적격 수출은 상공부(MOIT)에서 수출허가증 (5년간 유효)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쌀 적격 수출은 5,000톤 이상의 쌀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와 시간당 10톤의 정미 능력을 가진 설비를 보유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 ③ 본 정령은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그 기간은 수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도 쌀 수출이 가능하다. 2011년 10월 1일 이후 수출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그 이상을 수출할 수 없다.

■ 쌀 수출의 주요 항구

베트남의 주요 항구로, Hai Phong, Saigon, Quang Ninh, Nghe An, Da Nang, Quy Nhon, Nha Trang, Can Tho 등 8개 항구를 들 수 있다.

표 11. 베트남의 주요 항구(컨테이너 물동량)

단위: 1000TEU

		2005	2006	2007	2008	2009
북부(주1)	하이퐁(Hai Phong)	398.3	464.0	683.7	828.0	816.0
중부	다낭(Da Nang)	32.3	37.4	53.4	61.9	69.7
	꾸이년(Quy Nhon)	32.3	51.9	61.8	72.3	54.6
남부	사이공 신향(Saigon New) (주 2)	1,056.0	1,400.0	1,800.0	2,318.1	2,460.0
	사이공(Saigon) (주3)	284.506	220.6	350.4	510.5	378.2
	벵에(Ben Nghe) (주4)	163.8	191.0	218.0	188.8	140.9
	국제컨테이너항(VICT) (주 5)	n.a.	n.a.	572.0	536.2	300.0

주 1: 꾸이년항은 자료 없음.

주 2-5: 여기서 4개 항은 합쳐서 사이공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음. 각각의 관할은 다음과 같음.

주 2: 국방부, 해군.

주 3: 베트남 국영 해운(Vinaline).

주 4: 호치민 시 .

주 5: 민간합병회사.

자료: Ocean Commerce, 「국제운송 Hand map 2011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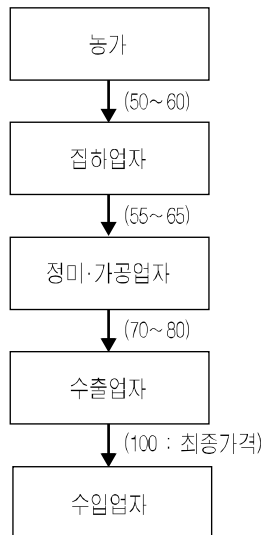
컨테이너 취급량에서 보면 사이공 항구(Saigon)(사이공신향, 사이공항, 벵게항 국제 컨테이너항으로 구성)와 하이퐁(Hai Phong)항구가 2대 항구이다. 쌀 수출은 형태에 따라 사용되는 선박이 다르다. 컨테이너선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벌크 선에 실린다.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쌀은 대부분 메콩 델타에서 생산되고 있다. 메콩 델타에는 상점(Can Tho)항구가 있지만, 수심이 얇고 대형 화물선이 기항할 수 있는 정도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쌀 수출의 약 90%는 사이공 항구에서 또는 진행된 다. 상점 항구의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에 완공되면 사이공 항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화물을 수출입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호치민시 교외의 카이멧뿌, 찌바이 강 유역에서는 사이공 항구를 대신하여 해운 거점으로서 새로운 국제항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 수출 쌀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

베트남의 수출 쌀은 태국의 수출 쌀 등 비해 수분 함량이 많고, 파쇄 쌀의 혼합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품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출 가격을 보아도, 태국의 수출 쌀보다 20~30% 정도 저렴하다. 정부는 베트남 쌀의 품질 향상과 브랜드 확립을 목표로 장립종과 향기 쌀 등의 생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 쌀 생산 농가의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것, (나) 유통 단계에서 쌀이 섞이는 것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 (다) 농가, 집하업자, 정미업자 등의 자본력이 작은 업체를 위하여 충분한 기술 축적이 곤란한 것, (라) 식량 수출기업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것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트남 쌀이 쌀 수출에서 태국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지위를 확보 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이다. 현지 청취 조사에 따르면 수입업자에게 인도 가격을 100으로 했을 경우, 유통 단계 각각의 분할 값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그림 7. 수출 쌀의 각 단계별 비중(수출 가격=100)



자료: 현지 청취조사(2010년 11월 실시)를 기준으로 일본 종합연구소가 작성.

■ 쌀 수출에 대한 정부의 관여

① 수출 할당제

현재 베트남 정부는 쌀 수출에 대한 개입이 적다. 1986년 도이 모이 정책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사회주의체제의 계획경제 틀 속에서 쌀의 생산과 수출이 모두 국가계획위원회의 지령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수출 업무는 국영 수출입 무역회사가 담당하였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며, 또한 중요한 수출 상품이기 때문에, 도이 모이 정책 도입 이후에도 수출 쿼터제도가 채택되어 왔다. 1996년에 수출 취급업무가 지금까지의 허가제에서 보고제로 규제가 완화되었고, 1998년에는 민간 기업이나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수출 쿼터가 주어지게 되었다. 2001년에야 수출쿼터가 폐지되고 수출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9년에는 국내 쌀값을 국제 쌀 가격의 움직임에서 분리하여 낮은 가격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하여 수출 관세를 철폐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주로 수출 시장용으로 출하되었던 고품질 쌀이 국내시장에 유통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에 쌀 국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임시 조치로 수출할당제가 부활하였다.

② 수출보조금 제도

국제 농산물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베트남 정부는 농산물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1998년 수출보조금을 책정했다. 쌀 수출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보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2001년에는 특별 수출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2년에는 대상 품목이 증가하여 수출보조금 제도가 확충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보조금 제도는 베트남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철폐되었다.

③ 베트남 식량협회(VFA)를 통한 총량 규제 조치

베트남의 쌀 수출이 자유화되었지만 실제로 수출 규제는 남아있다. 정부는 베트남 식량협회(VFA)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출 총량을 규제하고 있다. 베트남 식량협회에 의한 수출 규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농촌개발부 (MARD), 상공부 (MOIT), 베트남 식량협회는 농가소득 확보와 식량 안정공급의 차원에서 쌀의 연간 수급계획과 쌀 수출물량을 책정한다. 베트남 음식 협회는 연간 수출목표량을 회원사에

배분한다. 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의 쌀 수출 전체의 98%를 회원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쌀을 수출하는 경우, 계약마다 베트남 식량협회에 신고 제출하여 수출 승인이 필요하다. 2011년 10월부터 쌀 수출은 적격 수출업체만이 수출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베트남 식량협회의 기본 업무가 바뀐 것이 아니다. 베트남 식량협회 회원기업의 대부분이 국영 식품공사의 북부 식품공사(Vinafood 1)와 남부 식품공사(Vinafood 2) 및 산하 국영기업이다. 정부 간 계약에서는 남북 식품공사에 우선적으로 수출 목표가 배분되고, 두 회사는 산하의 각성 수출회사에 재분배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 식량협회와 남북 식품공사가 정부의 쌀 수출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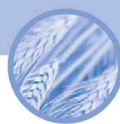
【참고 문헌】

- 農林水産省「平成21年度世界食料海外農業情報調査分析（アジア）」2010年3月.
 農林水産省「平成21年度世界食料需給動向等総合調査・分析関係業務『コメ等国际需給及び貿易に関する緊急調査分析事業』」2010年3月.
 岡江恭史[2007,2008,2009].『平成18' 19' 20年度カントリーレポート：ベトナム』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07年3月 2008年3月 2009年3月.
 重富真一・久保研介・塚田和也[2009].『アジア・コメ輸出大国と世界食料危機』アジア経済研究所 2009年.
 Agroinfo [2010]. “Vietnam’ s rice industry in 2009 and outlook for 2010” .



part 03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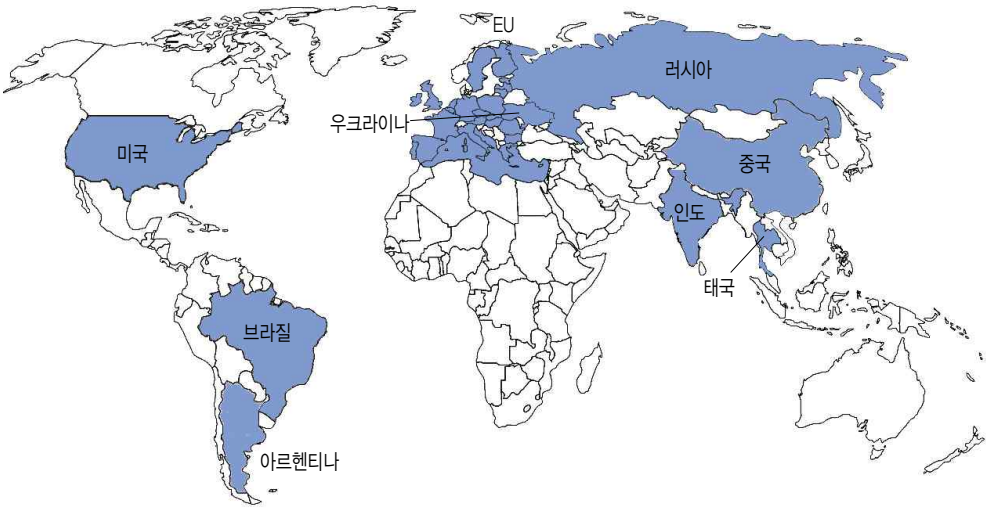
2012 World Grain Market



해외곡물시장 뉴스 / 107

품목별 주요 곡물 정책 / 124

해외곡물시장 뉴스



세계 12/13년도 세계 밀가루 교역량 전년대비 9.2% 감소 전망 10월 FAO 식량가격지수 전월보다 1% 하락 OECD, 인도네시아에 수입제한조치 개혁 권고 미국-브라질, 에탄올협력체제 구축	아메리카 미국 2013년 바이오디젤 의무사용량 상향 조정 겨울밀 작황 등급 39%로 사상 최저수준 브라질 브라질 남부지역, 호우로 밀 피해 Conab, 12/13년 대두 8,300만 톤 생산 전망 아르헨티나 2012/13년도 대두 재배면적 사상 최고치
아시아 중국 대두 자급률 20% 미만 2013년 곡물 TRQ 발표 하이브리드 옥수수 종자를 통한 자급률 제고 태국 쌀 수출물량 상한선 1,500만 톤 설정 인도 2013년 밀 풍작 전망	유럽 EU 기말재고량 30년 만의 최저 수준 바이오연료 규제법 초안 제정 러시아 밀 생산량, 공식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 예상 우크라이나 밀 수출금지조치 도입 가능

■ 2012/13년도 세계 밀가루 교역량 전년대비 9.2% 감소 전망

국제곡물이사회(IGC) 보고서에 따르면, 2012/13년도 세계 밀가루 교역량은 전년대비 124만 톤 감소한 1,231만 톤으로 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과 이라크의 2012/13년도 밀가루 수입량은 각각 150만 톤, 100만 톤으로 전년대비 4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가루 수출량이 가장 많은 카자흐스탄과 터키의 2012/13년도 밀가루 수출량은 밀 수확량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각각 20.0%, 8.2% 감소한 28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09/10~2012/13년도 세계 밀가루 교역량 전망

단위: 천 톤

국가	2009/10년	2010/11년	2011/12년(추정)	2012/13년(전망)
수출				
세계	12,685	11,920	13,550	12,310
아르헨티나	1,278	1,286	1,300	1,200
호주	150	100	100	100
캐나다	262	225	200	250
EU(TPA 제외)	1,245	1,155	1,300	1,300
카자흐스탄	3,514	2,526	3,500	2,800
러시아	381	570	450	300
우크라이나	165	122	200	200
미국	545	405	350	450
중국	388	417	400	400
일본	269	267	270	270
파키스탄	300	900	400	400
터키	2,602	2,356	3,050	2,800
UAE	550	500	950	800
기타	1,034	1,093	1,080	1,040
수입				
세계	12,685	11,920	13,550	12,310
유럽	68	80	60	80
CIS	2,239	2,450	2,920	2,440
북/중앙아메리카	618	610	630	650
남아메리카	1,298	1,290	1,250	1,310
동아시아	5,955	5,210	5,220	5,100
아프리카	1,872	1,700	2,400	2,000
오세아니아	67	70	70	90
기타	568	510	1,000	640

자료: IGC, Market Focus, GMR 425, August 23, 2012

■ 2012년 10월 FAO 식량가격지수 전월보다 1% 하락

2012년 10월 FAO 식량가격지수는 213p로서 지난달보다 2p(-1.0%) 하락하였다. 이는 유제품과 설탕가격이 지난달보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곡물 및 유지류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1~10월까지 평균 식량가격지수는 212p로 전년 동기 대비 8%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곡물과 유지류가 각각 1.2%, 8.0% 하락한 반면 유제품과 설탕이 각각 3.0%, 1.6% 상승하였다. 한편, 육류는 9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10월 FAO 곡물가격지수는 밀과 옥수수 가격이 소폭 하락하여 지난달보다 3p(-1.2%) 하락한 259p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2% 높은 수준이지만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4월의 274p보다는 15p(-5.4%) 낮은 수준이다. 밀 가격은 교역량 감소로 인해 하락하였고 옥수수 가격은 사료용 및 산업용 옥수수 수요 감소로 인해 하락하였다. 반면 쌀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10월 FAO 유지류가격지수는 206p로 지난달보다 18p(-8.0%) 하락하여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유지류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동남아시아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는 팜유의 국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0월 FAO 육류가격지수는 지난달과 동일한 174p를 기록하였다. 육류가격은 수입 수요 부진이 사료가격의 상승을 제한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올해 1~10월까지 평균 육류가격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10월 FAO 유제품가격지수는 194p로서 지난달보다 6p(+3.0%) 상승하였다. 공급량과 재고량의 일시적인 부족, 국제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 모든 유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특히 탈지분유 및 카제인(casein), 전지분유, 치즈는 각각 2.3%, 3.3%, 4% 상승하였다. 하지만 올해 1~10월까지 평균 유제품가격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크게 하락하였다.

10월 FAO 설탕가격지수는 지난달보다 4.5p(+1.6%) 상승한 288p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전년 동기대비 73p(+20.2%) 하락한 수준이다. 최근 설탕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세계 최대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단기적으로 수출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990~2012년 FAO 식량가격지수(2002-2004=100)

시기	식량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1990	105.4	97.7	74.0	124.0	74.8	178.1
1991	103.6	97.1	79.1	125.4	79.6	127.2
1992	108.5	102.5	84.3	125.2	95.4	128.5
1993	104.6	99.5	86.0	118.1	84.6	142.2
1994	110.6	104.5	113.4	115.0	82.3	171.8
1995	123.2	119.3	125.0	118.4	109.6	188.5
1996	129.1	140.8	111.2	128.4	109.4	169.7
1997	118.5	112.4	112.5	123.2	105.1	161.4
1998	107.1	99.9	129.9	103.2	99.1	126.6
1999	92.4	90.6	91.6	97.8	86.3	89.0
2000	90.4	85.2	67.8	95.8	95.4	116.1
2001	93.4	86.5	67.6	96.5	107.1	122.6
2002	89.9	94.4	87.0	89.5	82.2	97.8
2003	97.7	98.1	100.8	96.8	95.1	100.6
2004	112.4	107.5	112.2	113.7	122.6	101.7
2005	117.3	103.5	103.6	120.1	135.4	140.3
2006	126.7	121.7	112.5	118.5	128.0	209.6
2007	158.7	166.9	170.0	125.1	212.4	143.0
2008	199.8	237.8	227.2	153.2	219.6	181.6
2009	156.9	173.7	150.9	132.9	141.6	257.3
2010	185.3	182.6	194.2	152.2	200.4	302.0
2011	227.6	246.8	252.3	176.6	220.5	368.9
2012/1	212.8	222.7	233.7	174.2	206.8	334.3
2012/2	215.6	226.3	238.7	178.1	202.0	342.3
2012/3	216.0	227.8	244.9	178.0	197.0	341.9
2012/4	213.0	223.3	251.0	179.6	185.6	324.0
2012/5	204.7	221.3	233.8	175.0	176.1	294.6
2012/6	200.4	222.1	220.7	169.5	173.4	290.4
2012/7	212.9	260.2	226.1	166.8	172.9	324.3
2012/8	212.5	259.9	226.0	170.5	175.6	296.2
2012/9	215.5	262.6	224.7	174.2	187.7	283.7
2012/10	213.5	259.4	206.4	174.3	194.0	288.2

자료: <http://www.fao.org>

■ OECD, 인도네시아에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 및 수입제한조치 개혁 권고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설탕 수입국이자 아시아 1위의 밀 수입국이지만 설탕, 밀, 쌀, 대두 등과 같은 식량에 대해 수입제한조치 및 관세를 설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 이익집단은 국내 제분산업 보호를 위해 밀가루 수입관세를 20%로 설정하라고 정부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0월 OECD는 인도네시아가 농업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 및 수입제한조치를 개혁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인도네시아의 수입보호조치가 농업의 경쟁력, 생산성, 성장률을 저해하고 빈곤층의 식량비용을 가중시킨다고 하였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인도네시아가 IMF 차관조건으로 도입했던 농업정책들은 현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즉, 당시 인도네시아의 국영구매기업인 불록(Bulog)의 수입 독점을 철폐하였으나 현재 독점제가 부활하였고, 관세를 줄였으나 현재 오히려 늘어났으며, 비료 보조금제도도 현재 재개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대두와 옥수수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농촌 빈곤층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는 국영구매기업인 불록(Bulog)의 역할을 확장하여 식량 재고량 증가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OECD는 이러한 조치가 식량가격 파동에 대응하여 긴급 구제를 위한 식량 재고를 확보하겠지만 시장 관리는 값비싼 비용만 치를 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2014년까지 쇠고기, 쌀, 옥수수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OECD는 정책의 초점이 잘못 맞추어졌음을 지적하고 식량을 쌀 이외의 다른 농산물로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OECD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빈곤층에게 쌀을 지급하는 대신 현금을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주요 식량인 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OECD 농업정책분석가인 Andrzej Kwiecinski는 “직접소득보전을 시행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더 낫다. 인도네시아는 쌀 소비자와 쌀 생산농가를 동시에 지원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농가가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미국-브라질, 에탄올협력체제 구축

세계 에탄올의 85%를 생산하는 미국과 브라질이 에탄올 소비 증진을 위해 에탄올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현재 에탄올산업은 옥수수 생산량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바이오연료의 환경적 기여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여 미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미국과 브라질의 에탄올협조체제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더 걸리겠지만, 침체된 에탄올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미국 정부는 수년간 에탄올 생산국 간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던 수입 바이오연료에 대한 높은 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미국과 브라질은 아프리카와 남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바이오연료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가 유입되도록 공동 노력해왔으며 바이오연료에 대한 국제기준 설정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과 브라질은 중미, 카리브해 연안, 아프리카지역에서 에탄올을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 국무부와 에너지국, 브라질의 관료들은 다른 국가들에게 에탄올의 이득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이오와 주지사는 “아이오와 주에서 에탄올은 옥수수 생산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원유의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에탄올은 엄청난 이득이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미국과 브라질의 노력에 힘입어, 2013년 초 온두라스부터 시작하여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 바이오연료를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시범적 에탄올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과 브라질은 전 세계적으로 에탄올이 원유처럼 교역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되는 에탄올 선물계약은 미국산 옥수수를 원료로 한 것이 유일하다. 따라서 브라질산 에탄올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은 증개인을 통하거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모두 가격에 비용으로 추가된다. 또한 브라질은 미국보다 높은 에탄올 순도를 요구하고 있다. 에탄올 순도의 국제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계 공용의 플렉스차량(flex-fuel: 에탄올이나 휘발유 중 연료를 택일할 수 있는 차량)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에탄올 국제기준에 대한 논의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이 논의의 중심은 유럽으로 이동했다.

■ 미국의 겨울밀 작황 등급 39%로 사상 최저 수준

지난 11월 4일 발표된 USDA 주간 작황보고서(Crop Progress)에 따르면, 미국의

겨울밀 생육 상황은 ‘좋은-아주 좋음(good-excellent)’등급이 39%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주대비 1%p 감소하고 전년 동기대비 10%p 감소한 수준으로 미국 대평원 남부의 건조 기후로 밀 작황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현재 겨울철 동면기를 앞두고 있는 겨울밀은 토양이 매우 건조하여 입묘(立苗)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밀 생산이 가장 많은 캔자스 주의 겨울밀 생육 상황은 ‘좋은-아주 좋음(good-excellent)’등급이 37%로 전년 동기대비 8%p 하락하였다.

기상학자 Joel Widenor에 따르면, 미국 대평원 밀벨트지역은 향후 2주간 가뭄이 해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미국의 겨울밀 생육 상황(11월 4일 기준)

단위: %

구 분	아주 나쁨	나쁨	보통	좋음	아주 좋음
아칸소주	5	2	38	46	9
캘리포니아주	-	-	30	35	35
콜로라도주	6	22	45	26	1
아이다호주	1	2	30	61	6
일리노이주	-	1	21	74	4
인디애나주	-	3	25	58	14
캔자스주	3	10	50	35	2
미시간주	-	2	27	60	11
미주리주	-	3	43	48	6
몬테나주	4	10	56	28	2
네브래스카주	19	30	38	12	1
노스캐롤라이나주	-	-	23	68	9
오하이오주	-	2	29	54	15
오클라호마주	6	24	49	20	1
오리건주	1	3	38	54	4
사우스다코타주	17	35	44	4	-
텍사스주	5	19	42	30	4
워싱턴주	-	1	24	70	5
현재(18개주 평균)	5	14	42	35	4
전주	4	11	45	36	4
전년	6	9	36	42	7

자료: USDA, Crop Progress, November 4, 2012

■ 미국, 바이오디젤 의무사용량 12억 8,000만 갤런으로 상향 조정

2013년도 미국연료시장에서 바이오디젤은 12억 8,000만 갤런의 소비를 보장받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의무소비량의 완만한 증가'라고 지칭하며, 바이오디젤 의무사용정책이 바이오연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되 디젤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환경보전국(EPA)은 바이오연료의 의무사용을 제정한 연방법 덕분에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미국의 바이오연료 생산량은 2010년 생산량이었던 4억 갤런에서 대폭 증가한 10억 7,000만 갤런으로, 2011년 의무사용량이었던 8억 갤런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한편 2012년 바이오디젤 의무사용량은 10억 갤런이다. EPA는 2011년 7월부터 의무사용량을 12억 8,000만 갤런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미국 바이오연료 제조시설은 이 정도 용량을 생산하기에 충분하다고 한다.

EPA의 추정에 의하면, 만일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이 12억 8,000만 갤런의 의무소비량을 생산하는데 원료로 대두유만을 사용할 경우, 대두유 가격은 파운드당 3센트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 브라질 남부, 호우로 밀 피해

지난 10월, 브라질 남부에 호우가 내려 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주산지인 리오그란데 도 술은 수확을 앞두고 생산량의 약 1/3 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브라질 농업부 산하의 농산물공급공사(Conab)는 10월 초 2012/13년도 브라질 밀 생산량은 전년대비 580만 톤 감소한 500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수출량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125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브라질 리오그란데 도 술과 빠라냐 일부지역에는 10월 한달 동안 평균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브라질 최대의 대두 주산지인 마토그로소의 경우, 대두 파종을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서양의 수온이 따뜻하여 태풍이 마토그로소 남부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 브라질 Conab, 2012/13년도 대두 8,300만 톤 생산 전망

지난 11월, 브라질 농업부 산하의 농산물공급공사(Conab) 발표에 따르면, 2012/13

년도 브라질 대두 생산량은 최고 8,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달 전망치인 8,280만 톤과 2011/12년도의 6,640만 톤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후 3개월간 강수가 대두 파종 및 농작물 생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 마토그로소(Mato Grosso)의 대두 재배면적은 예상면적의 80%에 달하였으며 빼라나는 70% 이상의 지역에서 이미 대두 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예상된다. 리오그란데 도 술(Rio Grande do Sul)의 대두 재배면적은 예상면적의 약 40%에 달한다.

2012년 대두유와 대두박 생산량은 약 3,825만 톤이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을 고려한다면, 브라질 대두(신곡)의 대부분은 이미 판매가 완료되어 브라질의 2012/13년도 대두 수출량은 약 3,625만 톤에 이를 것이다.

2012/13년도 브라질 대두 생산 전망

지역	면적(천 ha)			단수(kg/ha)		생산량(천 톤)		
	2011/12	2012/13		2011/12	2012/13	2011/12	2012/13	
		최저	최고				최저	최고
북부지역	717.6	720.5	724.8	3,027	3,041	2,172.2	2,190.9	2,204.6
동북부지역	2117.1	2,250.7	2,347.6	2,880	2,969	6,096.3	6,682	6,970.7
중서부지역	11,495.2	12,370.3	12,854.3	3,036	3,088	34,904.8	38,192.4	39,688.6
MT	6,980.5	7,469.1	7,818.2	3,130	3,100	21,849	23,154.2	24,236.4
GO	2,644.7	2,829.8	29,09.2	3,120	3,100	8,251.5	8,772.4	9,018.5
서남부지역	1,606.2	1681.1	1,730	2,899	2,928	4,656.3	4,922.2	5,065.4
남부지역	9,106.1	9,408	9,725.8	2,037	2,988	18,553.4	28,101.3	29,062.9
PR	4,460.6	4,549.8	4,728.2	2,453	3,250	10,941.9	14,786.9	15,366.7
RS	4,197.2	4,365.1	4,491	1,555	2,700	6,526.6	11,785.8	12,125.7
합계	25,042.2	26,430.6	27,382.5	2,651	3,031	66,383	8,008.8	8,299.2

주: 브라질의 대두 주산지는 MT(마토그로소), GO(고이아스), PR(파라나), RS(리오그란데 도 술)임.

자료: BRIC, 「2012/13년도 브라질 Conab 제2기 대두 재배 조사 보고서」

2012/13년도 브라질 대두 재배 시기

구 분			중남부		동북부	
			재배	수확	재배	수확
겨울	7월	상순				
		하순				
	8월	상순				
		하순				
	9월	상순				
		하순				
봄	10월	상순				
		하순				
	11월	상순				
		하순				
	12월	상순				
		하순				
여름	1월	상순				
		하순				
	2월	상순				
		하순				
	3월	상순				
		하순				
가을	4월	상순				
		하순				
	5월	상순				
		하순				
	6월	상순				
		하순				

자료: BRIC, 「2012/13년도 브라질 Conab 제2기 대두 재배 조사 보고서」

■ 아르헨티나, 2012/13년도 대두 재배면적 1,970만 ha로 사상 최고치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에 따르면 2012/13년도 아르헨티나 대두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4.5% 증가하여 사상 최고 수준인 1,970만 ha로 전망된다. 한편, 2012/13년도 옥수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340만 ha로 전망되는데, 이는 생산농가들이 옥수수 대신 대두를 파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가 발간한 ‘대두 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대두

재배수익이 옥수수보다 높기 때문에 생산농가들이 옥수수를 대체하여 대두를 파종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한다. 또한 대두는 국제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옥수와 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출규제가 덜한 편이다.

■ 중국, 대두 자급률 20% 미만

대두는 중국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곡물로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두와 식물유 수입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대두 수입은 5,480만 톤, 2011년 5,264만 톤, 2012년엔 5,5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두 생산량 약 1,500만 톤을 합하면 올해 중국의 대두 생산량과 수입량은 총 7,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두 자급률은 이미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만약 경지면적 증가를 통해 대두와 유지작물의 수입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 5,500만 톤의 대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3,000만 ha의 경지면적(현재의 대두 단수 127kg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700만 톤의 식물유 국내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100만 ha의 경지면적(유채유 단수 42.5kg 기준)이 필요하다. 이는 4,000~4,700만 ha의 해외 재배면적이 있어야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생산성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중국의 파종면적 부족분은 20%에 달하며 이는 중국 정부가 1억 2,000만 ha를 경지면적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이자 농경지 수리시설 강화와 농업기술의 진보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전반적인 식량공급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2010년 9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장평(張平)은 ‘국가 식량안보상황 보고’에서 현재 중국의 식량 안보는 5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2020년 중국의 식량 수요는 5억 7,2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식량자급률을 95%라고 가정할 때 2020년 중국의 식량종합생산능력은 5억 4,000만 톤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2013년 곡물 TRQ 발표

중국 정부는 2013년 밀, 옥수수, 쌀, 면화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2012년과 동일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밀의 TRQ 물량은 963만 6,000톤으로 이 중 국영무역의 비율은 90% 이다. 옥수수의 TRQ 물량은 720만 톤

으로 이 중 국영무역의 비율은 60% 이다. 쌀의 TRQ 물량은 532만 톤으로 이 중 국영 무역의 비율은 50%이고, 면화는 89만 4,000톤으로 국영무역의 비율은 33%이다.

수입업자는 반드시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TRQ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3년 1월 1일까지 발전개혁위원회는 허가기업에게 할당량을 통지한다.

■ 중국, 하이브리드 옥수수 종자 보급을 통해 자급률 향상 도모

중국은 세계 2위의 옥수수 소비국이자 생산국으로 옥수수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옥수수 종자 재배를 허가하였다. 신규 하이브리드 종자를 통하여 이미 중국 북동부지역의 일부 생산농가에서는 중국 옥수수 단수인 5톤/ha의 2배에 달하는 단수를 달성하였으며, 흑룡강성의 생산농가들은 일찍 성숙하는 하이브리드 종자 덕분에 옥수수 재배면적을 북쪽으로 확장했다.

글로벌 종자기업인 몬산토(Monsanto), 듀폰트(Dupont), 신젠타(Syngenta)는 중국과 합자법인을 통해 가뭄, 해충, 잡초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기계 수확 및 집약적 파종을 견딜 정도로 뿌리와 줄기가 강한 하이브리드 종자를 출시할 계획이다. 병해 및 잡초 관리가 용이해지면 재배비용의 1/5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단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듀폰트의 하이브리드 종자인 'Xianyu 335'는 다른 하이브리드 종자에 비해 파종을 일찍 하고 생산량이 10~20% 더 많다. 하이브리드 종자 'Yunrui 8'은 옥수수 이삭썩음병(ear rot)과 저장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있고, 가뭄에서도 잘 자라며 단수는 7.5톤/ha이다. 'Yunrui 47'은 고밀도 파종시 단수가 14톤/ha까지 증가한다.

일부 종자기업들은 종자 발아율을 95%까지 보장하므로 이같은 하이브리드 종자를 파종하면 파종작업이 현대화된다. 즉, 생산농가들은 더 이상 한 구멍에 종자 2~3개를 심을 필요가 없게 된다.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식밀도는 5년 전에 비해 50% 증가하여 ha당 6만 개체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국 수준인 ha당 8만 개체에 비해서는 뒤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종자는 비료 소비량의 감소, 수자원 효율성의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특히 수분이 부족한 중국 북동부에 중요한 문제이다. 워싱턴에 소재한 세계자연연구소의 Aqueduct Water Risk Atlas에 의하면, 2025년까지 중국 북동부의 많은 지역이 물부족문제를 심각하게 겪을 것이라고 한다.

■ 태국, 쌀 수매물량 상한선 1,500만 톤 설정

2011년 10월 이후, 태국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여 수백 만 명의 빈곤층 농민들을 지원해왔으나, 이 정책은 태국 쌀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켜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인 태국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는 충분한 쌀 생산량을 바탕으로 대폭 낮은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이 기회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

태국은 경쟁력 없는 높은 쌀 가격으로 인해 재고량이 1,200만 톤까지 증가하여 처분에도 문제가 생겨 태국 정부는 쌀 수매물량 상한선을 1,500만 톤으로 설정하였다. 태국 상업부 사무차관 Vachari Vimooktayon에 따르면, 태국은 주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쌀(조곡) 1,500만 톤을 구매하고, 2기작이 수확되는 3월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쌀 수매제도는 10월부터 1기작 쌀에 대해 시행될 것이며, 이는 1/4분기 수확기 동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하지만 태국 쌀 수매제도의 개정은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는 이미 베트남과 인도 같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쌀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이다.

■ 2013년 인도의 밀 풍작 전망

2013년 인도의 밀 생산이 풍작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어 인도는 6년 연속 밀 생산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계절풍과 강우의 영향으로 토양습도가 충분히 보충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 인도의 밀 생산량은 9,39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연간 밀 수요는 7,600만 톤까지 증가하였다. 인도의 연이은 식량 풍작은 재고량을 대폭 증가시켜 10월 말까지 인도 정부의 밀 재고량은 4,058만 톤이다. 이러한 재고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인도 정부는 작년 9월부터 밀 수출금지령을 해제하였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최근 인도는 밀가루 가공업자 등 대형 소비자에게 650만 톤의 국가비축 밀을 판매하여 국내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방대한 양의 재고를 감축하고자 하였지만, 국내 재고는 여전히 방대하다. 국제식품정책연구소의 P.K.Joshi에 따르면, 만약 인도의 밀이 또 다시 풍작을 이룬다면 인도 정부는 밀 수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요 밀 생산국들의 밀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2013년 인도의 밀 수출은 전 세계 공급 부족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 세계적인 이상 고온 및 가뭄으로 흑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밀 생산량이 감소하여 밀 생산이 1/3로 줄어들었다.

2012년 러시아의 밀 생산량 또한 정부 예측치보다 약 6%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의 가뭄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밀 생육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호주도 밀 단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방대한 밀 재고량으로 인하여 식량보조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인도 정부는 2013년 밀 수매가격을 상향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인도 정부가 밀 수매가격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 EU, 바이오연료 규제법 초안 제정

EU는 곡물을 원료로 한 바이오연료가 예상보다 환경친화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식량 공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을 규제할 계획이다. 바이오연료 규제법 초안에는 현재 법안의 효력이 만기되는 2020년 이후 곡물을 원료로 한 바이오연료에 대한 모든 공적보조금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이후 바이오연료가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불하며 식용 및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곡물을 원료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재 연간 170억 유로(약 217억 달러) 규모로 평가받고 있는 유럽의 곡물 원료 바이오연료 산업이 침체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규제법이 추진된 주요 원인은 연구 결과, 곡물을 원료로 한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의심스러운데다가 곡물 주산지들의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급등하고 식량부족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EU는 2020년까지 육로운송용 연료 중 재생 가능한 연료의 사용 비율을 10%로 설정했었고 이 재생 가능한 연료는 대부분 곡물을 원료로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규제법 초안에 따르면, 2020년 EU 운송 부문에서 유채와 밀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의 사용은 총 에너지소비량 중 최대 5%로 제한된다. ICCT(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은 EU의 바이오연료정책으로 온실가스가 절감되는 경우는 에탄올이 유일하고 곡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은 일반 디젤보다 탄소배출량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 EU의 기말재고량 30년 만의 최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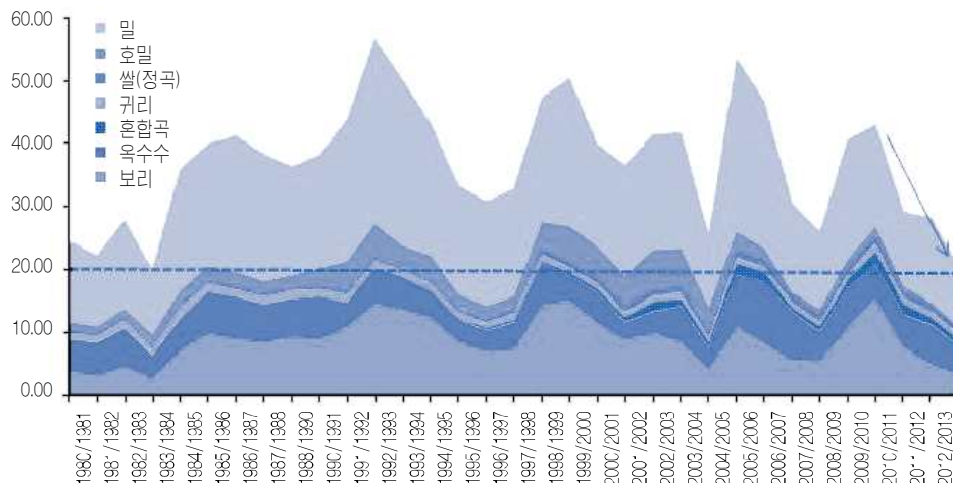
지난 몇 개월 동안 EU의 곡물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다. 올해 EU의 옥수수, 밀 재고

량은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유럽 일부지역의 2011/12년도 생산량 감소도 이 같은 재고량 감소에 영향을 주었으며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도 재고량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신용시장 경색 및 불확실한 경기 상황으로 인해 보리, 옥수수, 호밀의 총 수입량이 전년대비 약 50% 감소했고 밀 수입량도 약 25%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기말재고량은 30년 만의 최저수준이며, 기말재고율도 급락하고 있다.

가뭄으로 흑해연안지역의 작황이 피해를 입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밀 수출국인 호주의 작황 역시 강수량 부족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EU의 밀 수출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수 개월간 제기되어 왔었다. EU의 밀 수출량 증가와 재고량 부족 사태는 거시적 정치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이 지역의 밀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유럽인들이 밀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구매자들과 경쟁을 벌일 경우 유럽산 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밀 수요는 재고량이 충분한 미국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중동지역까지의 운임이 유럽에 비해 높으며 미국산 밀 가격이 유럽산 밀에 비해 프리미엄이 부과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EU의 밀 가격이 미국 가격 수준으로 급등한다 할지라도 중동 구매자들은 유럽산 밀을 가능한 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유럽의 곡물 공급량 부족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연말까지 유럽 전지역에서 곡물가격 파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세계의 주요 밀 수

EU의 곡물 재고량 추이

단위: 백만 톤



자료: Thomson Reuters

입국인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들은 유럽의 재고량 고갈 이전에 연말까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 밀 생산량, 공식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 예상

흑해연안지역 국가들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통상적으로 전 세계 밀의 10%를 생산한다. 그러나 올해 가뭄으로 인해 이 국가들의 곡물생산량의 1/3이 감소했다. 러시아 농업부는 전체 곡물생산량이 7,170만 톤, 밀 생산량이 4,0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는 러시아가 심한 가뭄으로 생산량의 1/3이 감소하여 1년 간 곡물 수출금지조치를 취했었던 2010년의 밀 생산량인 4,150만 톤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곡물 생산량은 공식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KAR(Institute for Agricultural Market Studies)는 러시아 밀 생산량을 이전 추정치인 4,000만 톤에서 3,710~3,760만 톤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SovEcon은 러시아 밀 생산량을 전년(5,620만 톤)대비 33% 낮은 수준인 3,750만 톤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전체 곡물생산량 전망치 역시 전년(9,540만 톤)대비 28% 낮은 수준인 6,900만 톤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USDA 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이며 2003/0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 우크라이나, 밀 수출금지조치 도입 가능

가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은 전년의 2/3 수준이었고, 수출제한조치가 취해질 것을 우려한 수출업자들이 선적을 서둘렀기 때문에 밀 공급량이 급격한 속도로 감소했었다.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높은 수출속도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수출가능물량이 11월 15일~20일 사이에 모두 소진될 것이므로 수출업자들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데 심사숙고해 달라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하면 월간 밀 수출량이 전년동기의 2배나 되는 130만 톤/월이라고 한다. 10월 20일 정부는 수출업자들이 정부와 합의한 연간 500만 톤을 초과하는 540만 톤에 해당하는 수출계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10월 18일 기준 곡물 710만 톤을 수출했고, 이 중 밀은 357만 톤, 보리는 144만 톤, 옥수수는 201만 톤을 차지한다.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은 높은 수출속도로 인해 국내 빵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제한조치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러한 발언이 있은 후 미국과 유럽의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 이상 상승했다. 우크라이나 수출업자들은 우크라이나 농업부가 11월 15일부터 밀 수출금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여 세계 밀 가격을 더 상승시켰다. 11월 21일~30일 선적될 우크라이나산 밀 5만 5,000톤을 구매한(9월 중순 계약 체결) 이집트 국영수입기관(GASC)은 이 같은 밀 수출금지조치로 인해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처했다.

품목별 주요 곡물 정책

품목별 주요 곡물 정책은 2012년 11월 FAO에서 발표한 「Food Outlook」에서 발췌한 내용으로서 2012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발표된 곡물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Food Outlook」은 세계 식량 및 사료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연 2회 발간되는 식량전망보고서로서 쌀, 밀, 옥수수, 대두와 같은 주요 곡물과 기타 농산물에 관한 수급 상황, 가격, 특집기사, 통계 등이 수록되어 있다.

■ 쌀

국 가	정 책	설 명
방글라데시	정부 구매	보로(Boro: 10~11월 파종하여 3~4월 수확) 쌀 90만 톤과 보로 벼 15만 톤을 각각 톤당 338달러(kg당 28타카), 217달러(18타카)에 2012년 5월 3일~9월 30일 사이 구매하기로 목표를 설정함.
	수출 금지	2008년 이래 지속되었던 향미쌀 수출금지조치를 해제함.
	수출 금지	2013년 6월까지 비(非)향미쌀 수출금지조치 갱신
부룬디	수입관세	동아프리카지역의 공동관세체제 하 쌀 수입관세 75%를 6개월간 유예함.
중국	수입쿼터	2013년 TRQ(532만 톤)를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함.
대만	생산 보조	태풍 탈림(Talim)으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금융 지원 및 피해 농작물 구매지원을 확대함.
콜롬비아	수입쿼터	안데스공동시장에서 2012년 6월 15일까지 인도될 벼 3만5,000톤의 수입을 허가함.
코스타리카	최저보장가격	법원이 쌀 생산농가에 유리하게 판결하여 피해 보상을 명령함. 기술적 요인에 근거하여 생산자수취가격을 고정했을 뿐만 아니라 톤당 614달러로 생산자가격을 상향 조정함.
쿠바	생산 보조	2016년까지 쌀산업에 기계설비 구입, 종자 생산 증대, 저장 및 가공시설 개선을 위해 4억 5,000만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발표함.
코트디부아르	소비자가격	쌀 품종 및 원산지에 따라 수입쌀 최고가격을 톤당 585~881달러(kg당 FCFA 297~447)로 정함.
	수입협정	쌀 24만 톤 구매에 대해 태국과 정부간 협의를 도출함.
	수입관세	수입관세 및 쌀에 부과되는 세금을 3개월간 유예함.
	생산 보조	2015년까지 현지 쌀 및 코코아 산업에 39억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발표함. 투자금은 단수 향상, 기간시설 복원, 투입재 배분에 쓰일 예정임.
에콰도르	최저보장가격	생산자수취가격 최저수준 7% 증가한 톤당 367달러로 상향 조정함.
이집트	수출 금지	2012년 10월 1일부터 정곡 수출금지조치를 해제하고 톤당 161달러(1,000파운드)의 수출세를 부과함.
	정부 구매	국내시장에서 벼 50만 톤 구매를 위해 1억 6,100만 달러(10억 파운드)를 배정하고 벼 구매가격은 톤당 322~330달러(2,000~2,050파운드)로 상향 조정함.

국 가	정 책	설 명
	생산 제한	2011년과 2012년, 쌀재배 제한을 초과한 농가에 부과되었던 벌금이 취소될 것이며, 1,600달러(1만 파운드) 이하의 농가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발표됨.
가나	최저보장가격	2012/13년 최저보장가격을 25% 상승한 조곡 톤당 307달러(85kg부대 기준 Cedi 50)로 상향 조정함.
자메이카	생산 목표	연간 쌀 수입량의 15%를 국내 생산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쌀 개발 프로그램을 발표함.
인도	식량 보조	빈곤선 이하 가계에게 공공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곡물 보조 600만 톤의 추가 할당을 허가함. 12개주의 가장 빈곤한 구역 역시 곡물 154만 톤의 추가 할당을 받게 되나 수도주 및 연방직할령은 6개월분의 곡물할당량을 한꺼번에 배분받을 수 있음.
	최저보장가격	일반 품종에 대한 최저지원가격의 16% 상승한 톤당 236달러(12,500루피)로 상향 조정하며, A급 벼에 대해서는 톤당 242달러(12,800루피)로 상향 조정함.
	식량 보조	빈곤선 이하 가계에게 공공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곡물보조 500만 톤의 추가 할당을 허가하고, 이는 2013년 3월까지 유효함.
	생산 보조	가뭄피해지역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디젤보조정책 및 종자보조 개선책을 도입함. 2012년 9월 30일까지 피해농가에게 동력용 디젤비용의 50%를 보조하고, 종자보조금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함. 곡물 종자 보조의 경우 40%를 상향 조정하여 키톤당 13달러(700루피), 두류 및 유지작물의 경우 67% 상향 조정하여 키톤당 38달러(2,000루피), 잡곡의 경우 25% 상향 조정하여 키톤당 19달러(1,000루피)가 보조금 상한선으로 책정됨.
나이지리아	생산 보조	"녹색혁명을 동인도에(Bringing the Green Revolution to Eastern India)"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부 7개주에서 쌀 개발을 민영화할 것이라고 공고함. 북부 편잡(Punjab) 및 하리아나(Haryana)에서는 지하수 고갈 및 토양 침식에 대한 우려로 대체작물 재배를 독려함.
	관세평가	2012년 3/4~4/4분기, 관세평가 기준가격을 톤당 699달러로 적용되도록 설정함.
	수입관세	2013년 1월 1일부터 수입 현미/도정미/반도정미는 10% 관세와 100% 부담금 대상이 됨.
	생산 보조	홍수 복구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가 작물을 재파종할 수 있도록 종자를 배포함.
페루	생산 보조	국립식량보조프로그램을 통해 주산지의 영세농가로부터 수확기에 2만 톤의 쌀 구매, 쌀 수출 촉진, 농가 부채 경감, 수확 및 유통 보조 등 계획을 발표함.
라오스	최저보장가격	참쌀 최저가격을 도입함. 2012/13년 국영단체 및 민간에 판매 시, 참쌀 농가수취가격은 톤당 300~360달러(kg당2,500~3,000kip)가 될 것임. 품질이 나쁠 경우,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이 가능함.
대한민국	수입 제한	미국산 쌀의 비소함량에 대한 우려로 일시적 수입 및 판매중단조치를 단행함.
	수입 제한	미국산 쌀의 비소함량 검사를 통해 건강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뒤 수입 및 판매중단조치를 해제함.
케냐	수입관세	동아프리카지역의 공동관세체제 하, 75%의 쌀 수입관세를 추가 1년간 낮춤. 모든 원산지로부터 쌀 관세 35% 또는 톤당 200달러로 설정함.

국 가	정 책	설 명
인도네시아	수입협정	베트남과 수입협정을 갱신하여 인도네시아가 2017년까지 정부간 구매로 매년 쌀 150만 톤까지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됨.
	생산 보조	가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보상하기 위해 2,000만 달러(1,990억 루피아)의 예산이 할당됨.
말레이시아	예산 배정, 생산 보조	2013년 예산 배정의 일환으로 사바(Sabah), 사라왁(Sarawak), 파항(Pahang) 지역에 4,600만 달러(1억 4,000만 링깃)의 비용을 들여 4개의 곡물저장고(총 1만 9,000ha에 해당)의 신규 건설을 결정함. 농지가 10ha 미만인 영세자영농 17만 2,000명에 대한 보험정책을 도입함. 최저보장가격, 비료/종자보조금 등 생산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되며 7억 8,300만 달러(24억 링깃)의 예산이 배정됨.
말레이시아/ 호주	무역협정	말레이시아-호주 FTA를 체결하여 2013년 1월부터 발효됨. 호주산 제품은 포괄허가제로 수입되며 2023년부터 누구나 쌀 수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2023년부터 말레이시아는 호주산 쌀 수입에 대해 30%의 양허관세를 도입하고 2026년까지 매년 관세수준을 낮추어 무관세화를 추진함.
필리핀	수입쿼터	쌀 수량제한 연장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어, 최소시장접근물량인 35만 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할당초과물량 관세율인 50%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공식 발표함.
르완다	수입쿼터	동아프리카지역의 공동관세체제 하, 75%의 쌀 수입관세를 1년 간 낮춤. 모든 원산지로부터 쌀 관세 35% 또는 톤당 200달러로 설정함.
세네갈	소비자가격	기업과 논의 후 권장소비자가격을 일반미에 대해 톤당 552달러(kg당 FCFA280), 향미에 대해 톤당 857달러(kg당 FCFA435)로 설정함.
스리랑카	수출 제한	국내 공급량 확보를 위해 2013년 신곡이 국내시장에 유통될 때까지 쌀과 벼의 수출금지를 발표함. 후속공식성명에 의하면 특수미 등 일부상품의 수출은 허가될 것이나 최저수출가격이 설정될 것임.
말리	수입관세, 소비자가격	8월까지 쌀에 대한 부가세 및 수입관세의 유예를 연장하고 쌀 최고가격을 도매가 톤당 621달러(kg당 FCFA315), 소매가 톤당 670달러(kg당 FCFA340)로 하향 조정함.
미얀마	재고 방출	전국적인 홍수 피해 후, 국내 시장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재고에서 방출함.
네팔	수출금지	2008년부터 시행했던 쌀 수출금지조치를 해제함.
탄자니아	정부 구매, 최저보장가격	쌀 구매제도를 2012/13 양곡연도까지 연장하기 위해 예산 77억 달러(2,400만 바트)를 승인함.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벼 1,500만 톤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시함. 생산농가는 물량 제한없이 벼 톤당 446~646달러(13,800~20,000 바트)의 구매가격을 받음.
베트남	생산 보조, 농지 보존	쌀 재배지역의 다른 용도 전환을 저지하는 조치를 도입함. 용도 전환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함.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하며 이 조항에는 논 ha당 매년 25달러(50만동)의 금융지원이 연장되고, 비료 비용의 50~70%가 보조되며, 작황이 자연 재해 및 병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기타 투입비용이 보조된다는 내용이 포함됨. 또한 쌀 재배목적을 위한 간척, 농지 복구에 대한 금융지원도 포함됨.
	정부 구매	수확기 국내가격지원을 위해 수출공사가 7월 10일~8월 10일 사이 여름-가을벼 50만 톤을 구매할 것임이 발표됨.
	최저수출가격	5%쇄립 수출최저가격이 톤당 460달러, 25%쇄립 수출최저가격은 톤당 435달러로 상향 조정됨.

■ 밀

국 가	정 책	설 명
알제리	수입 금지	국내 생산량 및 재고량의 증가로 2012년 말까지 듀럼밀, 보리의 수입금지조치를 시행함.
아르헨티나	수출할당	수출할당량을 100만 톤 증량하여 2012/13년 500만 톤이 됨.
흑해연안지역	선물시장	시카고상업거래소그룹(CME)이 흑해연안지역의 밀 선물계약을 도입, 현물인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산이 될 것임.
캐나다	수출 보조	곡물취급업자들에게 북극항, 처칠(Churchill)을 통해 곡물 선적에 대한 보조금을 도입하여 캐나다밀위원회의 시장독점 해체 이후 북극항을 통한 밀과 보리 수출을 증진하고자 함. 향후 5년간 2,510만 달러(2,500만 캐나다달러)의 유인을 제공할 예정 임.
인도	식량 보조	국가 재고량 축소 및 보관공간 확보를 위해 국영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조되는 밀, 쌀 공급량을 1,000만 톤 증가한 6,50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함.
중국	최저보장가격	밀 최저보장가격을 10% 증가한 톤당 356달러(2,240위안)로 상향 조정함.
	수입관세율 쿼터	밀의 저관세 수입할당량을 720만 톤으로 확정함.
EU	수입관세	재고량 부족 및 높은 가격 때문에, 공급량 확보를 위해 2012년 12월까지 중·저품질 밀에 대한 수입관세 유예를 연장함.
	선물시장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상품거래소, 사료용 밀 선물 및 옵션에 대한 인도에 대해 2,000계약으로 제한하며 2013년 1월부터 발효 됨.
터키	수입조치	2014년5월까지 밀 100만 톤의 무관세 수입을 허가함.
모로코	수입관세	2012년 5월 말까지 밀 수입관세 유예, 그러나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관세17.5%로 상향하여 재개함. 듀럼밀 및 보리에 대한 수입관세는 2012년 말까지 유예함.
	수입 보조	연질밀 수입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함. 2012년 10월 1일~12월 말까지 제분업자들은 연질밀 권장가격인 톤당 300달러(2,600MAD) 또는 수입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85%(기존의 100%에 비해 축소) 보조를 받음.
나이지리아	관세	밀 수입관세 5%에서 20%로, 밀가루 수입관세 65%에서 100%로 신규 설정함.
러시아	수출 관련 조치	겨울(동사)과 봄(가뭄)의 기후가 불리했기 때문에 수출 증진을 위해 곡물 취급에 대한 세금을 5% 인하하여 톤당 18달러(RUB600)가 됨.
	정부 개입	곡물가격 과동 제동,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량에서 곡물 100만 톤 국내시장에 방출할 것을 결정하고 시베리아, 우랄, 극동지역에서 시가의 10~15% 낮은 수준에 판매함.
우크라이나	수출조치	농업부와 곡물무역협회 간 2012/13유통연도 내 곡물 수출량의 최대 수준에 대해 비공식 합의를 도출함.
카자흐스탄	보조금	2011/12(7월/6월) 유통연도에 톤당 1,300만 달러의 곡물 수출 달성을 위해 흑해연안지역 및 발트해항구로 인도되는 모든 물량에 대해 유통연도 말까지 톤당 27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함.
	보조금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흑해연안지역 및 발트해항구로 운송되는 곡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함.

■ 옥수수

국 가	정 책	설 명
알제리	수입관세 유예	국내가격 안정화를 위해 11개월 간 수입관세 유예함.
아르헨티나	수출할당	2011/12 양곡연도 옥수수 수출량이 275만 톤 추가 허가되어 총 1,645만 톤이 허가됨. 2012/13양곡연도 옥수수 수출량 1,500만 톤도 허가됨.
유럽연합	GMO 규제	프랑스, GM곡물, 특히 옥수수에 대한 금지조치를 연장함. 신젠타(Syngenta)의 GM옥수수(MIR162)의 식용 및 사료용 수입과 EU내 가공을 허가함.
인도	최저보장가격	여름작물 생산 증량을 위해 여러 작물의 최저보장가격을 상향 조정함. 옥수수의 최저지원가격은 20% 상승한 톤당 212달러임.
중국	수입 금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아르헨티나산 옥수수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하였으나 선정된 가공업자만 가공할 수 있음.
	보조금	북동부 및 북부 옥수수밭을 멸강나방으로부터 보호하고, 남부 쌀 재배지역을 애멸구와 도열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9,530만 달러(약 6억 위안)를 보조함.
	수입관세율 쿼터	옥수수의 저관세 수입할당량을 960만 톤으로 확정함.
부룬디	수입관세	옥수수가루, 밀가루 등 기초식품에 대한 수입세를 철폐함.
터키	수입조치	2014년 5월까지 옥수수와 보리 50만 톤의 무관세 수입을 허가함.



part 04 세계 기상 정보

2012 World Grain Market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 131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11월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November 27, 2012.

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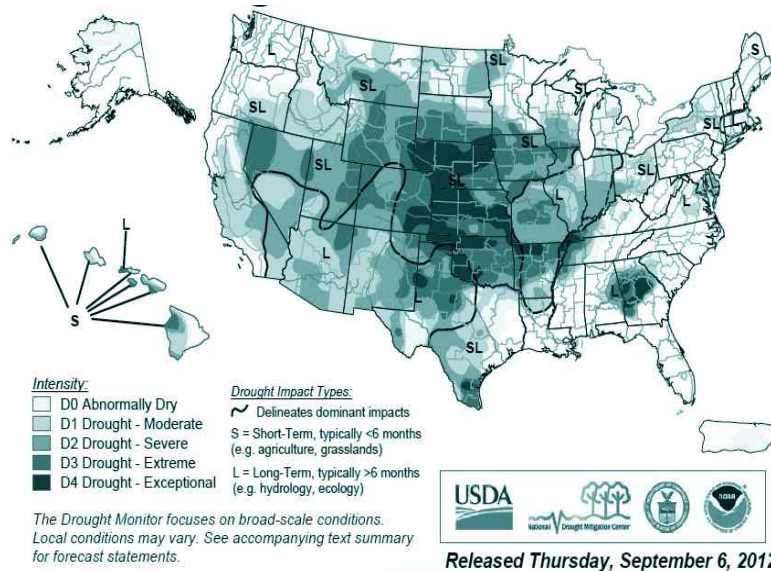
미국 북서부에는 국지적으로 호우 및 눈이 지속되었으나 다른 지역에는 거의 강우와 강설이 없었다. 기온은 남동부만 서늘하고 다른 지역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평원 및 중서부지역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0℃ 이상 높다.

미국 남부지역은 기후가 건조하여 겨울밀 파종, 면화 수확 등 발작업에 유리하였으나 사우스다코타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지역은 온난건조한 기후가 적색경질밀(HRW) 작황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몬태나주는 최근 토양수준이 증가하였으나 이 지역 밀의 1/3이 가뭄으로 인해 발아하지 못했다.

* 세계 기상 정보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발표한 「WEEKLY WEATHERAND CROP BULLETIN」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11월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은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기후 및 작황 현황임.

겨울밀 발아율은 88%로 전년대비 3%p 낮고 5년 평균 대비 2%p 낮은 수준이다. 주산지가 지속적으로 건조하여 작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11월 25일 기준, 겨울밀 주산지 10곳 중 7곳의 생육상황은 좋음/아주 좋음 등급이 29% 내외였다. 미국 전역의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33%로 전주대비 소폭 감소하고 전년 동기대비 19%p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가뭄지역 분포도(11월 20일 기준)



자료: USDA, 「WEEKLY WEATHERAND CROP BULLETIN」, Volume 99(No. 48), November 27, 2012

2. 유럽

중부 및 북부는 온난건조하나 남부는 국지적으로 호우가 내렸다. 겨울밀 주산지는 대부분 건조(강수량 5mm 미만)했으며, 프랑스 북부에만 많은 소나기(강수량 10~25mm)가 내렸다. 한편 영국에는 국지적인 호우(25~90mm)가 지속되었고 지중해성 태풍전선으로 인해 중간~많은 비(10~50mm)가 이탈리아 중부 및 남부, 그리스에 내려 겨울밀에 필요한 토양수분을 공급하고 관개용수를 보충하였다. 1달 이상 기후가 습하여 겨울밀 입모에 유리했던 이베리안반도에는 약한 소나기(2~20mm)가 내렸다.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5℃ 높아 겨울밀과 유지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되었다. 폴란드와 독일 동부의 겨울밀은 동면기에 진입하였다.

3. 구소련(FSU) 서부

평년보다 온난(1~6℃ 높음)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중부 및 북부 재배지역(벨라루스 동부에서 러시아 중부 및 북부에 이르는 지역) 겨울밀은 동면기에 진입하였다. 러시아의 밀 최대 주산지인 남구에는 11월 중순까지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으나, 토양수분 부족으로 인해 밀 입모가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위성으로 측정한 생육상황에 의하면 크림리아, 우크라이나, 남구의 중부 및 북부지역 겨울밀 입모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동아시아

중국의 화북평원지역 북부는 기후가 추위 화북성, 산둥성 북부의 겨울밀이 동면기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화남성은 기온이 평년보다 1~2℃ 높아 겨울밀이 아직 생육 발달 중이다. 밀 재배지역의 주간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의 현재 기온은 10℃ 미만이다. 비는 유채재배지역인 양쯔강 유역에만 한정적으로 내렸고, 겨울밀에 수분이 공급되려면 화북평원지역에 비가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5. 호주

밀벨트 대부분 지역에서 고온건조한 기후가 겨울밀의 성숙과 수확을 가속화하고 있다. 서부지역에서 비(최대 15mm)는 밀벨트 북부 및 동부에만 한정적으로 내렸고 이는 겨울밀 수확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킬 뿐이었다. 한편 동부지역은 고온건조한 기후로 인해 관개작업을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6. 아르헨티나

중부지역에 습한 기후가 재개되어 여름작물과 겨울작물에 과도한 습도가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총 강수량은 25~100mm이고, 코르도바 남부와 인근 부에노스아이레스, 라팜파, 산타페에서는 강수량이 100mm를 초과했다.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2℃ 높았고, 여러 날 동안 낮 최고기온이 30도 초·중반에 달해 생육 발달을 촉진시켰다. 여름작물 파종 및 병충해 방지를 위해 건조해질 필요

가 있다. 아르헨티나 농업부에 의하면, 11월 22일 기준 옥수수 파종율은 59%(전주대비 4%p 상승)로 전년대비 11%p 낮았으며 대두 파종율은 47%(전주대비 16%p 상승)로 전년대비 9%p 낮았다. 겨울밀 수확률은 18%로 전년 동기대비 4%p 낮았으며, 수확작업은 대부분 북부 재배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7. 브라질

국지적 호우가 광범위하게 내려 대두에 필요한 수분이 공급되었다. 중서부 및 내륙 지역 북동부(마토그루소에서 바히아 서쪽에 이르는 지역)에 강수량 25~50mm(국지적으로 100mm에 가까움)의 비가 내려 대두 발아와 입모에 필요한 수분을 적시에 공급하였다. 서부지역(마토그루수 두 술 남부에서 리우그란지 두 술에 이르는 지역)에도 유사한 양의 비가 내려 대두와 옥수수의 수분을 증가시켰으나 겨울밀의 수확속도는 늦추었다. 브라질 남동부(빠라나 중부에서 미나스제라이스 남부에 이르는 지역)의 기후는 건조(총 강수량 25mm 미만)하여 사탕수수 등 여름작물의 수분이 감소했다. 브라질 중부의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2℃ 높고 낮 최고 기온은 30도 초중반이다.

10월

1. 미국

10월 기온은 거의 평년수준이었으나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평년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여름작물의 수확 및 소립곡류 파종작업을 할 시간은 충분하였으나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대평원에서 겨울밀의 발아 및 입모가 제약받았다.

9월 기온이 평균보다 높고 전반적으로 건조하여 전국적으로 옥수수의 건조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10월 7일 기준 옥수수 성숙율은 97%로 5년 평균 대비 13%p 상승하였다. 10월 14일 기준 수확률은 79%로 전년 동기대비 37%p 상승하였고 5년 평균 대비 41%p 상승하였다. 인디애나 주에 10월 중순 강풍과 비가 내려 옥수수 도복피해가 발생하여 수확속도가 늦어졌으나 수확 진행이 평년보다 2주 앞선 수준이었다. 11월 4일 기준 옥수수 수확률은 95%로 전년 동기대비 10%p 상승하였고 5년 평균 대비 24%p 상승

한 수준이다.

10월 초 토양수분이 증가함에 따라 겨울밀 파종작업도 전국적으로 가속화되었다. 캔자스 주에 광범위하게 비가 내려 필요했던 수분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겨울밀 발아를 위해 비가 더 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10월 14일 기준 겨울밀 파종율은 14%로 5년 평균에 상응하는 수준이었다. 10월 내내 기후가 온난하고 전반적으로 건조하여 발작업을 촉진하였으나 발아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11월 4일 기준 발아율은 73%로 5년 평균 대비 소폭 뒤처지는 수준이었다. 발아가 가장 늦은 곳은 사우스다코타로 표토층과 심토층 수분이 각각 84%, 90% 부족/매우 부족 상태였다. 11월 4일 기준으로 전국의 겨울밀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39%로 전년동기의 49%에 비해 낮았다.

10월 7일 기준 전국 쌀 수확률은 79%로 전년 동기대비 10%p, 5년 평균대비 5%p 상승하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의 수확률은 평년에 비해 대폭 낮은 속도였다. 10월 중순경 미시시피강 삼각주와 텍사스 지역의 수확은 마무리 단계였고 캘리포니아 수확은 한창 진행 중이었다. 10월 말 캘리포니아는 기후가 수확에 불리하여 진행이 더뎠다. 11월 4일까지 전국 95% 쌀이 수확 완료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 및 5년 평균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10월 초 기온이 평균보다 높고 아이오와 주의 기후가 대부분 화창하여 대두의 잎떨어짐 및 수확 속도가 평년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10월 7일 기준, 대두는 전국적으로 58%가 수확되었는데, 이는 5년 평균 대비 18%p(1주일) 빠른 속도이다. 10월 말 콘벨트 동부에는 비가 내려 토양 수분이 공급되고 발작업이 제약을 받은 가운데 콘벨트 중부 및 서부는 수확이 거의 완료되었다. 11월 4일 기준 대두 수확률은 93%로 5년 평균 대비 7%p 앞선 속도였다. 10월 7일 수확이 절반 쯤 진행되었을 때 대두의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37%로 전년동기의 5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 유럽

10월 영국 및 프랑스 북부에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 여름작물 수확작업 및 겨울밀 파종작업이 지연되었다. 한편 남부 유럽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토양 수분이 증가하여 발칸반도의 가뭄이 해갈되었고, 발칸반도, 스페인, 이탈리아의 겨울밀에 토양수분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뉴브강 하류의 루마니아 중남부와 불가리아 북부에는 여전히 건조한 지역이 남아있다. 10월 중순에 독일과 폴란드에 눈이 내려 냉해가 발생하였으나 월말에는 기후가 온난해졌다.

3. 구소련(FSU) 서부

이 지역 북쪽 및 서쪽의 기후가 습하여 겨울작물 및 유지작물의 생육발달에 충분한 토양수분이 공급되었다. 반면 우크라이나 남동부 및 러시아 남구에는 건조기후가 지속되어 겨울밀의 발아와 입모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이 지역의 기온은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동면기 진입 전 재배기간이 연장되고 있어 겨울밀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남아있다.

4. 동아시아

10월 초 중국 북동부에 한파가 발생하여 옥수수과 대두의 건조 및 수확속도를 가속화했다. 한편 화북평원지대에서 양쯔강 유역에 이르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기후가 건조하여 여름작물의 수확 및 겨울작물 파종작업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건조기후는 겨울밀 발아 및 입모를 위해 관개작업이 필요하게 만들었다.

5. 호주

10월 호주 서부지역은 대부분 건조하고 간헐적인 고온으로 인해 겨울밀 작황이 불리했다. 호주 남동부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간헐적인 고온으로 인해 성숙기 이전의 겨울밀 및 유지작물 작황이 불리했다.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및 퀸즐랜드 남부 역시 기후가 건조하여 겨울밀 성숙 및 수확속도가 높아졌으며, 최근 파종한 여름작물에 대해 관개작업을 할 필요가 증가했다.

6. 아르헨티나

10월 지속적으로 기후가 습하여 중부 주산지의 습도가 과도하게 높았다. 월간 강수량이 라팜파 북부에서 북동쪽으로 코리엔테스, 미시오네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핵심 주산지인 빠라냐 강 하류지역을 포함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엔트레리오스, 산타페 남부)에서 200mm를 초과했다. 빈번하게 비가 내려 여름작물 및 유지작물의 파종이 저해되었고 겨울밀이 과도하게 습했다. 아르헨티나 북부는 습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10월 말 특히 이전에 건조했던 북서부 재배지역(살타, 산티아고 델에

스테로, 포르모사와 차코의 서부)에 적시에 소나기가 내려 면화와 다른 여름작물의 수분 수준을 증가시켰다. 중부지역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에 가깝거나 소폭 높았다(포르모사 인근지역에서 평년대비 3℃ 높은 수준).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기후가 서늘한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지역에는 월 초에 서리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작물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7.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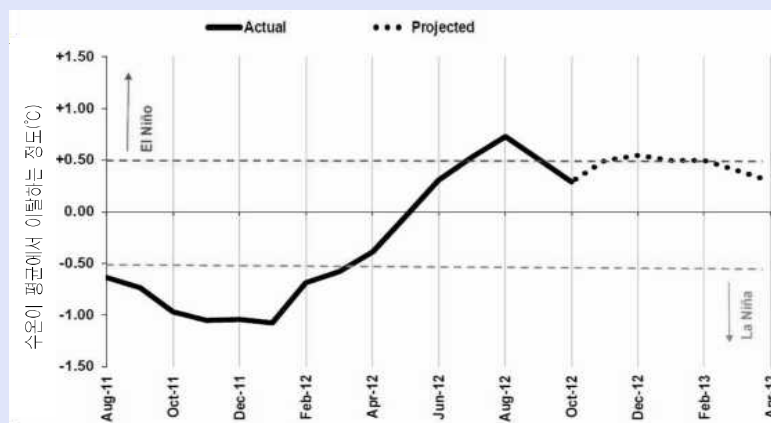
10월 중부 대두 주산지에 계절적인 소나기가 계속 내렸다. 그러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은 수준이었고 계절적이지 않게 온난한 기후(평균기온 평년대비 2-4℃ 높음)로 인해 수분증발이 많이 일어났다. 고온(낮 최고기온 40℃ 육박)건조한 기후로 인해 이른 파종을 한 대두의 일부가 재파종을 해야 했다고 한다. 북동부 내륙지역(토칸티스, 바히아 서부)에도 월말까지 평년 수준의 비가 내리지 않아 유사한 상황이 되었다. 반면 브라질 남부는 기후가 습하여 대두와 옥수수의 발아 및 입모에 필요한 수분이 적시에 공급되었다. 그러나 겨울밀에게는 과도하게 습도가 높았다. 밀 주산지인 리오그란테 두술(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주), 빠라나 남부의 월간 강수량은 200mm를 초과했다.

엘니뇨(El Niño)²⁾

2012/13년 북반구 겨울동안 엘니뇨는 중립단계로 전망된다. 2012년 10월동안 태평양은 ENSO 중립/약한 엘니뇨의 경계단계를 유지했다. 10월 하순 적도해수면온도(SST)의 이탈정도가 심해졌으며 이는 니뇨지수(Niño index)에도 반영되었다. 해수면온도의 이탈은 켈빈파(Kelvin wave)의 침강(해수가 얇은 수심에서 더 깊은 수심으로 가라앉는 과정)과 동반하여 소폭 증가했다. 태평양 해수면 및 심층온도가 최근 상승하기는 했으나 열대 대류는 전반적으로 ENSO 중립상태이다. 상층부와 저층부 대류는 거의 평균에 가까워 10월동안 이상대류의 세기가 감소했다. 따라서 대기와 해양이 ENSO 중립/약한 엘니뇨를 가리키고 있다. 10월의

SST 모델 전망치는 니노 3.4지역부터 북반구까지 수온이 평균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13년 겨울이 ENSO 중립적일 것임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었다. 열대해양과 대기가 가끔 약한 엘니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현재는 해양과 대기에서 엘니노가 발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엘니노 가능성이 감소함에 따라 이전의 엘니노 경계령은 해제되었다. 향후 몇 개월간 엘니노나 라니냐가 발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2012/13년 겨울동안 북반구에서는 ENSO 중립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평양 적도 부근 표층수온의 증감 상황 및 전망



자료: USDA, 「WEEKLY WEATHERAND CROP BULLETIN」, Volume 99(No. 48), November 14, 2012

- 2) 엘니노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생기고, 남방진동은 해수면의 온도가 변함에 따라 대기가 변하는 현상임. 그러므로 남방진동과 엘니노는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서로 결합된 동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현상을 통틀어 ENSO(El Niño-Southern Oscillation)라고 부르게 됨.



part 05 [부록] 통계

2012 World Grain Market



세계 곡물 통계 / 141

국가별 옥수수 통계 / 145

세계 곡물 통계

□ 쌀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144,412	2.75	269,908	12,413	11,258	270,066	52,606
1981/1982	144,375	2.83	277,902	11,726	10,232	278,456	50,503
1982/1983	140,526	2.98	284,974	10,731	9,884	277,833	56,781
1983/1984	144,613	3.12	306,942	12,515	10,708	292,600	69,316
1984/1985	144,067	3.23	316,758	10,740	10,615	298,287	87,662
1985/1986	144,728	3.23	317,986	11,485	10,311	306,784	97,690
1986/1987	144,809	3.21	316,051	13,063	10,686	308,060	103,304
1987/1988	141,432	3.29	315,092	11,572	10,452	312,026	105,250
1988/1989	146,582	3.35	332,117	14,015	11,701	323,373	111,680
1989/1990	147,811	3.45	345,247	11,484	10,589	335,392	120,640
1990/1991	146,966	3.53	351,371	12,115	10,593	343,821	126,668
1991/1992	147,486	3.55	353,235	14,453	12,028	350,794	126,684
1992/1993	146,480	3.58	354,003	14,876	12,954	355,574	123,191
1993/1994	145,332	3.62	354,700	15,837	16,138	359,239	118,953
1994/1995	147,342	3.66	364,148	21,058	19,380	363,850	117,573
1995/1996	148,352	3.69	368,791	19,820	18,127	366,581	118,090
1996/1997	150,083	3.77	381,382	19,110	16,666	376,768	120,260
1997/1998	151,708	3.79	387,433	26,646	24,232	377,539	127,740
1998/1999	153,114	3.83	394,915	25,633	25,219	388,228	134,013
1999/2000	155,860	3.91	409,176	22,837	20,268	397,550	143,070
2000/2001	152,443	3.90	399,260	24,100	22,203	393,697	146,736
2001/2002	151,352	3.93	399,472	26,883	26,053	412,489	132,889
2002/2003	146,896	3.83	378,199	28,684	26,476	405,916	102,964
2003/2004	149,317	3.92	392,312	27,427	25,003	411,277	81,575
2004/2005	151,839	3.93	400,920	28,260	26,071	406,276	74,030
2005/2006	153,853	4.04	417,312	29,734	26,458	411,351	76,715
2006/2007	154,503	4.04	419,901	31,442	28,328	418,142	75,360
2007/2008	155,054	4.14	432,953	31,482	29,880	425,868	80,843
2008/2009	158,204	4.22	448,701	28,960	27,323	435,510	92,397
2009/2010	156,133	4.21	441,399	31,139	28,205	435,688	95,174
2010/2011	157,601	4.25	449,301	34,876	32,748	443,687	98,660
2011/2012 (추정)	158,906	4.36	464,785	38,367	35,443	454,708	105,813

□ 밀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236,901	1.84	435,867	90,126	89,496	443,433	112,657
1981/1982	238,911	1.86	444,995	100,376	97,042	441,758	112,545
1982/1983	238,353	1.98	472,739	100,949	93,230	447,850	129,929
1983/1984	229,923	2.11	484,307	101,794	97,994	465,073	145,359
1984/1985	231,669	2.20	508,913	103,646	101,573	484,075	168,124
1985/1986	229,826	2.15	494,811	82,452	80,505	482,527	178,470
1986/1987	227,895	2.30	524,082	89,274	86,488	508,470	191,296
1987/1988	220,087	2.27	498,710	111,565	112,247	531,254	159,434
1988/1989	217,878	2.27	495,276	105,151	102,384	516,684	135,259
1989/1990	226,333	2.36	533,132	103,419	98,797	526,684	137,085
1990/1991	231,015	2.55	588,801	103,843	99,003	549,477	171,569
1991/1992	222,770	2.44	543,510	109,948	108,361	550,254	163,238
1992/1993	222,061	2.53	562,634	110,039	108,810	546,474	177,869
1993/1994	221,044	2.53	558,470	103,717	98,561	547,828	183,355
1994/1995	213,326	2.45	523,031	98,215	99,877	543,801	164,247
1995/1996	216,715	2.48	537,516	99,195	97,293	544,183	155,678
1996/1997	227,132	2.56	581,470	106,903	98,466	564,954	163,757
1997/1998	226,437	2.69	610,232	104,413	103,787	576,122	197,241
1998/1999	219,239	2.69	590,436	101,297	100,006	577,029	209,357
1999/2000	212,793	2.76	586,839	113,468	109,193	581,196	210,725
2000/2001	215,740	2.70	583,075	101,527	99,956	585,140	207,089
2001/2002	214,531	2.72	583,552	105,915	106,272	586,843	204,155
2002/2003	213,788	2.66	569,597	105,673	103,977	602,826	169,230
2003/2004	207,797	2.67	555,271	108,637	101,225	581,519	135,570
2004/2005	216,104	2.90	626,673	111,446	110,567	605,402	155,962
2005/2006	218,722	2.83	618,806	117,233	112,047	616,060	153,522
2006/2007	212,231	2.81	596,112	111,880	114,137	617,951	133,940
2007/2008	217,140	2.82	611,852	117,303	113,525	613,850	128,164
2008/2009	224,703	3.04	682,800	144,527	137,960	636,545	167,852
2009/2010	225,767	3.04	686,461	137,222	133,792	650,120	200,763
2010/2011	218,274	2.99	652,134	132,483	131,645	654,106	197,953
2011/2012 (추정)	222,106	3.13	696,056	156,256	147,953	687,816	197,890

□ 옥수수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131,189	3.12	408,734	80,308	74,263	411,826	102,541
1981/1982	133,040	3.32	441,753	68,083	72,177	421,225	127,163
1982/1983	125,245	3.51	439,869	59,535	66,623	424,356	149,764
1983/1984	119,699	2.91	348,272	60,955	58,542	406,641	88,982
1984/1985	128,969	3.55	458,366	67,008	66,256	428,446	118,150
1985/1986	130,999	3.66	479,020	55,302	53,470	417,666	177,672
1986/1987	131,859	3.61	475,444	55,077	52,484	445,661	204,862
1987/1988	126,860	3.56	450,997	59,128	57,323	456,354	197,675
1988/1989	126,108	3.18	400,413	68,461	66,465	450,832	145,260
1989/1990	127,310	3.63	461,690	72,176	73,603	475,526	132,851
1990/1991	129,102	3.73	481,963	58,389	58,547	473,577	141,395
1991/1992	132,498	3.72	492,950	62,053	63,107	494,366	141,033
1992/1993	133,080	4.02	535,605	63,263	60,289	509,088	162,714
1993/1994	130,703	3.64	475,773	58,861	56,973	507,161	129,438
1994/1995	135,169	4.14	559,332	66,126	68,911	538,397	153,158
1995/1996	134,966	3.83	516,371	70,422	65,702	531,847	132,962
1996/1997	141,525	4.19	592,999	65,572	64,846	559,407	165,828
1997/1998	136,249	4.22	574,435	63,347	63,206	573,674	166,448
1998/1999	138,940	4.36	605,973	66,938	66,501	581,013	190,971
1999/2000	138,904	4.38	608,109	75,767	70,960	600,483	193,790
2000/2001	137,186	4.31	591,365	76,856	75,047	608,254	175,092
2001/2002	137,483	4.37	601,044	74,666	71,578	621,695	151,353
2002/2003	137,311	4.39	603,179	76,814	75,918	626,593	127,043
2003/2004	141,985	4.42	627,387	77,289	76,941	648,802	105,280
2004/2005	145,424	4.92	715,810	77,712	75,982	687,787	131,573
2005/2006	145,728	4.80	699,739	81,073	80,291	705,778	124,752
2006/2007	149,429	4.78	714,488	94,068	90,269	724,847	110,594
2007/2008	160,450	4.95	794,597	98,645	98,256	772,691	132,111
2008/2009	159,058	5.03	800,036	84,486	82,472	782,065	148,068
2009/2010	158,570	5.18	821,728	96,858	89,683	817,333	145,288
2010/2011	163,830	5.07	830,954	91,455	92,413	850,201	126,999
2011/2012 (추정)	169,460	5.20	880,487	110,776	98,345	862,977	132,078

□ 대두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49,761	1.63	80,926	25,342	26,217	83,943	16,522
1981/1982	49,971	1.72	86,083	29,316	29,107	87,335	15,061
1982/1983	52,060	1.80	93,455	28,617	28,366	90,961	17,304
1983/1984	50,748	1.64	83,104	26,221	25,485	86,006	13,666
1984/1985	53,713	1.73	93,063	25,249	25,419	88,964	17,935
1985/1986	51,991	1.87	97,006	26,061	27,325	92,612	23,593
1986/1987	51,577	1.90	98,049	28,552	29,071	102,126	20,035
1987/1988	54,062	1.92	103,654	30,114	28,143	101,018	20,700
1988/1989	55,659	1.72	95,857	23,558	23,901	97,347	19,553
1989/1990	58,355	1.84	107,192	27,275	26,562	104,120	21,912
1990/1991	54,419	1.92	104,290	25,392	25,546	104,620	21,747
1991/1992	54,944	1.95	107,297	28,098	28,220	109,290	19,794
1992/1993	56,595	2.07	117,206	29,296	30,047	115,894	21,857
1993/1994	60,258	1.95	117,582	27,729	28,178	120,808	19,080
1994/1995	62,150	2.21	137,646	31,982	32,762	132,389	25,117
1995/1996	61,063	2.04	124,698	31,643	32,462	131,673	18,961
1996/1997	62,430	2.11	131,942	36,764	35,631	133,941	15,829
1997/1998	68,528	2.30	157,950	39,314	38,164	145,057	27,572
1998/1999	71,299	2.24	159,826	37,928	38,550	158,769	29,251
1999/2000	71,914	2.23	160,347	45,634	45,572	159,306	30,230
2000/2001	75,439	2.33	175,759	53,817	53,076	171,500	33,748
2001/2002	79,466	2.33	184,815	52,996	54,368	184,332	35,603
2002/2003	81,484	2.42	196,887	61,339	62,884	191,152	42,883
2003/2004	88,390	2.11	186,611	56,042	54,082	189,042	38,492
2004/2005	93,163	2.32	215,758	64,752	63,477	204,353	48,622
2005/2006	92,899	2.38	220,647	63,803	64,087	216,022	53,531
2006/2007	94,309	2.50	235,962	71,090	68,963	224,869	62,497
2007/2008	90,596	2.42	219,555	78,429	78,336	229,489	52,470
2008/2009	96,340	2.20	211,636	76,894	77,391	220,898	43,705
2009/2010	102,161	2.56	261,086	92,863	86,838	237,618	61,148
2010/2011	102,914	2.57	264,676	92,674	88,800	251,510	70,440
2011/2012 (추정)	102,562	2.33	239,216	90,330	92,514	255,844	55,996

자료: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fficial USDA Estimates

국가별 옥수수 통계

□ 중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20,353	3.08	62,600	125	772	61,800	42,822
1981/1982	19,425	3.05	59,205	100	1,245	62,000	41,172
1982/1983	18,543	3.27	60,560	50	2,441	61,400	42,723
1983/1984	18,824	3.62	68,205	330	131	61,800	48,929
1984/1985	18,537	3.96	73,410	5,240	100	61,200	55,999
1985/1986	17,694	3.61	63,826	6,400	374	59,700	54,099
1986/1987	19,124	3.71	70,856	3,750	1,551	64,100	58,656
1987/1988	20,212	3.92	79,240	4,510	217	67,300	66,303
1988/1989	19,692	3.93	77,351	4,008	0	69,000	70,646
1989/1990	20,353	3.88	78,928	3,085	442	74,200	72,731
1990/1991	21,402	4.52	96,820	6,880	0	79,850	82,821
1991/1992	21,574	4.58	98,770	9,974	0	83,200	88,417
1992/1993	21,040	4.53	95,380	11,463	0	87,800	84,534
1993/1994	20,690	4.96	102,700	11,594	0	92,900	82,740
1994/1995	21,152	4.69	99,280	1,333	4,287	97,000	87,974
1995/1996	22,767	4.92	112,000	157	1,476	101,200	100,093
1996/1997	24,498	5.20	127,470	3,892	75	105,750	117,996
1997/1998	23,775	4.39	104,309	6,173	287	109,500	106,919
1998/1999	25,239	5.27	132,954	3,338	262	113,920	122,877
1999/2000	25,904	4.94	128,086	9,935	71	117,300	123,799
2000/2001	23,056	4.60	106,000	7,276	89	120,240	102,372
2001/2002	24,282	4.70	114,088	8,611	39	123,100	84,788
2002/2003	24,634	4.92	121,300	15,244	29	125,900	64,973
2003/2004	24,068	4.81	115,830	7,553	2	128,400	44,852
2004/2005	25,446	5.12	130,290	7,589	2	131,000	36,555
2005/2006	26,358	5.29	139,365	3,727	62	137,000	35,255
2006/2007	28,463	5.33	151,600	5,269	16	145,000	36,602
2007/2008	29,478	5.17	152,300	549	41	150,000	38,394
2008/2009	29,864	5.56	165,914	172	47	153,000	51,183
2009/2010	31,180	5.26	163,974	151	1,296	165,000	51,302
2010/2011	32,500	5.45	177,245	111	979	180,000	49,415
2011/2012 (추정)	33,540	5.75	192,780	91	5,231	188,000	59,335

□ 인도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6,005	1.16	6,957	10	10	6,807	500
1981/1982	5,935	1.16	6,897	10	0	6,987	400
1982/1983	5,720	1.14	6,549	0	0	6,649	300
1983/1984	5,859	1.35	7,922	5	0	7,717	500
1984/1985	5,800	1.46	8,442	6	0	8,436	500
1985/1986	5,797	1.15	6,643	5	0	7,038	100
1986/1987	5,873	1.27	7,457	5	0	7,502	50
1987/1988	5,561	1.03	5,721	0	275	5,996	50
1988/1989	5,897	1.40	8,229	0	200	8,179	300
1989/1990	5,915	1.63	9,651	0	0	9,451	500
1990/1991	5,904	1.52	8,962	1	0	9,261	200
1991/1992	5,860	1.38	8,060	4	0	8,156	100
1992/1993	5,963	1.68	9,992	28	1	9,965	100
1993/1994	5,995	1.60	9,600	36	0	9,564	100
1994/1995	6,135	1.45	8,884	17	1	8,868	100
1995/1996	5,979	1.59	9,530	42	0	9,488	100
1996/1997	6,248	1.70	10,612	8	0	10,304	400
1997/1998	6,305	1.72	10,852	7	1	10,946	300
1998/1999	6,080	1.76	10,680	2	175	10,853	300
1999/2000	6,427	1.79	11,510	17	250	11,350	693
2000/2001	6,557	1.84	12,040	95	50	11,950	738
2001/2002	6,870	1.92	13,160	25	1	12,700	1,174
2002/2003	6,300	1.77	11,150	50	1	12,000	275
2003/2004	7,420	2.02	14,980	1,257	0	13,500	498
2004/2005	7,500	1.89	14,180	448	3	13,900	333
2005/2006	7,600	1.94	14,710	521	4	14,200	326
2006/2007	7,800	1.94	15,100	1,208	4	13,900	322
2007/2008	8,260	2.30	18,960	4,473	4	14,200	613
2008/2009	8,170	2.41	19,730	2,608	13	17,000	748
2009/2010	8,330	2.01	16,720	1,939	24	15,100	453
2010/2011	8,600	2.53	21,730	3,526	19	18,100	576
2011/2012 (추정)	8,670	2.49	21,570	4,700	10	16,900	556

□ 일본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2	2	4	0	13,989	13,679	1,577
1981/1982	1	3	3	0	12,953	13,557	976
1982/1983	1	3	3	0	14,537	14,224	1,292
1983/1984	1	3	3	0	14,634	14,637	1,292
1984/1985	1	3	3	0	13,955	14,192	1,058
1985/1986	1	2	2	0	14,553	14,372	1,241
1986/1987	1	2	2	0	15,500	15,505	1,238
1987/1988	1	2	2	0	16,697	16,600	1,337
1988/1989	1	2	2	0	15,900	15,950	1,289
1989/1990	1	2	2	0	15,993	15,743	1,541
1990/1991	1	2	2	0	16,345	16,379	1,509
1991/1992	1	2	2	0	16,546	16,530	1,527
1992/1993	1	2	2	0	16,760	16,850	1,439
1993/1994	1	2	2	0	16,165	16,450	1,156
1994/1995	1	2	2	0	16,481	16,450	1,189
1995/1996	1	2	2	0	15,976	16,100	1,067
1996/1997	1	1	1	0	15,963	16,100	931
1997/1998	1	1	1	0	16,422	15,900	1,454
1998/1999	1	1	1	0	16,336	16,436	1,355
1999/2000	1	1	1	0	16,117	16,317	1,156
2000/2001	1	1	1	0	16,340	16,200	1,297
2001/2002	1	1	1	0	16,395	16,300	1,393
2002/2003	1	1	1	0	16,863	16,800	1,457
2003/2004	1	1	1	0	16,781	17,200	1,039
2004/2005	1	1	1	0	16,485	16,500	1,025
2005/2006	1	1	1	6	16,617	16,700	937
2006/2007	1	1	1	2	16,713	16,500	1,149
2007/2008	1	1	1	0	16,614	16,600	1,164
2008/2009	1	1	1	0	16,533	16,700	998
2009/2010	1	1	1	0	15,979	16,300	678
2010/2011	1	1	1	0	15,648	15,700	627
2011/2012 (추정)	1	1	1	0	14,892	14,900	620

□ 호주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57	3.04	173	11	7	161	79
1981/1982	61	3.48	212	20	14	265	20
1982/1983	54	2.57	139	1	12	170	0
1983/1984	68	3.50	238	90	12	150	10
1984/1985	103	2.83	291	100	7	203	5
1985/1986	75	3.04	228	70	10	168	5
1986/1987	60	2.63	158	55	12	119	1
1987/1988	59	3.75	221	40	9	189	2
1988/1989	54	4.19	226	20	5	199	14
1989/1990	52	4.37	227	36	0	191	14
1990/1991	52	3.94	205	20	3	188	14
1991/1992	52	5.38	280	15	0	264	15
1992/1993	47	4.43	208	21	0	187	15
1993/1994	44	4.59	202	22	22	193	24
1994/1995	50	4.84	242	4	75	329	8
1995/1996	58	5.60	325	9	0	312	12
1996/1997	67	5.94	398	13	0	385	12
1997/1998	57	4.75	271	19	1	263	2
1998/1999	66	5.12	338	37	0	301	2
1999/2000	82	4.95	406	51	1	355	3
2000/2001	74	4.66	345	44	0	300	4
2001/2002	83	5.51	457	118	48	390	1
2002/2003	50	6.32	316	18	0	290	9
2003/2004	70	5.60	392	9	0	380	12
2004/2005	72	4.33	312	4	22	335	7
2005/2006	76	5.00	380	3	0	370	14
2006/2007	49	4.90	240	1	24	265	12
2007/2008	68	5.69	387	67	26	320	38
2008/2009	65	5.77	375	13	0	350	50
2009/2010	59	5.56	328	9	0	325	44
2010/2011	62	5.76	357	46	1	325	31
2011/2012 (추정)	77	5.48	422	85	0	325	43

□ 브라질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12,810	1.76	22,555	7	0	22,300	1,348
1981/1982	13,382	1.71	22,932	700	0	22,035	1,545
1982/1983	11,050	1.76	19,500	450	500	20,795	300
1983/1984	12,200	1.74	21,180	385	440	20,980	555
1984/1985	11,940	1.77	21,170	56	1,100	21,614	1,155
1985/1986	12,710	1.59	20,264	0	2,000	22,264	1,155
1986/1987	14,610	1.83	26,760	0	400	26,426	1,889
1987/1988	13,375	1.89	25,220	0	50	24,470	2,689
1988/1989	12,970	2.03	26,270	0	100	25,108	3,951
1989/1990	12,100	1.84	22,300	0	900	25,800	1,351
1990/1991	13,490	1.80	24,330	0	700	25,630	751
1991/1992	14,030	2.20	30,800	0	497	28,670	3,378
1992/1993	12,400	2.35	29,200	9	1,220	30,200	3,589
1993/1994	13,692	2.41	32,934	4	1,304	33,000	4,823
1994/1995	14,189	2.64	37,440	56	1,407	36,000	7,614
1995/1996	13,767	2.36	32,480	267	280	36,600	3,507
1996/1997	13,877	2.57	35,700	92	470	36,250	3,335
1997/1998	11,365	2.65	30,100	6	1,722	33,400	1,751
1998/1999	12,100	2.68	32,393	8	1,180	33,200	2,116
1999/2000	12,578	2.52	31,641	222	1,632	33,500	1,667
2000/2001	12,972	3.20	41,536	6,261	244	34,500	2,686
2001/2002	11,827	3.00	35,501	2,054	367	35,000	1,500
2002/2003	12,956	3.43	44,500	4,625	683	35,800	6,258
2003/2004	12,440	3.38	42,000	4,441	361	36,300	7,878
2004/2005	11,561	3.03	35,000	682	496	38,500	4,192
2005/2006	12,900	3.23	41,700	4,524	1,147	39,500	3,015
2006/2007	14,000	3.64	51,000	10,836	1,413	41,000	3,592
2007/2008	14,700	3.99	58,600	7,791	678	42,500	12,579
2008/2009	14,100	3.62	51,000	7,136	1,141	45,500	12,084
2009/2010	12,925	4.34	56,100	11,599	404	47,000	9,989
2010/2011	13,800	4.16	57,400	8,404	791	49,500	10,276
2011/2012 (추정)	15,200	4.80	73,000	21,000	800	52,500	10,576

□ 아르헨티나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3,394	3.80	12,900	9,098	0	3,700	210
1981/1982	3,170	3.03	9,600	5,765	0	3,500	545
1982/1983	2,970	3.03	9,000	6,056	0	3,200	289
1983/1984	3,025	3.14	9,500	5,448	0	4,250	91
1984/1985	3,340	3.56	11,900	7,126	0	4,475	390
1985/1986	3,351	3.70	12,400	7,367	0	5,000	423
1986/1987	2,900	3.19	9,250	4,032	0	5,250	391
1987/1988	2,438	3.77	9,200	4,340	0	4,666	585
1988/1989	1,684	2.91	4,900	1,800	0	3,000	685
1989/1990	1,700	3.06	5,200	2,800	0	2,900	185
1990/1991	1,900	4.04	7,685	4,000	3	3,303	570
1991/1992	2,400	4.42	10,600	6,070	1	4,401	700
1992/1993	2,450	4.16	10,200	4,749	1	5,102	1,050
1993/1994	2,400	4.17	10,000	4,100	1	5,766	1,185
1994/1995	2,522	4.52	11,404	5,782	1	5,479	1,329
1995/1996	2,700	4.11	11,100	7,494	2	4,308	629
1996/1997	3,410	4.56	15,537	10,828	1	4,323	1,016
1997/1998	3,185	6.08	19,361	12,222	2	6,350	1,807
1998/1999	2,515	5.37	13,504	7,882	2	6,450	981
1999/2000	3,100	5.55	17,200	11,923	23	5,520	761
2000/2001	2,816	5.45	15,359	9,676	23	5,600	867
2001/2002	2,420	6.08	14,712	10,864	2	4,150	567
2002/2003	2,450	6.33	15,500	11,199	3	4,100	771
2003/2004	2,339	6.39	14,951	10,944	35	4,400	413
2004/2005	2,783	7.36	20,483	14,574	10	5,200	1,132
2005/2006	2,440	6.48	15,800	9,464	2	6,200	1,270
2006/2007	2,800	8.04	22,500	15,309	4	6,700	1,765
2007/2008	3,412	6.45	22,017	14,798	6	6,800	2,190
2008/2009	2,500	6.20	15,500	10,324	4	6,400	970
2009/2010	3,000	8.33	25,000	16,504	7	6,900	2,573
2010/2011	3,750	6.72	25,200	16,349	6	7,300	4,130
2011/2012 (추정)	3,600	5.83	21,000	16,000	10	7,700	1,440

□ 멕시코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8,100	1.28	10,400	0	3,833	12,800	2,029
1981/1982	8,150	1.53	12,500	0	571	13,518	1,582
1982/1983	6,000	1.17	7,000	0	4,003	12,300	285
1983/1984	6,500	1.43	9,300	0	2,459	11,600	444
1984/1985	6,300	1.57	9,900	0	1,684	11,800	228
1985/1986	6,200	1.69	10,500	0	1,736	11,986	478
1986/1987	6,000	1.67	10,000	0	3,256	13,106	628
1987/1988	6,000	1.65	9,900	0	2,899	13,024	403
1988/1989	6,000	1.68	10,100	0	3,138	13,447	194
1989/1990	5,800	1.68	9,750	0	4,995	13,989	950
1990/1991	6,600	2.14	14,100	0	1,939	15,239	1,750
1991/1992	6,995	2.10	14,689	12	1,024	16,451	1,000
1992/1993	7,536	2.47	18,631	8	396	18,461	1,558
1993/1994	7,750	2.49	19,276	113	1,691	20,500	1,912
1994/1995	8,019	2.12	16,994	74	3,166	20,250	1,748
1995/1996	7,777	2.29	17,780	72	6,433	23,200	2,689
1996/1997	8,234	2.30	18,922	123	3,141	22,090	2,539
1997/1998	7,208	2.41	17,368	258	4,376	22,000	2,025
1998/1999	7,858	2.26	17,789	16	5,615	23,040	2,373
1999/2000	7,225	2.66	19,240	8	4,911	23,660	2,856
2000/2001	7,144	2.51	17,917	17	6,017	24,000	2,773
2001/2002	7,780	2.62	20,400	164	4,076	23,600	3,485
2002/2003	7,030	2.74	19,280	7	5,269	24,700	3,327
2003/2004	7,690	2.83	21,800	5	5,739	26,400	4,461
2004/2005	7,690	2.87	22,050	27	5,945	27,900	4,529
2005/2006	6,640	2.94	19,500	209	6,787	27,900	2,707
2006/2007	7,375	3.03	22,350	217	8,944	30,700	3,084
2007/2008	7,330	3.22	23,600	109	9,556	32,000	4,131
2008/2009	7,318	3.31	24,226	162	7,764	32,400	3,559
2009/2010	6,280	3.24	20,374	642	8,298	30,200	1,389
2010/2011	7,020	3.00	21,058	87	8,252	29,200	1,412
2011/2012 (추정)	6,070	3.08	18,680	300	11,200	29,500	1,492

□ 미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29,526	5.71	168,648	60,737	22	124,246	35,361
1981/1982	30,159	6.84	206,223	50,720	14	126,445	64,433
1982/1983	29,428	7.11	209,181	46,264	12	137,871	89,491
1983/1984	20,833	5.09	106,031	47,917	43	122,087	25,561
1984/1985	29,096	6.70	194,881	46,999	44	131,621	41,866
1985/1986	30,436	7.41	225,447	31,176	251	133,779	102,609
1986/1987	27,886	7.49	208,944	37,911	45	149,686	124,001
1987/1988	24,081	7.52	181,143	43,599	87	153,446	108,186
1988/1989	23,573	5.31	125,194	51,525	71	132,891	49,035
1989/1990	26,217	7.30	191,320	60,132	48	146,120	34,151
1990/1991	27,095	7.44	201,534	43,858	87	153,273	38,641
1991/1992	27,851	6.82	189,868	40,233	499	160,826	27,949
1992/1993	29,169	8.25	240,719	42,249	180	172,927	53,672
1993/1994	25,468	6.32	160,986	33,741	529	159,851	21,595
1994/1995	29,345	8.70	255,295	55,311	243	182,251	39,571
1995/1996	26,390	7.12	187,970	56,589	419	160,552	10,819
1996/1997	29,398	7.98	234,518	45,655	337	177,586	22,433
1997/1998	29,409	7.95	233,864	38,214	224	185,087	33,220
1998/1999	29,376	8.44	247,882	50,401	478	185,788	45,391
1999/2000	28,525	8.40	239,549	49,191	375	192,496	43,628
2000/2001	29,316	8.59	251,854	49,313	173	198,102	48,240
2001/2002	27,830	8.67	241,377	48,383	258	200,941	40,551
2002/2003	28,057	8.12	227,767	40,334	367	200,748	27,603
2003/2004	28,710	8.92	256,229	48,258	358	211,595	24,337
2004/2005	29,798	10.06	299,876	46,181	275	224,610	53,697
2005/2006	30,399	9.29	282,263	54,201	224	232,015	49,968
2006/2007	28,586	9.36	267,503	53,987	304	230,674	33,114
2007/2008	35,014	9.46	331,177	61,913	509	261,632	41,255
2008/2009	31,796	9.66	307,142	46,965	344	259,272	42,504
2009/2010	32,169	10.34	332,549	50,295	212	281,590	43,380
2010/2011	32,960	9.59	316,165	46,590	703	285,014	28,644
2011/2012 (추정)	33,986	9.24	313,918	39,184	736	279,007	25,107

□ 캐나다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958	6.01	5,753	1,056	1,363	6,172	1,274
1981/1982	1,139	5.86	6,673	1,135	822	6,449	1,185
1982/1983	1,107	5.88	6,513	489	759	6,351	1,617
1983/1984	1,107	5.36	5,931	429	226	6,340	1,005
1984/1985	1,192	5.69	6,778	570	612	6,444	1,381
1985/1986	1,123	6.21	6,970	653	415	6,688	1,425
1986/1987	994	5.95	5,912	143	642	6,642	1,194
1987/1988	1,006	7.02	7,065	369	235	6,883	1,242
1988/1989	995	5.48	5,450	11	975	6,654	1,002
1989/1990	1,035	6.35	6,571	25	568	6,972	1,144
1990/1991	1,062	6.65	7,067	142	522	7,057	1,534
1991/1992	1,105	6.71	7,413	964	213	6,675	1,521
1992/1993	857	5.70	4,883	200	1,255	6,209	1,250
1993/1994	1,012	6.67	6,755	523	552	7,454	580
1994/1995	973	7.39	7,190	360	1,078	7,785	703
1995/1996	1,004	7.25	7,281	604	823	7,482	721
1996/1997	1,090	6.92	7,542	340	857	7,810	970
1997/1998	1,045	6.87	7,180	134	1,475	8,599	892
1998/1999	1,118	8.01	8,952	829	899	9,029	885
1999/2000	1,141	8.03	9,161	456	1,017	9,055	1,552
2000/2001	1,088	6.27	6,827	122	2,746	10,123	880
2001/2002	1,268	6.62	8,389	199	3,951	11,965	1,056
2002/2003	1,283	7.01	8,999	314	3,946	12,576	1,111
2003/2004	1,226	7.82	9,587	369	2,029	11,215	1,143
2004/2005	1,072	8.24	8,837	238	2,371	10,311	1,802
2005/2006	1,085	8.60	9,332	253	1,928	10,808	2,001
2006/2007	1,061	8.47	8,990	314	2,102	11,442	1,337
2007/2008	1,370	8.50	11,649	942	3,182	13,769	1,457
2008/2009	1,169	9.06	10,592	372	1,843	11,687	1,833
2009/2010	1,142	8.37	9,561	129	2,099	11,626	1,738
2010/2011	1,203	9.74	11,714	1,709	959	11,424	1,278
2011/2012 (추정)	1,202	8.89	10,689	493	872	10,996	1,350

□ 러시아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7/1988	1,424	2.70	3,844	500	5,000	7,400	1,244
1988/1989	1,260	3.03	3,814	100	13,575	15,665	2,868
1989/1990	1,428	3.27	4,663	150	10,750	15,775	2,356
1990/1991	780	3.14	2,451	400	6,050	8,600	1,857
1991/1992	680	2.90	1,969	300	6,025	8,295	1,256
1992/1993	740	2.89	2,135	100	4,271	6,175	1,387
1993/1994	760	3.22	2,447	4	2,765	5,650	945
1994/1995	460	1.96	900	1	111	1,800	155
1995/1996	590	2.88	1,700	0	112	1,800	167
1996/1997	460	2.35	1,081	0	231	1,330	149
1997/1998	850	3.12	2,652	16	85	2,370	500
1998/1999	490	1.63	800	13	524	1,710	101
1999/2000	520	1.99	1,034	0	870	1,845	160
2000/2001	700	2.13	1,489	1	150	1,700	98
2001/2002	450	1.80	808	0	534	1,350	90
2002/2003	530	2.83	1,499	12	99	1,600	76
2003/2004	640	3.17	2,031	0	496	2,550	53
2004/2005	840	4.02	3,373	44	226	3,500	108
2005/2006	800	3.83	3,060	53	306	3,300	121
2006/2007	970	3.62	3,510	77	108	3,600	62
2007/2008	1,300	2.92	3,798	49	341	4,100	52
2008/2009	1,730	3.86	6,682	1,331	51	5,200	254
2009/2010	1,120	3.54	3,963	427	32	3,700	122
2010/2011	1,020	3.01	3,075	37	112	3,200	72
2011/2012 (추정)	1,550	4.31	6,680	2,027	50	4,500	275

□ 우크라이나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7/1988	2,423	3.43	8,308	1,500	300	6,915	343
1988/1989	2,328	3.71	8,638	1,300	1,800	8,855	626
1989/1990	1,856	3.79	7,026	600	1,750	8,017	785
1990/1991	1,234	3.84	4,737	350	400	5,009	563
1991/1992	1,461	3.25	4,747	150	819	5,586	393
1992/1993	1,160	2.46	2,851	100	980	3,851	273
1993/1994	1,331	2.84	3,786	2	86	3,308	835
1994/1995	651	2.36	1,537	0	34	2,181	225
1995/1996	1,161	2.92	3,392	58	2	2,736	825
1996/1997	671	2.74	1,840	22	11	2,229	425
1997/1998	1,350	3.96	5,340	593	8	3,830	1,350
1998/1999	910	2.53	2,301	365	37	2,823	500
1999/2000	689	2.52	1,737	55	85	2,000	267
2000/2001	1,279	3.01	3,848	397	26	2,800	944
2001/2002	1,123	3.24	3,641	349	4	3,300	940
2002/2003	1,189	3.52	4,180	811	23	3,500	832
2003/2004	1,989	3.46	6,875	1,238	0	5,600	869
2004/2005	2,300	3.86	8,867	2,334	14	6,000	1,416
2005/2006	1,660	4.32	7,167	2,464	12	5,100	1,031
2006/2007	1,720	3.74	6,426	1,027	24	5,250	1,204
2007/2008	1,903	3.90	7,421	2,074	24	5,750	825
2008/2009	2,440	4.69	11,447	5,497	12	5,850	937
2009/2010	2,089	5.02	10,486	5,072	21	5,700	672
2010/2011	2,648	4.50	11,919	5,008	38	6,500	1,121
2011/2012 (추정)	3,544	6.44	22,838	15,000	50	7,800	1,209

□ EU-27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8,920	6.43	57,339	1,408	2,384	57,582	4,587
2000/2001	8,917	5.62	50,089	585	3,689	55,108	2,672
2001/2002	9,452	6.14	58,022	1,258	2,201	58,288	3,349
2002/2003	8,995	6.41	57,660	756	2,824	57,576	5,501
2003/2004	9,138	5.24	47,905	455	5,859	55,764	3,046
2004/2005	9,677	6.87	66,471	678	2,469	63,200	8,108
2005/2006	9,169	6.62	60,668	449	2,673	61,500	9,500
2006/2007	8,492	6.34	53,829	664	7,172	62,400	7,437
2007/2008	8,444	5.63	47,555	591	14,016	64,000	4,417
2008/2009	8,785	7.09	62,321	1,743	2,754	61,600	6,149
2009/2010	8,291	6.87	56,947	1,519	2,931	59,300	5,208
2010/2011	8,021	7.00	56,165	1,078	7,437	62,900	4,832
2011/2012 (추정)	8,813	7.51	66,171	3,200	6,300	67,300	6,803

□ 이집트

연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80/1981	801	4.03	3,231	0	984	4,100	1,567
1981/1982	801	4.04	3,232	0	1,344	4,400	1,743
1982/1983	813	4.12	3,347	0	1,215	5,100	1,205
1983/1984	756	4.64	3,509	0	1,563	5,400	877
1984/1985	829	4.46	3,698	0	1,722	6,247	50
1985/1986	804	4.6	3,699	0	1,881	5,580	50
1986/1987	825	4.73	3,900	0	2,035	5,985	0
1987/1988	823	4.97	4,087	0	1,399	5,486	0
1988/1989	825	5.20	4,287	0	1,255	5,542	0
1989/1990	843	5.37	4,524	0	1,254	5,778	0
1990/1991	840	5.47	4,598	0	1,943	6,541	0
1991/1992	693	6.39	4,431	0	1,442	5,873	0
1992/1993	750	6.00	4,500	0	1,797	6,297	0
1993/1994	811	6.14	4,980	0	2,095	6,875	200
1994/1995	886	6.38	5,650	0	2,648	7,998	500
1995/1996	902	5.93	5,353	0	2,257	7,810	300
1996/1997	876	6.65	5,825	0	3,201	9,026	300
1997/1998	837	7.18	6,010	0	3,245	9,255	300
1998/1999	737	7.61	5,605	0	3,687	9,292	300
1999/2000	730	7.78	5,678	0	4,600	10,200	378
2000/2001	705	7.99	5,636	0	5,268	10,900	382
2001/2002	770	8.00	6,160	0	4,905	11,200	247
2002/2003	700	8.57	6,000	0	4,848	10,900	195
2003/2004	672	8.54	5,740	0	3,743	9,200	478
2004/2005	708	8.25	5,840	0	5,398	11,300	416
2005/2006	724	8.19	5,932	4	4,397	10,100	641
2006/2007	717	8.58	6,149	4	4,826	10,700	912
2007/2008	720	8.58	6,174	11	4,151	10,400	826
2008/2009	781	8.51	6,645	7	5,031	11,100	1,395
2009/2010	840	7.48	6,280	17	5,832	12,000	1,490
2010/2011	850	7.65	6,500	13	5,803	12,500	1,280
2011/2012	700	7.86	5,500	10	7,100	11,700	2,170

자료: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fficial USDA Estimates

발 행 일 2012. 11
발 행 인 이동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